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 프로젝트 북

사 량 방
2 1 세 기
다 다 작 하 다
시 작 하 다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 북)

발행인 이대엽, 이종덕
편집인 노재천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김환실, 김보애

사진, 글 이초영
북디자인 박소하다
인쇄 염제이콤

발행일 2007년 12월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 www.clubsb.or.kr)
©2007 성남문화재단

차례

**01.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 북
발간 축하 인터뷰**

- 발간을 축하하며_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이대엽
-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성남을 확신하며_성남아트센터 사장 이종덕

02. 사랑방문화클럽 심벌 및 로고

03. 사랑방문화클럽 사업방향

2p

사랑방을 찾다

04. 사업 시작부터 사랑방을 찾기까지

-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가는 원동력, 사랑방문화클럽_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부장 박승현
- 숨어있는 사랑방문화클럽을 찾아_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안성아
- 창조계급을 양성하는 문화발전소, 사랑방문화클럽_한국예술종합학교 협동과정 예술경영과 교수 전수환

28p

사랑마루 에서 모이다

**05. 클럽 네트워크 구성부터 기획,
운영까지**

- 클럽지기들의 첫 상견례, Club Party
 - 클럽지기 모임 창립을 위한 제 1차 워크숍
 - 클럽이 직접 정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운영원칙, 제 2차 워크숍
 - 문화예술이 꽃피우는 성남이 되기 위한 준비 완료, 제 3차 워크숍
 - Start! 클럽지기 모임 창립대회
 - 운영위원회, 이렇게 움직이다
- 200705-200710

42p

사랑마당 에서 놀다

06-1. 클럽주간 사랑방클럽 축제를 펼치며

-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창조한 시민의 축제_클럽주간 사랑방클럽 축제
- 참여한 모두가 주인공_축제 후기 모음

06-2. 클럽지원을 통하여 클럽 하나 하나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

- 공모지원사업 설명회
- 성남 곳곳에서 문화를 만드는 사랑방_클럽활동 취재기

86p

사랑방과 사랑방을 잇다

07. 사랑방문화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 성남문화통화사업_문화사랑방+문화통화 넘실
- 온라인 사랑방문화클럽 뉴스레터 + 사랑방문화클럽 통신원

278p

08. 2008년을 준비하는 사랑방문화클럽

- 사랑방문화클럽 2007 활동보고회
- 제 2의 화려한 도약, 사랑방문화클럽 2008

09. 덧붙임

- 사랑방 문화클럽 클럽지기 모임 운영규정

292p

|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발 간 을
축 하 하 며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이대엽



지난 1년간 사랑방문화클럽들의 역동적인 창조활동을 담아낸 이번 프로젝트 북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류문명의 역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창조성'이라는 새로운 도시 성장과 발전의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조성이란 가능성의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며 그 궁극적 구현 목적이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성'은 우리시가 시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있는 미래 지향적 도시개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최첨단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다함께 행복한 문화복지 실현', '선진교육 환경과 자연친화 생태도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을 역점사업으로 100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기있는 문화도시 성남'이 지향하는 창조성의 실현 목적은 시민들 스스로가 문화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성숙시키고 나아가 본질적인 인간가치를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창조성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적영역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공공영역의 중요한 매개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시설과 인력 및 첨단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IT, NT, BT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미래 도시는 이러한 첨단미래산업에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지향하며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도시나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미래의 문화예술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창조해 나갈 주체, 즉 시민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창조적 시민'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창조적 시민은 인간의 기호와 가치, 개인적 관계, 생활공간의 선택과 관계되는 창조적 유형의 일과 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시민을 말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창조적 콘텐츠 등을 창출하여 확산시키고 널리 이용케하며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일상적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말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남시에 무려 1,100개가 넘는 문화예술클럽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소식에 우리 스스로는 물론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남은 가히 창조적 시민이 활동하는 문화예술의 보고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수히 많은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이미 생활 속에서 왕성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창조도시'는 우선 그 도시에 예술활동이 지닌 창조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활동과 문화 인프라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 인프라는 사람+기술+환경의 조화와 연계를 이룬 기반을 말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술, 문화와 산업, 경제를 잇는 매개체로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창조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와 기업 및 시민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확장하고, 인간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네트워크의 연결점을 개발하고 이어주며, 삶터 마다의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문화발전의 시너지를 증폭시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바로 그러한 창조성 발현의 핵심역할을 사랑방문화클럽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 시민 모두가 사랑방문화클럽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자신의 문화예술적 창조성을 일상적으로 발휘하고 높여내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상호 노력의 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아마 머지

않아 성남시는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성남시의 소중한 문화창조자들로서 성남시 문화발전에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은 사랑방문화클럽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 속에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부러워하며 배우고 싶어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은 향후 우리시의 가능성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클럽들의 네트워크도 크게 발전하여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의 큰 자랑거리이자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의 눈부신 활동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문 화 도 시 로
거 듭 나 는
성 남 을
확 신 하 며

성남아트센터

사장

이종덕



예술행정가로서 한 길 인생, 45년

나는 어릴 적부터 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돈암동 동도극장에서 하루 종일 살았죠. 대학교를 마치고 당시 문화공보부(현, 문화관광부) 문화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5개 분과로 세분화되었지만, 문화과에서는 현재 10개 협회인 예총을 관할하면서 미술, 음악, 공연, 음반, 전통예술 등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전체를 담당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쭉 같은 업무를 보면서 성과가 쌓이니까 유명해지게 되고... 그 이후 계속 한 길을 걸어왔더니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문화공보부에서 공연예술 파트 담당을 하다가 나와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6년 동안 상임이사로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예술단(88예술단)으로 옮겼는데 현업부서에서 지방공연, 해외공연을 기획하고 단원들과 함께 공연을 다녔죠. 공연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지방의 문화기관의 환경이 열악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적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는 기관장들도 일반 공무원출신들이 하다 보니 현장을 많이 본 제 입장에선 더욱 그랬죠.

이때 문화예술계에 전문 행정인력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어요. 예술행정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었고, 예술경영이라는 단어는 더욱 생소했습니다. 1970년대 말, 대내외적으로 예술행정의 필요성을 느껴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술경영이라는 개념이 생겼지요. 현재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된 후배들과 함께 동호회처럼 만나서 미국, 영국 등의 예술경영 자료를 번역하여 토론하고 책을 내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예술행정, 예술경영'이라는 개념을 인식시켰습니다. 이제는 외국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한 전문 인력들이 많아졌지만 그 때는 서로 공부한 것을 공유하고 수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실로 꼭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삶과 문화예술은 어릴 적부터 친구여야 한다

예술의 전당에 있을 때, 유수의 최고 기업의 대표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면 '언제 끝나느냐,

끝나고 빨리 술 한 잔 하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화예술과 친해지려면 어려서부터 자주 문화예술을 접하는 환경이 가까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죠.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을 접하려면 시민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겠구나'를 깊숙이 느끼고 있었는데 때마침 성남문화재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남'의 브랜드를 문화예술도시라는 이미지로 구축하기에는 꽤 오랜 세월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래서 성남문화재단을 문화사업국과 공연사업국으로 이원화한 뒤, 문화사업국은 문화도시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공연사업국은 아트센터 공연을 담당하는 구조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중 문화 사업국의 정책 사업을 성남시민의 문화향수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하고 활력소를 삼을만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려고 이야기했죠. 그 결과로 5대 정책 사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5개 정책사업의 중심축에 사랑방문화클럽이 있었고요. 처음에 시에서까지 생소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이 향후 성남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의 45년 예술행정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청사진이 나왔던 거죠. 저는 이 정책들로 인해 훗날 성남시의 어린이들이 자라나 스스로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어른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들이 모여 함께 소통하는 사랑방

우선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잘 붙였다고 생각해요. 사랑방 참, 이름 좋잖아요. 예로부터 사랑방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문화클럽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끊임없이 대화하고 무엇인가를 창조하여 예술을 꽃피우는 장소라는 이미지를 더욱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45개 동이 사랑방문화클럽을 중심으로 모여 움직이면 성남문화재단은 뒤에서 물심양면

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이어령 전 장관님도 '이제는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현재는 예술가들의 창작 진흥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스스로 본인의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문화 창조권의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사랑방문화클럽 정책 사업이 가장 앞서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클럽들의 활동무대를 성남시 뿐 만 아니라 세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도시 중 지역 동호회가 여는 페스티벌과 우리의 사랑방클럽축제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의 페스티벌에 초청하여 연주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남이라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중심의 정책 사업을 이루어냈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성남시민들의 의지와 노력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어울림이다.

성남목관양상블 김용우

사랑방문화클럽은 통(通)이다.

알함브라 기타합주단 김종원

사랑방문화클럽은 OO 이다.

사랑방문화클럽은 OO 이다.

사랑방문화클럽은 OO 이다.



사랑방문화클럽은 꿈의 실현이다.

이종필

사랑방문화클럽은 샘물이다.

아마데이 만돌린첼버오케스트라 김병규

사랑방문화클럽은 삶의 향기이다.

박유식

|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사랑방문화클럽 심벌 및 로고

Symbol
& logo





사 량 방 문 화 클 럽 사 업 방 향

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다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의 출발은 '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다'에서 시작되었다. 이 슬로건을 신조로 삼아 실제로 시민이 만드는 도시가 어떻게 해야 구현될 수 있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성남문화재단은 고민에 빠졌다. 성남문화재단은 이 고민의 해답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클럽에서 찾았고, 여러 문화클럽이 자생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여 '문화도시 성남'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사랑방문화클럽 정책사업'이다.

사랑방, 그 문을 활짝 열다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성남시 곳곳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동호회는 얼마나 될까? 성남문화재단은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일 처음으로 성남지역의 자생적인 문화예술클럽에 대해 1차 실태조사를 벌여 1,103개의 문화클럽을 찾아냈다.

사랑방, 사랑마루, 사랑마당

예로부터 사랑방은 만남과 문화, 예술, 소통이 공존하는 공간이었

다. 사랑방은 주인의 예술활동과 내방객의 접대에 이용된 공간으로 서고의 역할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기거, 침식, 독서, 사색, 휴식, 예술 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졌다. 사랑방은 방-대청마루, 방-뒷마루, 방-마당, 방-다락 등 타 공간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공간 활용이 유연하다. 특히 문화예술을 매개로 무리지어 동고동락하며 종합 창작 공간 역할을 했던 전통적인 사랑방은 오늘날의 문화클럽 활동공간과 무척 흡사하다.

사랑마루는 사랑방에서 사랑마당으로 넘어가기 위한 길목역할을 한다. 문화클럽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을 담당하는 성남문화재단과 지역 내 유휴공간의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사랑방이 사랑마루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사랑마당은 사랑방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에너지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양의 공간이다. 방문한 손님의 수에 따라 여담이문을 이용해 사랑방에서 사랑마당까지 열리는 확장성이 있다. 사랑방 활동의 성과를 표출하여 공헌적인 활동으로 전환되는 공간과 기회를 일컫는다. 사회 공헌에 기여하는 각종 발표 및 공연, 클럽 주간 사랑방클럽축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변화를 담는 그릇, 사랑방문화클럽

사랑방문화클럽은 쉽과 만남, 문화적 관심사를 결합한 관계 중심적 모임이다. 고정된 공간(온라인, 오프라인)의 확보를 통해 문화클럽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 다양화된 문화 예술적 욕구를 순발력 있게 해소하는 자발적 모임이며 오래된 클럽일 경우 전문성을 내부적으로 축적하고 전문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문화시민 아름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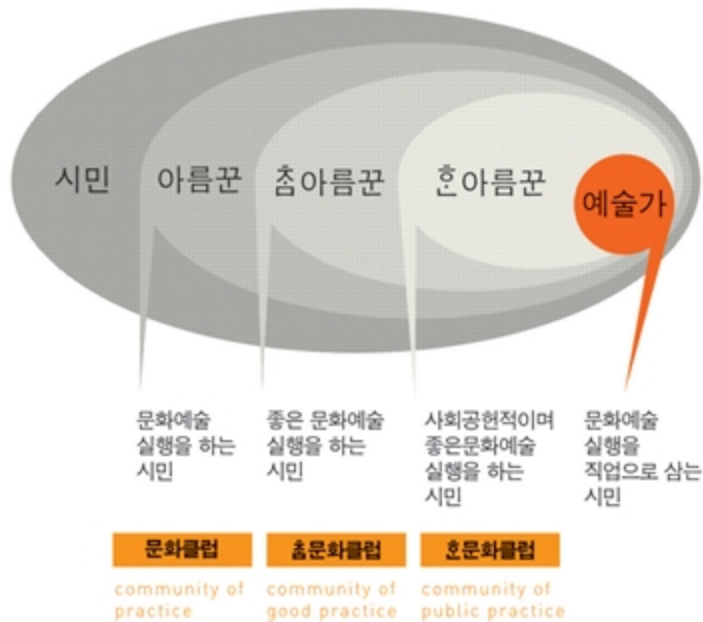
'아름꾼'은 아름다운의 접두어인 '아름'과 '꾼'의 합성어로 문화예술과 함께 삶을 누리는 예술시민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름꾼'에는 기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예술가를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문화적 여가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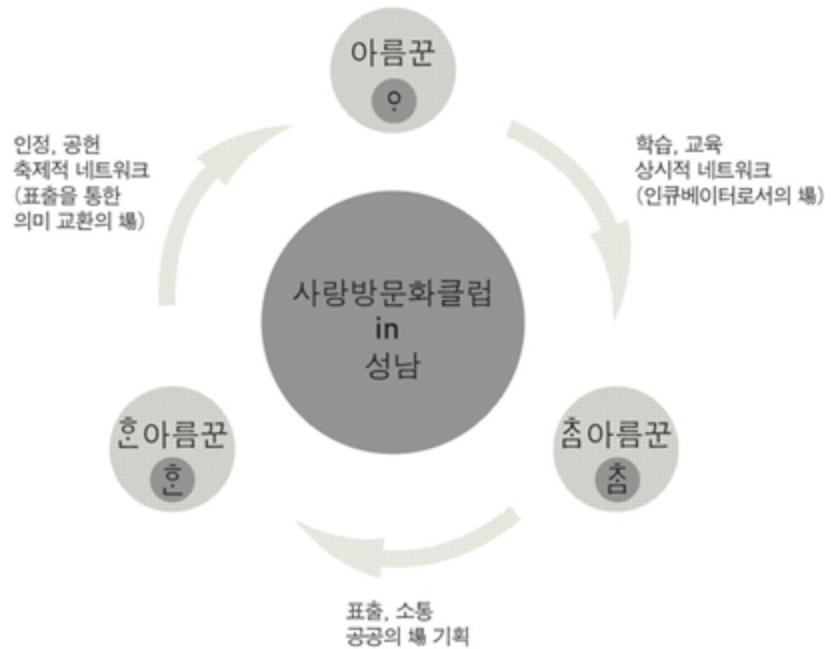
문화클럽, 촌문화클럽, 혼문화클럽

문화클럽은 문화예술적 기예를 갖고 닦는 실행 공동체로서 문화예술적 취미와 관점을 공유하기 위한 실행공동체이다. 촌문화클럽은 기예적으로 뛰어나며 표출행위를 하는 문화예술 실행공동체로 사회 공헌적 문화예술 실행을 시도하는 공동체이다. 혼문화클럽은

실행공동체가 사회 공헌적 활동을 하는 경우 실행공동체들의 본보기, 실행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클럽의 나아갈 바를 함께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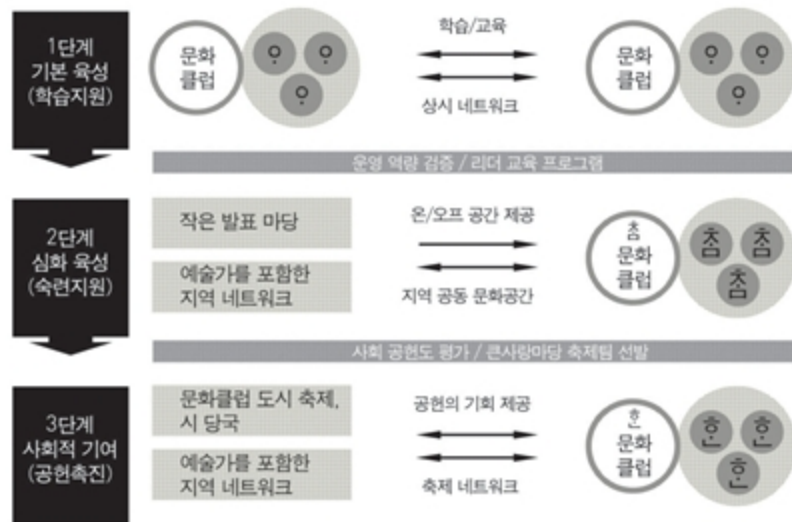
• 아름꾼 성장모형과 문화클럽 성장모형





문화클럽 단계별 발전모형

각각 문화클럽들이 저마다의 수준에서 활동을 촉진하도록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고 각각의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에 동참하도록 지원한다. 이 중에 하나가 2007년 실시된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원프로젝트-공모지원사업이다.



2006년

시민과 성남문화재단의 만남으로 문제인식 및 사업기틀을 마련하고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와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연구'를 수행했다.

2007년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문화클럽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클럽지기 모임 운영위원회를 구

성하여 사랑방문화클럽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를 개최하였다.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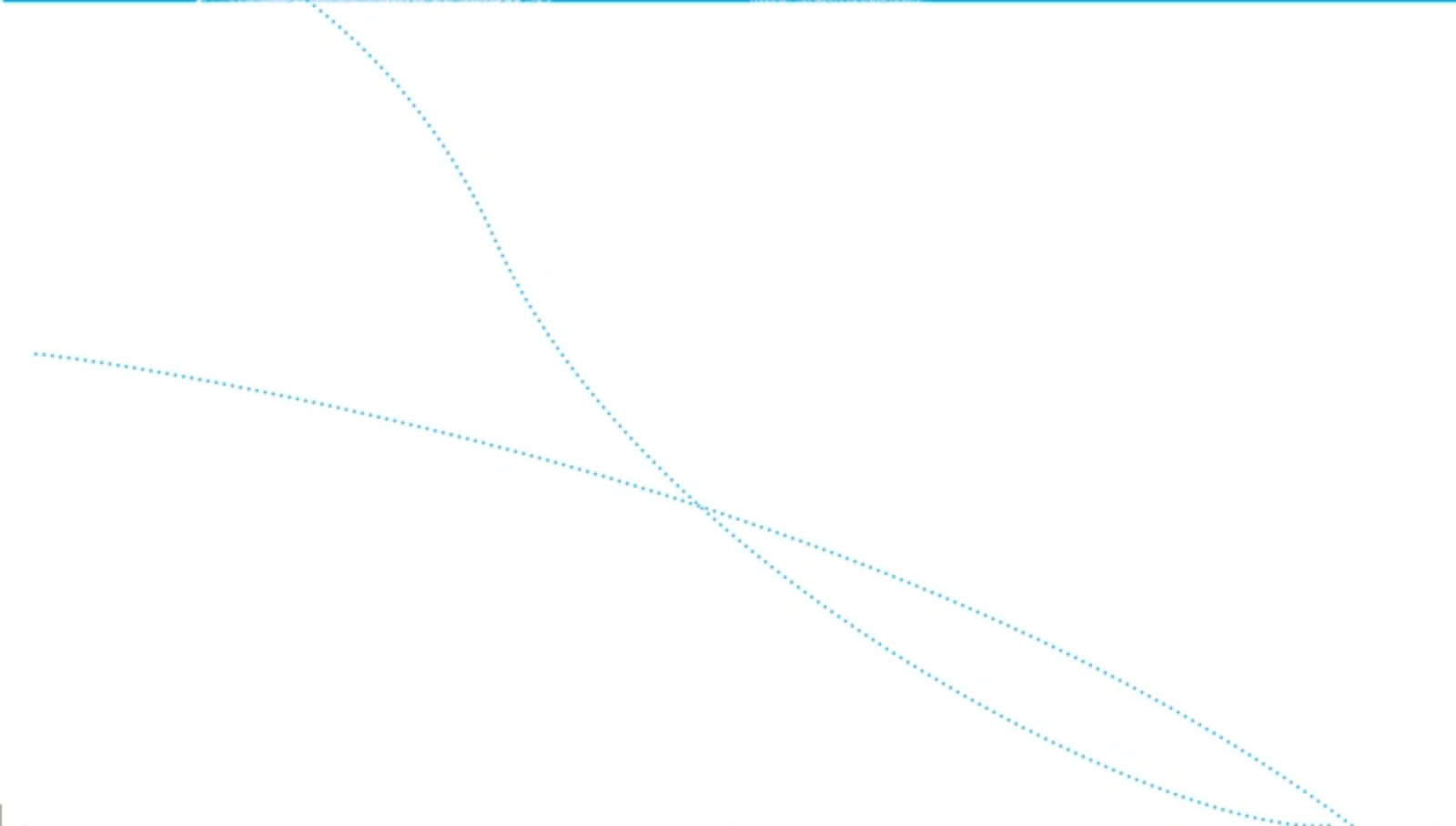
본격적인 사랑방문화클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클럽 스스로의 참여와 운영을 통해 이후 발전단계로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사랑방문화클럽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풍부한 문화예술의 토대를 생성하여 시민 누구나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의 문화적 통합에 기여한다.

사랑방, 사랑마당을 통해 시민들은 친목, 배움, 숙련, 공헌 등 다양한 수위에서 원하는 수준의 창의적 문화예술활동을 펼쳐낼 수 있으며 '문화도시, 성남'의 구현을 즐겁게 주도하게 될 것이다.



사랑방을 찾다

사업 시작부터 사랑방을 찾기까지

본 사업의 정책을 수립한 성남문화재단과 이에 참여한 연구진의 인터뷰를 통해 사랑방문화클럽의 사업 시작, 클럽 조사 과정, 향후 사랑방문화클럽의 발전 가능성을 들어봅니다.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 사랑방문화클럽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부장
박승현



왜 문화예술동호회에 주목했는가

예술은 고대부터 인류가 축적해왔던 가장 높은 정신적 창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 예술과 삶은 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리고, 만들고, 춤추면서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 수평적으로 녹아있었지요.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부터 예술은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은 예술가가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객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술의 질은 높아졌으나 일반시민들은 예술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는 과정을 통해 예술 장르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굿'은 무용, 음악, 연극, 퍼포먼스로 나뉘고 또다시 장르별로 세분화되었지요. 이처럼 전문화, 세분

화된 예술은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던 예술의 '像'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결국 근대에 대한 성찰을 가져오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공동체의 예술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근대 예술의 발전을 한 단계 뛰어넘는 예술이 나아갈 바는 어떤 모습 일까요? 그 지향의 알맹이에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가 축적해온 예술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술은 모두의 것이 되고, 인간의 일상생활을 고양시켜 '인간다운 삶'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술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예술가는 더욱 빛납니다. 예술가는 이제 시민 속에서 탄생하게 되고, 그 예술은 다시 시민의 창조적 역량을 고양시켜내고 삶을 아

름답게 끌어올려 줍니다. 이제 시민 모두가 예술가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시민 누구나 스스로 끊임없이 창조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출발점은 어디일까요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접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동호회라고 봅니다. 왜 문화예술동호회나, 문화예술동호회는 일반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량을 갈고 닦아 예술가로 가기 전의 다양한 모습을 펼치며 무수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공동체 성격을 지닌 새로운 매체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커뮤니티 등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자 또는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탄생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자발적인 문화예술 동호회에 주목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사랑방문화클럽 정책 사업은 시민 중심의 정책 사업입니다. 그간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성남의 클럽인들과 타 도시의 정책 실무자들은 한결같이 '바로 그것이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라고 말합니다. 정책의 집행자나 수혜자, 양쪽 모두 느끼는 갈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 있었던 또는 현재의 정책들 중 많은 부분이 위에서 결정되어 아래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수용하기만 했죠. 하지만 사랑방문화클럽 정책 사업은 다릅니다. 정책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에 서서 함께 활동하고 참여하여 시민 스스

로가 정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녹아있는 정책을 내가 세우고, 그 정책이 나의 삶터에서 실행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내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학자 정 석 교수님이 '도시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 말이 정확히 딱 들어맞는거죠.

'사랑방'이 주는 의미

사랑방문화클럽 정책 사업의 주요 이슈는 '문화예술동호회의 활성화'를 어떻게 정책 사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였습니다. 문화예술동호회는 장르와 지역에 따라 무수히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동호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한 곳에 모인 그들이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교류가 일어나고 서로의 자극

을 주고받는 가운데, 감정이 섞여 함께 융화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섞이고 모이는 형태가 우리나라 전통의 '사랑방'과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랑방'에는 사람과 시, 음악과 풍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현 시대에 걸맞은 사랑방을 다시 재창조해보자고 결심한 뒤 문화예술동호회를 지칭하는 말을 '사랑방문화클럽'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현 시대의 커뮤니티라는 개념과 전통 사랑방의 공간적 의미가 결합되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 스며드는 사랑방문화클럽

현재 클럽 네트워크 사업을 위해 50여개 클럽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에 따르면 현재 무수한 클럽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새로운 클럽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욕심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클럽들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조직적 방식을 시행착오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이 되는 정책을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 방식과 틀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면 100개, 500개, 1000개의 클럽들은 자신의 자발성을 높이면서 상호네트워크를 통해 발전하는 모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네입니다. 문화클럽은 궁극적으로 자

신의 삶터, 즉 동네에서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속한 동네를 거점삼아 도시로, 직장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한편으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평4동 골목길에서, 올해는 은행2동 아파트와 상대원1동 공단에서 문화공동체를 일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와 태평동 주민들이 함께 태평동을 새로운 문화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태평동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조금 더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며 기뻐했습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 속에서 태평동 주민들의 삶에 생기가 도는 모습을 보니 우리 내면에는 삶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잠복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평동의 문화예술 클럽들이 함께 참여했고, 이후 새로운 클럽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를 바로 시민이 예술을 창조하고 삶을 누리는 사랑방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시민들의 자발성은 사랑방문화 클럽을 이끌어가는 에너지

사랑방문화클럽 정책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성남 시민들을 만났는데,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랑방문화클럽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사랑방문화클럽 정책 사업을 펼칠 수 있었으며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성남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숨 어 있 는 사 랑 방 문 화 클 럽 을 찾 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안성아



사랑방문화클럽을 찾아라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를 맡으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야 했습니다. 크게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나뉘어서 찾기 시작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파악되는 커뮤니티는 수월한 편이었지만,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꼭꼭 숨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연령대가 높은 어른들의 커뮤니티와 각종 기관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는 온라인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남 곳곳에 숨어있는 사랑방문화클럽들을 찾기 위해 클럽들이 있을만한 기관들과 접촉했어요.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관공서, 사회봉사단체, 각종 공립사립 문화시설, 아파트, 교회, 성당, 사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각 기관마다 문화예술동호회가 있는지 묻고, 활동이 있는 경우 저희 연

구팀이 방문 또는 전화 드린 후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성남시에 있는 주요 기관 373개에서 운영하는 총 프로그램 수는 1,940개, 총 동호회 수는 1,103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친목클럽, 배움클럽, 숙련클럽, 공헌클럽

사랑방문화클럽들은 배움, 친목, 발표(전시,공연), 클럽간 교류,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희 연구팀에서는 활동성에 따라 사랑방문화클럽을 4가지로 유형화 시켰는데, 이 결과가 친목클럽, 배움클럽, 숙련클럽, 공헌클럽입니다. 친목활동이 주를 이루는 친목클럽, 전문가에게 배우고 정보교류 활동이 주를 이루는 배움클럽, 발표회를 가질 정도의 수준을 갖춘 숙련클럽, 지역사회 기여를

포함해 대외활동이 가장 왕성한 공헌클럽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지요.

이 중 공헌클럽은 특정 지역보다는 성남 또는 성남 이외 지역을 아우르며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클럽들은 클럽 개설 정도도 가장 오래되고, 발표나 사회 기여활동이 많아 아마추어이지만 프로의 기량을 가진 클럽으로 보였습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많은 성남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지속적인 발표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성남시민인데요, 가끔 탄천을 지나가다 누군가의 트럼펫 연주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부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클럽 중 하나였던 것이죠. 트럼펫 소리가 탄천의 여

유로움과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랑방문화클럽 활동하다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보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한 곳 이상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방문화클럽을 찾다가 저도 미술사를 배우는 모임을 알게 되어 어머니까지 모시고 6개월 동안 클럽활동을 했어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매주 미술사를 공부하고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죠. 요즘은 ‘춤’을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분당에서 스윙댄스 동아리 아시면 하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성남이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라는 점이 뿌듯하고 자랑스롭습니다.

창조계급을 양성하는 문화발전소 사랑방문화클럽

한국예술종합학교
협동과정 예술경영과 교수
전수환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문화도시 성남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관 주도로 만들어진 축제나 공연장을 통해 예술향유자를 개발하는 생산 중심의 하향적 문화정책이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문화정책으로 전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은 지난 10년동안 공공 문화정책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술 향유가 그다지 증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에서 생긴 듯 합니다. 그래서 '시민' 주도 중심의 문화 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성남시의 차별화된 문화정책에 크게 공감했고 생활예술을 자발적으로 가꿔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앨빈 토플러가 말한 '프

로슈머(Prosumer)'의 개념이 이제는 문화예술계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본 것이죠.

창조적인 사람들은 유유상종 한다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미래의 창조력은 커뮤니티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KAIST 지식경영연구센터에서 기업 내 자발적으로 학습 및 문제해결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실행공동체 (CoP : Communities of Practice) 들을 연구·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커뮤니티를 지켜보며 자발적 커뮤니티가 갖는 가능성과 힘을 잘 알게 되었지요. 저의 연구 및 이력을 잘 알고 있던 성남문화재단의 박승현 부장님이 도시에서의 문화예술 커뮤니티에 대한 현황 조사를 제안하셨을 때, 저는 조사 결과로 약 삼백여개 정도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어 천 개

가 넘 는 커뮤니티 수가 파악되었고 그 활동수준이 매우 역동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이미 문화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이흐로 문화창조전 시대

창조계급(Creative Class)이란, 카네기 멜론대학 지역경제 개발학 교수인 리처드 플로리다가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에서 명명한 개념으로, 현대사회의 경제적 활동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음악가, 예술가, 과학자, 교사, 디자이너, 건축가 등 지식집약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미국의 경우, 노동인구의 30%가 넘는 4,000만에 달하는 구성원이 창조적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직장 내 수평적인 의사소통, 자유로운 시간관리, 격식 없는 복장,

문화적 여가 활동, 문화개방성, 개인주의적 가치관 등이 이들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사랑방문화클럽을 단순히 문화예술 취미 커뮤니티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창조계급을 양성하는 중요한 문화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문화예술의 향유자로만 제한하지 말고 자발적·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생산자로서 파악해야 하는거죠. 앞으로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고 사회에 기여하는 창조계급들이 모인 곳을 사랑방문화클럽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계급들의 집합체, 사랑방문화클럽은 문화도시 성남을 만드는 땅이며, 공기이자, 햇빛입니다.

누구나 성남을 이야기할 때, '창조계급과 창조공동체'를 떠올리는 문화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성남에는 어딜 가나 **문화클럽의 모임**이 있다네.
그 모임에는 누가 구경꾼이고
누가 주인공이 없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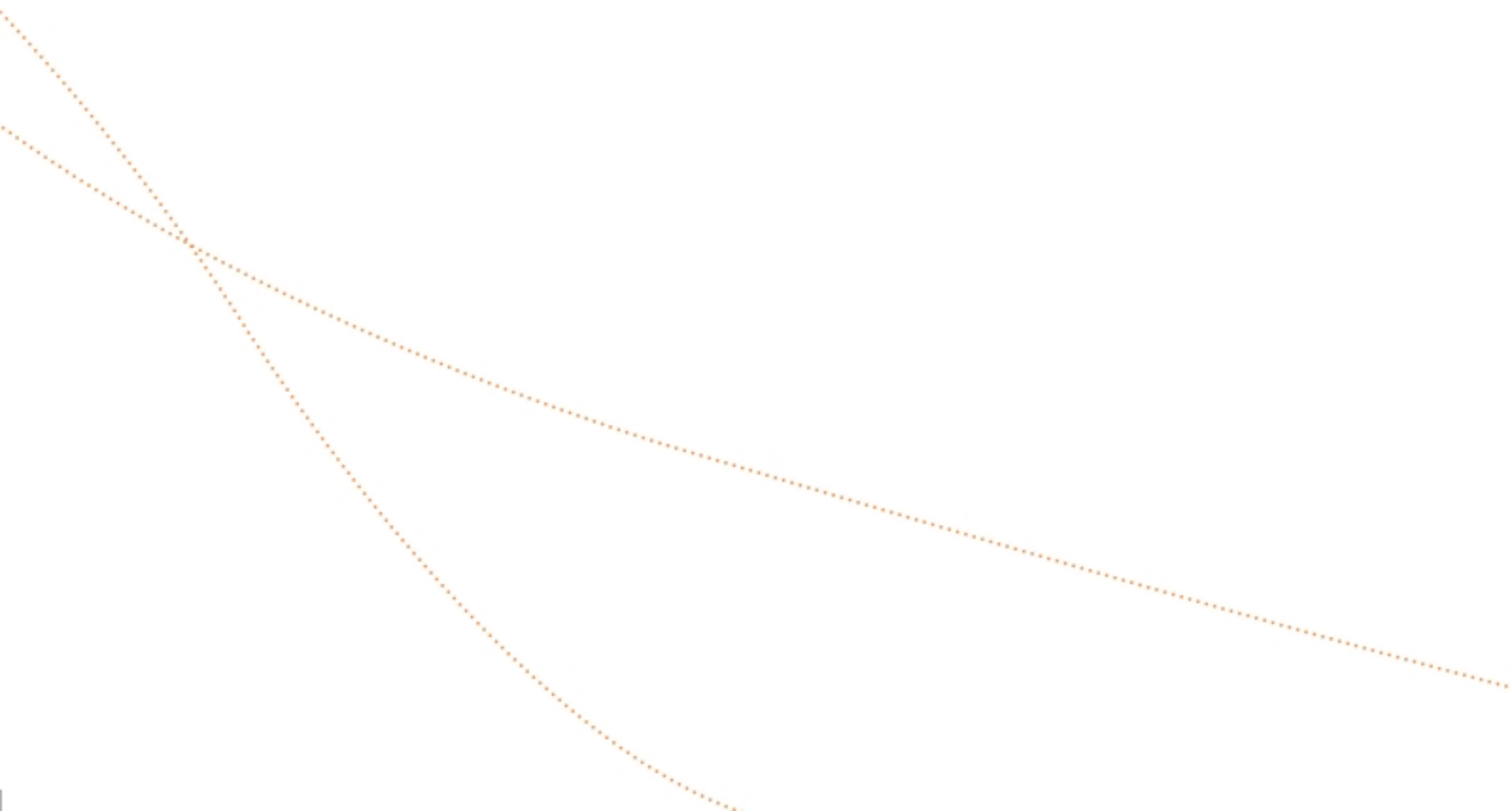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 준다네.



시민들은 100년 후를 노래한다네.
예술 시민의 도시, 성남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창조가들이 탄생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 예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랑방문화클럽이 꽃피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네.



사랑마루에서 모이다

클럽 네트워크 구성부터 기획, 운영까지

사랑방문화클럽의 네트워크 구성부터 운영위원회의 조직
과정과 각종 운영모임,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클럽지기들의 첫 상견례 클럽 파티

Club Party
20070126





5번의 사전모임, 서로에 대한 이해의 발판을 만든다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연구를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던 총 30개 클럽의 리더들(클럽지기)이 모두 모이는 첫 날이다. 2006년 진행된 클럽별 심층인터뷰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장르별로 30개 클럽을 고르게 선정하였다. 하지만, 클럽지기 모임을 준비하면서 성남문화재단 실무진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아무리 파티라지만, 그 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서먹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걱정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2월 한 달 동안 5~6인씩 그룹을 지어 총 5회의 사전모임을 가졌다. 총 5회의 사전모임은 앞으로 펼쳐질 사랑방문화클럽의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동참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또 각 클럽들이 활동하면서 느꼈던 보람,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사전모임 자리에 항상 동석하였는데, 클럽지기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동호회끼리 모여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 자체가 무척 소중한 기회와 경험이라고 입을 모았다.

D-day! Club Party

2007년 1월 26일, 클럽파티가 열리는 컨퍼런스 홀에서는 분당컬트 회원들의 작품이 벽에 전시되었다. 이 날 컬트 작품의 주제는 '우정'이었다. 정갈한 하얀색 벽에 각양각색의 컬트 작품이 전시되니 한층 포근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성남 곳곳에서 능동적인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울 것이다.

성남시, 경기도 관계자와 30개 클럽지기, 클럽인들, 기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럽파티가 시작되었다. 클럽파티는 클럽소개,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 'clubsb.or.kr'의 시연, 참석한 30개 클럽의 활동모습이 담긴 영상 상영으로 이어졌다. 성남 곳곳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각 클럽들의 영상이 상영될 때, 참석한 모든 클럽인들은 숨을 죽이며 화면에 집중했다. 화면을 응시하는 클럽인들의 표정과 눈빛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연 나눔에는 분당색소폰클럽과 성남목관앙상블이 우리 귀에 친숙한 '왈츠', '도라지', '상록수' 등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음악이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렇다고 침묵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연주하는 선율 속에서 문화를 아끼고 즐기는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묻어나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음악이 연주되자 사뭇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웃음과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이 되었다.

파티장 주변에는 '소망 Tree'가 노란 리본을 매고 클럽인들의 메시지를 담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파티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클럽지기과 클럽인들은 사랑방문화클럽의 발전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소망 Tree를 장식해주었다.

저녁식사를 나누면서 각자 소개하고 소감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클럽지기들은 본인이 속해있는 클럽 소개와 더불어 앞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





다. 사랑방문화클럽의 참여한 시민 문화예술동호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임공간과 발표공간문제, 본 시가지와 신 시가지의 화합 등을 차츰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색하여 하나된 성남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모으며 클럽파티는 마무리되었다.

사랑방문화클럽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공감하다

‘사랑방문화클럽 Club Party’는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클럽 교류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아울러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한 여러 클럽들의 소중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발한 활동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문화도시 성남의 미래를 구상하게 한 클럽파티에 참석한 클럽지기과 클럽인들은 사랑방문화클럽 정책사업에 대해 깊게 공감하였으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4월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나오니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었다. 예로부터 밤에 오는 눈은 길조라 했는데, 클럽파티가 열렸던 오늘 저녁에 흰 눈이 내렸으니 앞으로 사랑방문화클럽에 좋은 일이 생길 길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란 쪽지에 담긴 각 클럽들의 메시지.

문화예술동호회를 지원하고 투자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것이 보다 살기좋은 삶의 질을 높이는 성남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성남문화기행 여행꾸러미 박순정

Party는 언제나 즐거움과 흥겨움을 안겨줍니다. 오늘 처음 만나뵙게 된 많은 분들과의 설레는 파티자리로 인해 행복합니다.

분당여성합창단 배은선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해서 좋은 음악과 맛있는 음식으로 기꺼이 대접할 수 있는 튼튼한 나무와 공간으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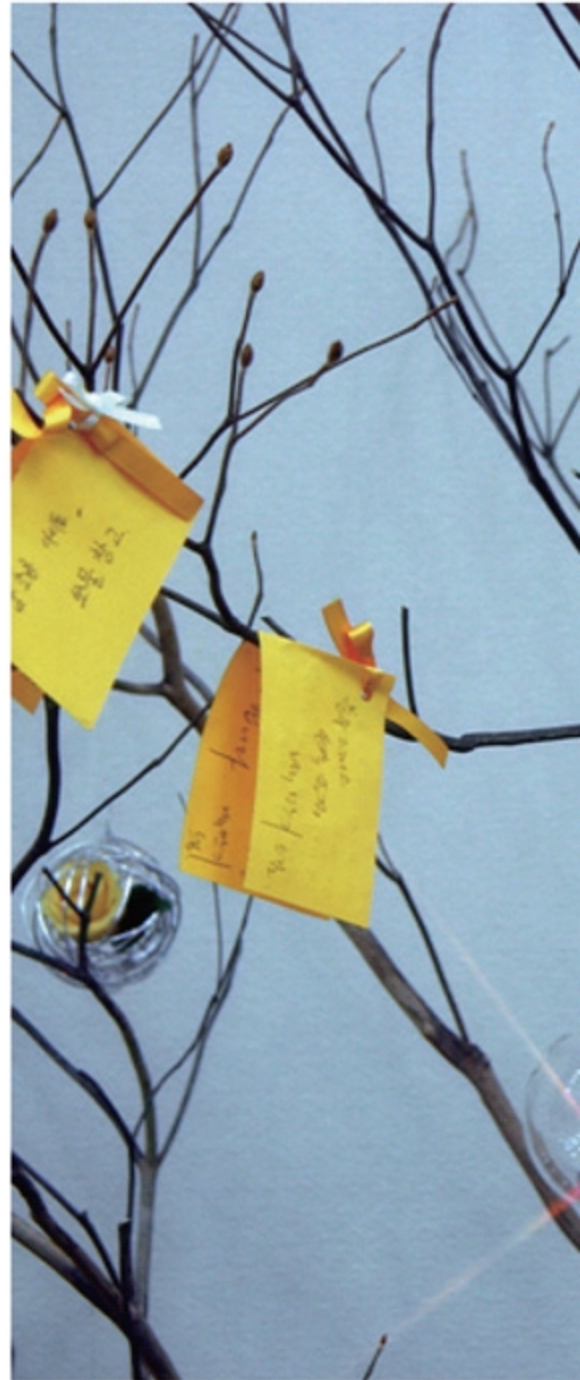
성남목관양상블 김용우

앞으로 여가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여가활동 참여를 시작으로 사회봉사에 이르게 되기까지 기원합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붓나들이 유선숙**

가끔씩 '내가 잘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동화를 통해 세상을 보았을 때 힘이 생겼지요. 동화모임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들을 칭찬해주시는 오늘의 클럽파티가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나누기 위한 저희들의 작은 수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누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 동화 읽는 어른 모임 김주희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과의 만남인 사랑방 문화클럽, 정말 기대가 큼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고 성남 시민들 속에서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남풍물연합 임인출**





사람을 만나는 일은 늘 설레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조만간 성남의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의껏 준비해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도깨비 권재형**

What a beautiful day! 아름다운 사람들의 향기가 마치 꽃처럼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Dream in 분당 PLAZA 허태완

우울증은 열정이 사라졌을 때 걸리는 병입니다. 사랑방문화클럽 덕분에 열정을 품고 살 성남시민들의 우울증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꿈초롱아이들 보물창고 김양미

사랑방문화클럽이 성남지역의 문화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향후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율학습 박병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꿰는 사람들은 더 큰 보배입니다.

알함브라 기타합주단 김종원

|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클 럽 지 기
모 임
창 립 을 위 한
워 크 쉑

제 1차

워크숍

20070502





사랑방문화클럽의 비전을 공유한 첫 여정

2007년 5월 2일, 3차 워크숍을 향한 첫 여정인 1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이어가려면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저녁 7시, 컨퍼런스 홀이 환하게 불빛을 밝혔다. 클럽지기과 클럽인 5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원내용의 논의를 위한 '제 1차 클럽지기 모임 창립을 위한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이 날, 문화나눔 공연으로 아마테이 만돌린챔버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와 닥종이인형 전시가 있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아마테이 만돌린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매우 훌륭하였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만돌린의 음색으로 흘러간 가요를 들으니 오묘한 조화로움이 느껴졌다. 참석한 클럽인들은 모임 때마다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다며 매우 흡족해했다.

문화를 중심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사회

'도시의 문화적 혁신과 창조계급'을 주제로 '사랑방문화클럽 발전 방안연구'을 수행한 전수환 박사의 특강이 있었다.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의 사례를 들어,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터를 쫓아 이동하였다면 이제는 문화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창조도시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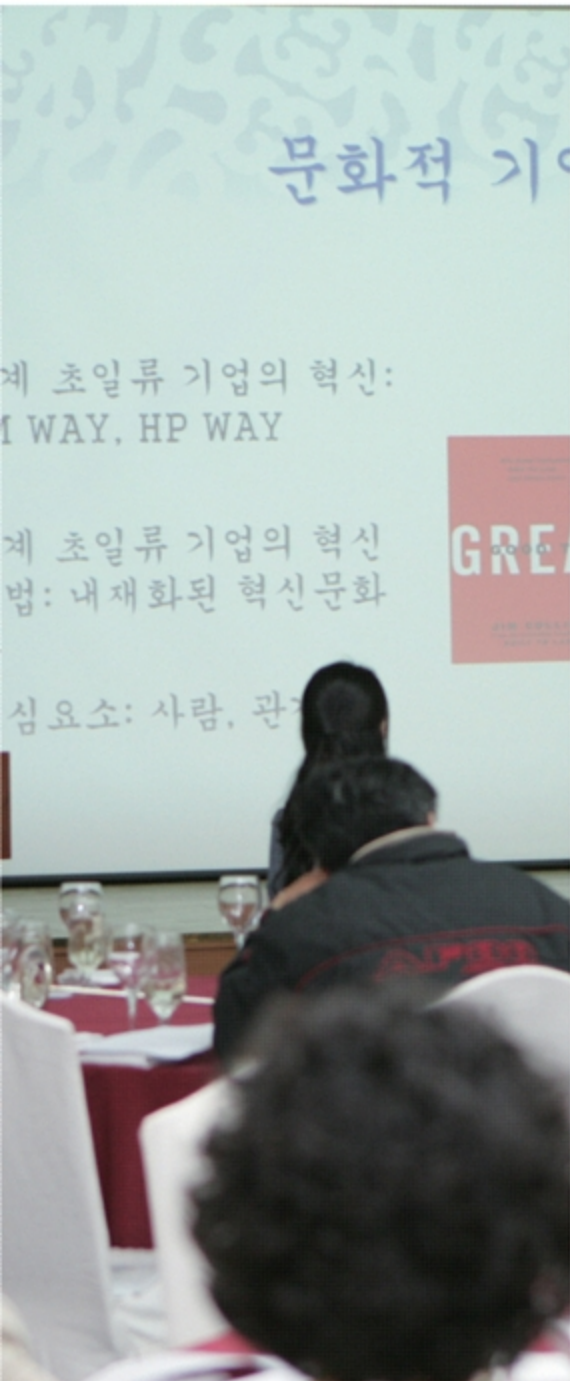
아울러 사랑방문화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을 강조했다. 첫째, 클럽의 오프라인 모임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고 둘째, 필수 불가결의 문제인 클럽지기의 열정적인 헌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성남시 및 성남문화재단이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기반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마당 만들기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클럽지기들의 역할을 무당과 만형, 고수로 비유하였는데 성공적으로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미쳐야 하고(무당), 클럽인들을 넓은 아량으로 품을 수 있는 성품과 책임이 있어야 하며(만형), 무엇보다 실력과 전문성을 갖춰야(고수)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사랑방문화클럽을 구심점으로 클럽들이 결집하여 클럽활동에 힘을 얻고 스스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문화시민의 모임, 문화시민이 모인 '문화도시 성남'으로 발전되어갈 것을 염원하였다.

각 안건을 구체화시키다

특강 후 클럽지기와 클럽인들은 굳은 의지와 열정을 갖고 그룹별 토론에 임했다. 이 날, 안건은 크게 4가지였다. 첫째, 현재까지 속한 클럽의 활동상을 공유하고 타 클럽과 협력 프로그램 만들기. 둘째, 운영위원회의 역할 규정, 운영위원회 구성방법, 운영위원 선출방법. 셋째, 운영위원회 외에 다양한 활동구조와 프로그램 제언. 넷째, 합리적인 지원방식은 무엇인가 였다. 제 1차 워크숍에서는 각 사안들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2, 3차 워크숍을 통해 결과로 도출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향한 첫 발자국을 떼다

1차 워크숍을 마감하면서 일주일 후, 진행될 제 2차 워크숍에 논의될 안건을 다시 되짚어보니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 운영위원회의 역할, 2007년 사업추진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제 1차 클럽지기 모임 창립을 위한 워크숍’은 클럽지기와 클럽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감을 확인한 자리였다.

제 1차 워크숍 중 5조에서 나눴던 이야기 모음

(5조 참여자 : 류혜원 함성 클럽지기, 박순정 여행꾸러미 클럽지기, 민원기 윈드매니아 클럽지기, 김병규 아마데이 만돌린챔버오케스트라 클럽지기, 임인출 성남풍물연합 클럽지기,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클럽의 의견이 반영된 운영원칙

각각의 워크숍 프로그램이나 그 내용 자체를 성남문화재단에서 미리 결정해서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클럽지기끼리 기획 모임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자세에 전폭 지지합니다. 각 클럽들이 주체가 되어 워크숍을 진행하려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워크숍을 통한 운영위원회 구성 방법

운영위원회는 권한만 내세우는 조직이 되면 안 됩니다. 각 클럽들의 경험과 연륜을 잘 모아내고 융합시켜 클럽 간 교류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꾼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의 중요 Keyword, 순수한 열정

현재 클럽들의 역량 및 연륜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클럽 간의 격차를 따지지 말고 서로의 열정을 순수하게 인정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클럽인들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보여지는 무대나 공연도 중요하지만 클럽인들이 스스로 즐기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만큼 큰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클럽인들이 만드는 축제

사랑방클럽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각 도시마다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콘텐츠가 없는 축제가 많은 듯합니다. 축제 내용을 풍성히 만들어 다른 도시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축제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시간대 별로 조화롭게 공연을 배치하고 각 클럽인들이 기획, 자원봉사까지 참여하여 축제의 전체를 모두 만들면 좋겠습니다.





공간으로 교류하는 사랑방

클럽 간 교류행사나 지원방식은 실질적인 예산보다 연습공간, 발표공간 또는 공연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이나 실제 필요한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습공간이나 전문 강사가 부족해서 고민이 많은데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발표공간이 확보된다면 클럽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클럽이 직접 정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의 운영원칙

제 2차
워크숍
20070509





하나되기 위한 두 번째 진통

제 1차 워크숍이 있었던 일주일 후, 같은 자리에서 제 2차 워크숍이 열렸다. 제 2차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클럽지기와 클럽인들을 총 7조로 편성하여 토론을 거쳐 논의된 결과를 조별 발표하기로 했다.

토론에 앞서 해동문인협회 회원인 송포 김정수 님이 사랑방문화클럽을 위해 직접 지은 '가자 탄천으로'라는 시 낭독이 있었다. 탄천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옛 모습을 그린 후, 자연으로서의 탄천이 성남시민들에게 주는 의미를 되짚고 탄천을 중심으로 모두 모여 하나가 되자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제 2차 워크숍에서 클럽지기와 클럽인 모두 사랑방문화클럽의 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 구성방법, 운영위원회의 역할, 클럽 간 협력 프로그램, 클럽활동 지원 방식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다.

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는 무엇인가

운영규정은 클럽지기 모임의 행동 규약의 개념으로 클럽지기의 정의와 운영원칙,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있다. 운영위원회는 클럽지기 모임의 의결을 위임받은 기구로서 성남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실행하는 조직이다. 클럽지기 모임은 문화예술 클럽 간의 친목 도모, 정보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의 공

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고 개별 클럽의 활성화와 상호 네트워크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어느 개인이나 정당 등의 특정 단체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운영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사랑방문화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 운영, 심사,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클럽 스스로 정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원칙

안건별로 조별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원칙과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이었는데, 운영원칙의 '클럽지기'라는 명칭에 대해 의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클럽지기가 클럽의 대표성을 가진 임원 혹은 대표, 또는 강사인지를 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순수 아마추어'를 기본 근간으로 명시했는데 클럽인들 스스로가 아마추어로 한계를 지을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아마추어라는 단어를 배제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운영원칙 속에 운영위원회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운영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나눔에 대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운영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장르 등을 고려해 고르게 선출되어야 하고, 선출되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했다.

운영위원장은 조별로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며칠 후에 있을 제 3차 워크숍을 통해 추천된 후보





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무기명 투표로 정하자는데 합의했다.
 둘째, 클럽 간 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안건은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 클럽끼리 어떻게 협력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사안이었다. 여러 조에서 클럽 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르를 넘나드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정기적인 모임 또는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전시, 공연공간의 확보, 네트워크의 구성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클럽들을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진다면 향후에 얼마든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셋째, 클럽활동 지원방식에 관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07년 6월부터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이 실행하게 되는데 실제 지원이 시작되기 전인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지원방식이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각 조의 토론결과는 앞으로 시행될 공모지원사업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공모지원사업의 평가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성남문화재단은 개별클럽들끼리 연계하는 활동을 우선시하며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의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5월 12일에 마련된 제 3차 워크숍에서 운영규정 확정 및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하며 제 2차 워크숍이 끝났다. 앞으로 3일 후, 보다 많은, 보다 넓은 곳에 사랑방문화클럽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들이 선출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꾼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모

|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든 사랑방문화클럽들은 노력할 것이다. 이런 진지한 논의가 오가는 사이 봄꽃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5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제 2차 워크숍을 통해 결정된 운영위원회 구성방식

1. 운영위원장을 제 3차 워크숍(5월 12일)에서 뽑는다.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 전화, 메일 등을 통해 12일 오후 12시까지 후보추천을 받고,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후보들의 비전과 운영방향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공감하는 후보로 의견을 모아 위원장을 추대하거나, 경합이 될 경우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에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의 선정은 각 조별(총 7개조)로 2명씩의 운영위원 후보에 대한 의견을 모아 공개하지 않고 12일 오후 5시 전까지 새로이 선출된 운영위원장에게 개별 전달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후보의 명단(총 14명)을 받아 5월 15일까지 장르,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안배하여 2명의 부위원장과 6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조별 추천 후보를 최대한 존중하되 운영위원 구성 시 적절한 안배가 도저히 어려울 경우 조별 추천후보 외의 클럽인도 운영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5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운영위원을 소집하고 '클럽지기 모임 창립대회(5월 18일 19시 컨퍼런스홀)' 준비를 점검한다.

4.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에 대한 최종 승인은 5월 18일 클럽지기 모임 창립대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자 탄천으로

作 송포 김정수

오리는 돌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방망이 두드리다 보면 순이는 아이 업고
영이는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온다

웅성거리는 다리 위에서 새가 노래한다
하늘에서 본 무대의 조명은 달을 비추고
고깔 쓴 여인의 살풀이는 안개를 거두고
빨랫줄에 걸린 걸개의 詩가 바람을 가르다

우리는 여름 햇볕에 열망을 짜내고 싶다
뜨거운 진물이 나올 때까지

아이 손 잡고 빨래터로 가자
둥둥 북소리 모란까지 들리거든
몸을 가지처럼 구부려 혼을 부르거든



|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문화 예술이
꽃 피우는
성남이 되기
위한 준비 완료

제 3차
워크숍
20070512





야외로 옮긴 사랑방

토요일 오전, 하늘은 어두웠다. 전날까지 어김없이 ‘토요일은 비’라는 기상예보에 워크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하늘도 이런 염려를 알아챘는지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어느샌가 수그러들었다.

오늘 제 3차 워크숍은 자연 속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되었다. 판교 운중동 저수지 옆에 위치한 한국학중앙연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세미나실과 야외활동이 가능한 터가 있어 워크숍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신록이 짙어가는 5월, 삭막한 도시에서 바쁘게 살았던 클럽인과 관계자 모두, 새소리와 풀내음이 가득한 곳에 도착하니 ‘아, 좋다’라는 감탄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오늘은 운영규정 정하는 날

1, 2차 워크숍을 거치는 동안, 토론했던 의견을 모아서 정리된 운영규정(안)의 최종적인 토의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성남아트센터 안에서 열렸던 토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자연으로 자리를 옮겨서인지 자유로운 클럽인들의 모습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운영규정은 박승현 부장이 일어나가면서 의견을 받아 수렴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수정된 조항들은 클럽지기라는 용어에 관한 규정, 혼용되고 있는 문화클럽과 문화예술클럽의 용어 통일, 각 클럽당 대표 1인만이 위원장 선

출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 운영위원은 추대된 운영위원장 1인과 위원장이 선정한 클럽대표 2인이 성남문화재단 측과 논의하여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긴박하고 치열했던 운영위원장 선출과정

점심 도시락을 맛있게 먹은 뒤, 추천된 8명의 후보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운영위원장 선출에 들어갔다. 각각 추천된 8명의 위원은 아마데이 만들린첸버오케스트라의 김병규 대표, 블루그래스, 블루마운틴보이스의 백만기 대표, 주부풍물패 두령의 김상규 총감독, 로스아미고스의 박종대 대표, 풍물굿패 우리마당의 곽윤부 대표, 산도깨비의 권재형 대표, 분당퀼트의 김미화 대표, 해동문인협회의 우병택 대표이다. 각 추천된 대표들의 정견 발표와 왜 추천하였는지에 대한 추천자의 의견을 들은 후, 운영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여기서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오후에 무기명 투표를하기로 결정했다.

추천자의 추천사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추천사가 끝난 후, 후보자들은 클럽을 만들거나 들어오게 된 계기, 지금까지 클럽에서 활동한 이야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앞으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에 임하는 자세 등에 관련하여 정견 발표를 했다. 각 후보자들은 정견 발표를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저에겐 운영위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전문위원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등 스스로 본인의 소신대로 사랑방문화클럽에 임할 수 있는 직책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타 후보자를 추천하며 운영위원장 직책을 고사하는 후보자도 있었다.





참여한 클럽인들은 '운영위원장은 사랑방문화클럽의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고 다수의 클럽을 전체로 아울러 이끌어가야 하는 직책이니만큼 사랑방문화클럽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고 꾸준히 클럽 활동을 한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가는 논의 속에 서서히 운영위원장의 윤곽이 들어났다. 각 장르를 고르게 이해하고 여러 클럽활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 백만기 대표와 시행착오를 감수해 나갈 수 있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중간 나이인 권재형 대표가 최종까지 경합을 벌였다. 그 가운데 다수의 추천과 권재형 대표의 추천까지 더해져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기 모임 운영위원장에 백만기 대표가 선출되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백만기 대표는 알랭의 '행복론'을 빗대어 당선소감을 밝혔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새벽부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비가 오냐'하고 불평한다 해도 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대처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클럽이 모여 활동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힘들 때 '왜 우리 클럽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또는 '왜 우리 클럽의 의견대로 개선되지 않나'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힘을 합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새롭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귀를 많이 기울이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클럽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여 클럽들을 위한 '場'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오니까 참 좋죠? 반갑습니다.”

자연과 함께 동화되다

이제 야외활동 시간이다. 문화나누기 공연으로 준비된 윈드매니아 남성 6인의 색소폰 소리가 풀밭 사이로 울려 퍼졌다. 자연과 어우러진 색소폰 연주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나와서 모두 함께 색소폰 연주를 즐겼다. 이어 산도깨비의 사자탈춤 공연이 있었다. 아이들의 탈춤공연은 어른들의 공연에 버금갈 정도로 훌륭했다. 흥겨운 탈춤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

다음은 분당포크댄스의 공연이 있었는데, 손을 하늘로 향해 들고 일렬로 늘어서서 사뽀사뽀 건듯이 리듬을 타는 가벼운 발동작은 싱그러운 느낌을 주었다. 참여한 클럽인들이 모두 춤을 추려고 하던 찰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가 우리들을 막을쏘냐, 미리 준비된 천막 안으로 들어가 함께 춤을 추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댄스하던 포크댄스가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 간 듯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풍물클럽들이 분위기를 돋우며 '대동놀이'가 시작되었다. 이제 비는 더 이상 우리의 화합 한마당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흥겨운 장단이 울리고 하얗게 늘어진 긴 천에 사랑방문화클럽의 발전을 염원하는 글을 함께 써내려갔다. 소망이 담긴 천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 하얀 길이 되었다. 흰 천에 담긴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힘을 합해 천 위에 사람을 태워 옮기기로 했다.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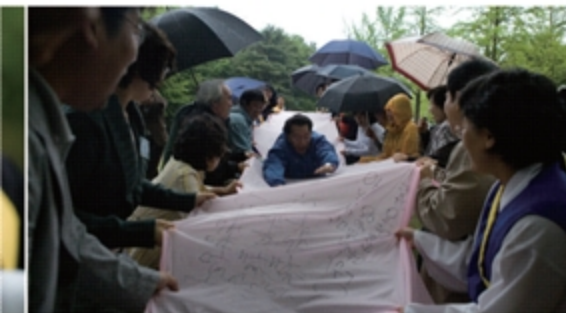


는 박승현 부장이 첫 번째로, 김환실씨가 두 번째로 천 위로 뛰어 올랐다. 뒤를 이어 분당켈트 김미화 대표 등 클럽인들이 천 위에서 나는 점프로 옮겨지면서 신명나는 놀이판이 벌어졌다.

바비큐 통에서 통돼지가 익어가고 막걸리 사발은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돌아다닌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비가와도 더할 나위없이 즐거웠다. 어둑어둑 밤이 내려오는 시간까지 사람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어둠이 덮여가는 숲 속 사랑방에 모여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다. 조선시대 우리의 선조들이 자연에서 시를 읊고 창을 들으며 춤추는 모습이 눈 앞에 어른거리는 듯하다.

21세기 사랑방의 부활을 축하하며,
Cheers!



제 3차 워크숍에서 결정된 운영규정의 중요사항

'클럽지기'의 정의

클럽지기란 사랑방 문화클럽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클럽지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남시 문화예술 클럽의 상호발전을 위해 연계하는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에 주축이 되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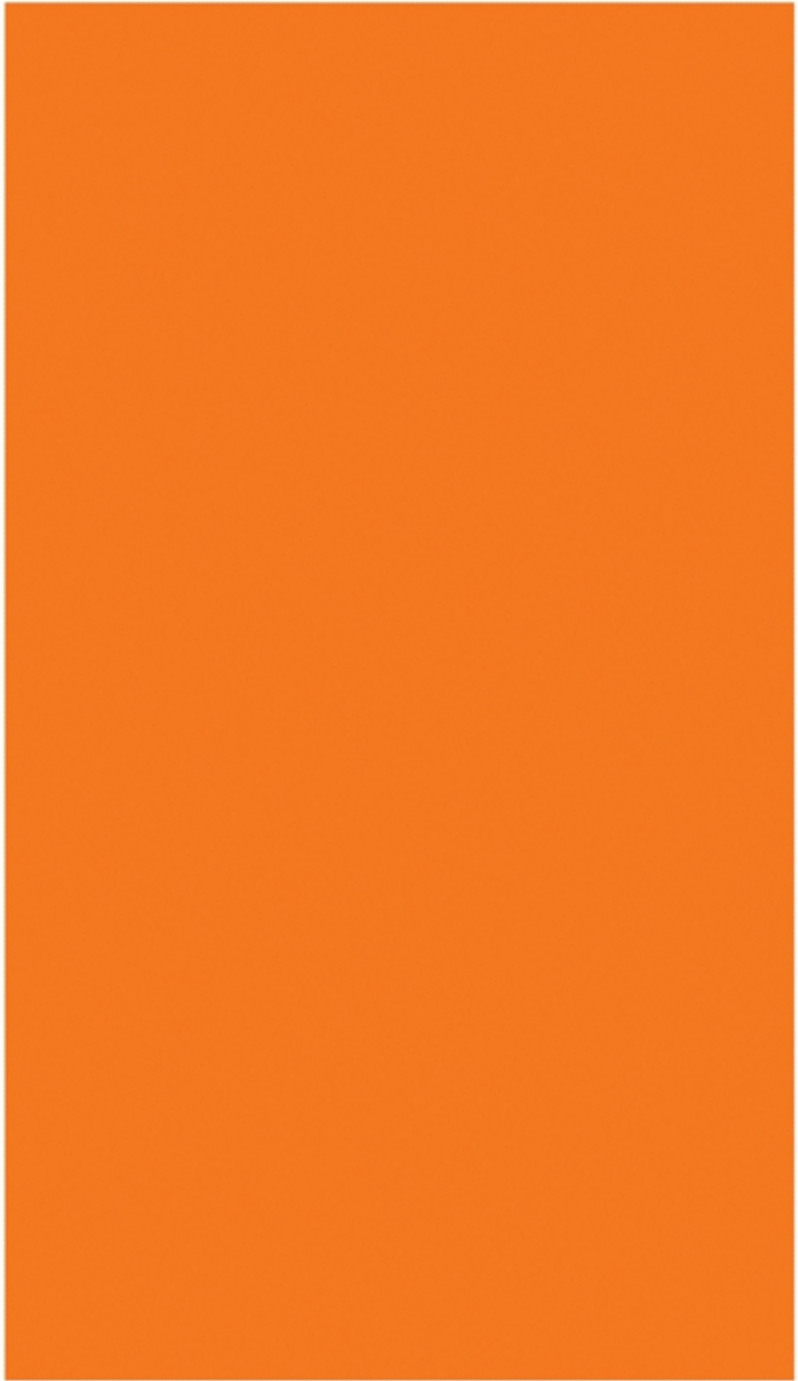
정기 총회

매년 3월을 전후로 하여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총회에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까지 한다.

회의공개 원칙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운영위원장의 서명 후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공개하며, 가급적 모든 회의는 회의주재자가 서명 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S T A R T !
클럽지기
모임
창립대회

20070518





나와 우리를 칭찬하는 자리, 클럽지기 모임 창립대회

서로 다르게 살아온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큰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은 언제나 새로움과 긴장감을 준다. 모인 사람들의 뜻이 더해지고 조율되어 마지막 합의점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은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드디어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기 모임 창립대회' 날이다. 3차의 진통을 겪으면서 운영규정이 결정되었고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참여한 클럽들이 스스로 운영규정을 정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클럽지기 모임 창립대회는 클럽지기 모임 창립을 위한 경과보고로 시작되었다. 1월의 클럽 파티를 시작하여 5월의 창립대회까지 바쁘게 뛰어온 과정을 보며 실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나는 흔히 재단이 가질 수 있는 관료적 성격을 철저히 배제하고 클럽들을 스스로 응집시킨 성남문화재단의 허브 역할에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냈다.



경과보고에 이어 클럽들의 활동모습을 담은 영상 상영 시간을 가졌다. 1월부터 함께 한 30여개 클럽의 활동모습이 담긴 영상은 무척 감동적이었다. 말로만 듣던 각 클럽의 활동을 짧게나마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인지 화면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뽑은 우리들의 일꾼,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영상 상영이 끝난 후, 3차에 걸친 워크숍에서 정한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기 모임 운영규정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며 클럽지기 모임의 정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의 소개가 있었다. 운영위원회 소개가 시작되자 장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클럽지기 모임 운영위원회는 1명의 운영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 6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클럽의 장르와 지역, 성별, 연령까지 고르게 구성되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 없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참석한 클럽인들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인사말이 끝날 때마다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클럽인들 모두가 '운영위원회와 함께 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뜨거운 박수에 담아 대신 말하는 듯 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본 문화도시 성남의 미래

클럽지기 모임 창립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산도깨비의 아이들과 로스아미고스 기타 합주단의 공연이 있었다. 산도깨비 아이들이 해금과 거문고, 아쟁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성남의 미래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장차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남 곳곳의 문화예술을 위해 활동하고, 삶을 풍요롭게 가꿔가는 어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샘솟았다.

연간 30회 이상의 공연을 하는 로스아미고스 기타합주단의 연주가 이어졌다. 로스아미고스(Los Amigos)는 스페인어로 '친구들'이라는 뜻인데, 마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클럽 한 사람, 한 사람이 친구로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이어서 프로 연주팀인 아모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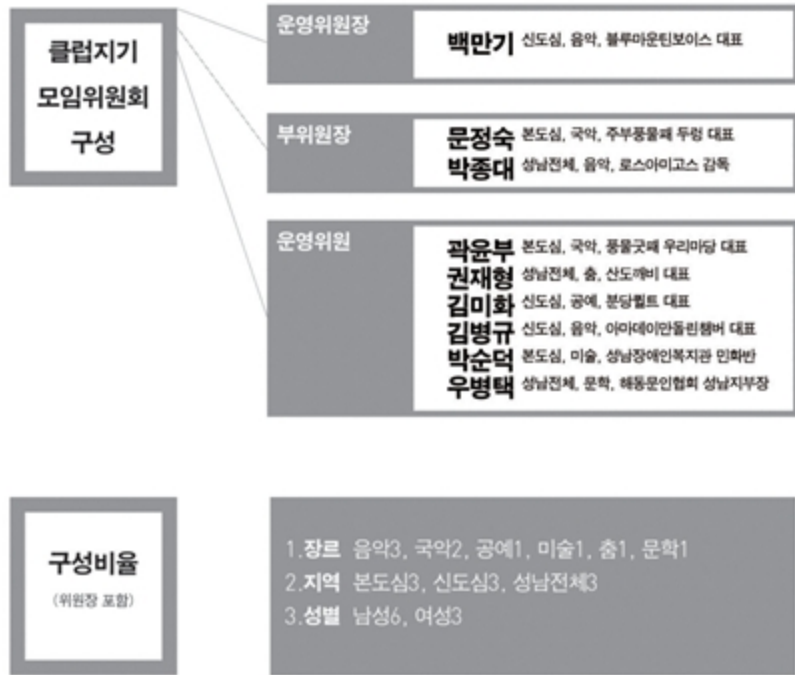




리오의 연주가 있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 무대에 함께 공연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일 것이라고 감히 단언해본다.

출항준비를 끝낸 사랑방 호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한다. 여러 번의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클럽인들은 이미 한 식구였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한 배를 탄 동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방호의 출항준비는 끝났다. 앞으로 우리에게 전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운영위원회는 전체를 조망할 줄 알아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사랑방문화클럽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방문화클럽 정책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클럽인들의 순수한 자치조직, 운영위원회

클럽지기 모임에서 여러 차례의 나온 이야기인데요, 운영위원회가 무수한 장르의 클럽들을 대변할 수 있으려면 운영위원들이 여러 분야와 장르에서 고르게 선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죠. 그런데, 운영위원장 후보자를 모두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더니 딱 들어맞듯이, 지역, 연령, 분야, 성별 등이 고르게 구성되었어요. 참 신기하더군요.

적절한 내 자리를 스스로 찾은 운영위원들

지금은 함께 활동한 시간이 많아서 운영위원들끼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서로 잘 파악하고 있지만, 처음 운영위원회가 조직된 2007년 5월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역시 클럽지기들이라 다르더군요. 선출된 운영위원들 모두 리더십이 있었고 자신이 어떤 분야와 일에 잘 어울리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부터 스스로 각자 자리를 잡아나갔지요.

2007년, 운영위원회가 한 일

2007년 클럽지기 운영위원회가 해낸 가장 큰 일은 10월의 사랑방클럽축제를 만든 것입니다. 축제를 열면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숭선수범하는 여러 클럽들과 살신성인해 준 운영위원들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어요. 또, 운영위원회는 클럽들의 크고 작은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격려하고 지역 내 문화사랑방으로 적당한 공간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랑방문화클럽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이는 동호회마



클럽지기 모임
운영위원장
백만기
인터뷰



다 사랑방문화클럽의 가입을 소개하기도 했죠. 다음 총회가 있을 내년 3월 전까지 매월 열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랑방문화클럽의 2008년도를 함께 준비할 것입니다.

시민 중심 정책사업의 중요한 열쇠, 사랑방문화클럽

저는 사랑방문화클럽이 성남에 사는 시민들의 애乡심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직접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참여하게 되고, '내가 참여한 사업인데 당연히 성공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 물심양면으로 돕게 되지요, 이처럼 사랑방문화클럽은 시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성남의 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클럽지기 모임 운영위원회
2007년 이렇게 움직였다

|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운 영 위 원 회 이 령 계 움 직 이 다

200705
~ 200710





200705

22일

제 1차 클럽지기 운영위원회. 클럽지기 모임이 창립된 후 열린 첫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으며 사랑방문화클럽 공모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다.

200706

4일

제 2차 클럽지기 운영위원회. 사랑방문화클럽 로고, 2007년 하반기에 예정인 사랑방클럽축제, 공모지원 사업 내용을 협의하다.

26일

제 3차 클럽지기 운영위원회. 사랑방문화클럽 로고를 확정하고 공모지원 사업 결과를 공유하다. 8월에 열릴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의 준비를 위해 현재 클럽지기 운영위원회를 클럽축제 추진위원회로 임시 운영하기로 하다.



200707

2일

제 1차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사랑방클럽축제 추진위원회 체계 및 구성에 대해 논의하다.

5일

제 2차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사랑방클럽축제의 방향과 공연, 전시, 체험 일정을 조율하고 홍보계획을 논의하다

10일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워크숍

2007년 7월 10일(화) 저녁 7시부터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기 모임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0여개 클럽지기들이 모여 '사랑방클럽축제'의 구체적인 가시화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은 다양한 사랑방문화클럽들이 녹아있는 시민축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공식적인 첫 자리이다.

사랑방 클럽축제를 위해 '클럽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운영위원들은 기획에서부터 홍보, 협찬까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축제준비에 한창이었다. 클럽지기 운영위원장 겸 클럽축제 추진위원장인 백만기 위원장은 '좋은 누가 올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어 '오늘 이 자리는 모두의 종을 올리는 시작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면서 성남에서 활동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다.

바쁘게 달려온 사랑방문화클럽

성남6mm와 줌인세상이 마련한 사랑방문화클럽의 행적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자 클럽인들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회상하며 즐거워했다. 1월의 클럽파티, 4월 공모지원사업 공개설명회, 5월 클럽지기 모임 창립을 위한 1, 2, 3차 워크숍 및 운영위원회 결성, 클럽지기 모임 창립대회 등 지난 1월부터 숨차게 달려온 사랑방문화클럽의 모습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상영회에 이어 '블루그래스음악클럽'의 포크송 공연이 있었다.





블루그래스음악클럽의 김준섭 대표는 사랑방클럽 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신나고 생기발랄한 포크하모니를 선사했다.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하는 사랑방클럽축제

성공적인 사랑방클럽축제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각 장르별 일정 및 기획팀을 구성한 뒤, 축제무대의 진행에 대해 전체적인 틀을 잡았다. 논의된 내용을 취합하여 각 장르별 행사 일정을 조율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공연부문 박종대 부위원장, 전시부문 박순덕 운영위원, 체험부문 권재형 운영위원이 예술감독을 맡아 진행하고, 울동공원에서 펼쳐질 축제 마지막 날의 피날레는 연합풍물단체 대동제로 장식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나 되는 축제로 기획했다.

16일

제 3차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사랑방 클럽축제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다.

24일

제 4차 클럽지기 운영위원회, 사랑방클럽축제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하다. 사무국을 가동하고 사랑방클럽축제 행사 기획안, 홍보안, 후원 조직, 향후 일정에 대해 점검하다.

27일

제 1차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기획모임. 사무국장 상근실시하다. 사랑방클럽축제 점검하다.

31일

제 2차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기획모임. 사랑방클럽축제 최종점검에 들어간다.

200708

7일

제 3차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기획모임 및 제 5차 운영위원회. 탈레반 한국인피랍사건에 따른 클럽축제 연기를 결정하다.

9일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기획팀과 시청 주무국장과의 미팅. 클럽축제 연기에 따라 향후 협력방안을 재논의하다

13일

제 4차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기획모임. 사랑방클럽축제 일정 확정하다. (10월 11일~13일 성남아트센터, 14일 율동공원) 축제 연기에 따른 클럽지기 모임을 소집하기로 하다.

18일

클럽축제 연기에 따른 클럽지기 모임. 27개 클럽지기들이 율동공원에 모여 10월에 있을 사랑방클럽축제 일정을 공유하다.





28일

제 6차 클럽지기 운영위원회. 10월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진행방향 및 프로그램 논의하다.

200709

3일

제 5차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기획모임. 축제추진위원회 기획실장으로 원도희 분당색소폰 총무를 위촉하다. 공연, 전시, 체험에 참여하는 클럽을 재정비하다

10일

제 6차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기획모임. 클럽주간 사랑방문화클럽 행사계획 최종 확정하다.



200710

2일

제 7차 클럽지기 운영위원회.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준비 경과보고 및 홍보계획 점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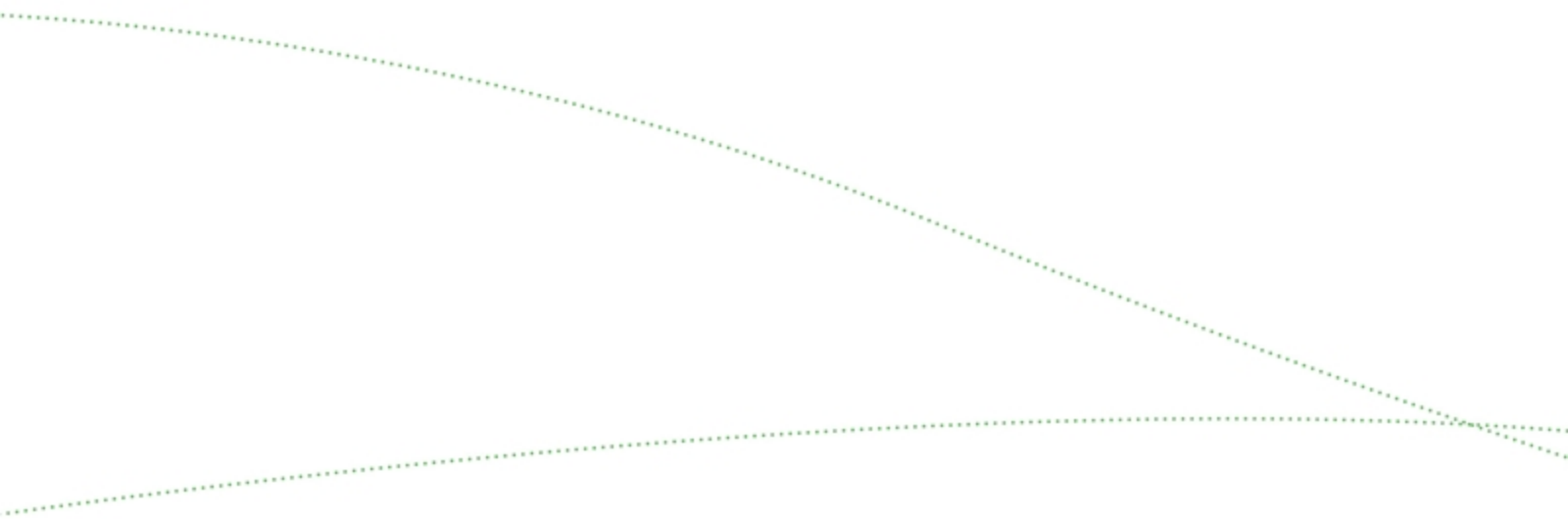
9일

제 7차 클럽지기 추진위원회 기획모임.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준비 경과보고 및 최종 점검에 들어가다.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평가모임 일정을 확정하다.

11일~14일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시민의 축제 열리다





사랑마당에서 놀다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를 펼치며

2007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10월 11일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OPENING

OPENING

비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쾌청하다. 빛의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빨간 원을 중심으로 꽃이 만발한 사랑방클럽축제 포스터가 중간 중간 눈에 띈다. 클럽축제라... 어떤 광경들이 펼쳐지고 어떤 기억들이 남을까? 빨리 올라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빛의 계단을 올라가니 오픈식이 열릴 사무동 광장이 나왔다. 정면에는 사랑방클럽축제를 알리는 전면 현수막과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뮤즈홀 앞에는 다과준비가 한창이다. 일찍 온 시민들은 야외 갤러리로 변모한 사무동 앞 광장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었다. 사무동 앞 광

장은 긴장감과 설레임이 감돌았다. 전날 새벽까지 전시작품 설치를 위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운영위원들과 클럽인들에게 피곤한 기색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축제의 3 part-전시, 체험, 공연

사랑방문화클럽 축제는 전시, 체험, 공연분야로 나뉜다. 전시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졌으며 작품성격에 따라 실내와 실외전시로 이루어졌다. 실내전시는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실외전시는 사무동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 실외전시에는 동일한 규격의 외벽을 세워 수채화와 서예 작품 등의 그림을 걸어 길에 만





들어진 야외갤러리의 느낌을 물씬 자아냈다. 콘서트홀로 올라가는 관람객의 발길을 잡기에 작품이 다양하고 수준이 높았다. 실외 전시에 참여한 클럽은 성남누드크로키,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장애인 민화반), 수람회, 분당중앙수채화, 전통문화를 찾는 사람들(성남서예청년작가회), 필카동호회 빛누리과 성남분당 디카사진동호회 줌인세상이다. 전시기간 중 관람 온 일반 시민이 전시작품을 구매하기도 하여 직접적인 예술장터가 되기도 했다.

몇몇의 작품에서 성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탄천변의 사진, 성남의 풍경을 담은 수채화에서 클럽회원들이 성남에 갖고

있는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실내 전시는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분당퀼트, 닥종이 인형, 한지공예, 한지마을, 규방공예, 늘푸른꽃누르미 클럽 회원들의 작품으로 홀 안이 훌륭하게 꾸며졌다. 홀 중앙에 한지마을에서 만든 각종 한지함과 장식장이 전시되었고, 벽에는 퀼트, 꽃누르미, 규방공예 작품이 일렬로 전시되었다. 사진세례를 제일 많이 받은 작품은 닥종이 공예 전시였는데, 사실적인 표정과 다채로운 현장을 담아낸 작은 닥종이 인형들은 보는 재미와 함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관람객들은 전시작품을 보면서 “세상에..시



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클럽지기 와 클럽인들은 본인이 만든 작품 설명과 더불어 제작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의 관람객은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본 후, “나도 만들어봐야지”라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창작과 소통이 공존하는 공간, 사랑방문화클럽

얼마 전 모 대기업은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것’이라는 카피를 앞세워 유명 명화들 안에 기업 CI를 배치한 광고를 선보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일상과 예술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일상 속의 예술, 생활 속의 예

| 사랑방, 21세기 새롭게 태어나다





술'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요즘, 말 그대로 일상 속에 예술이 스며들어 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일상 속에서 창작하는 기쁨과 그 창작품을 매개체로 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중요 키워드는 '창작'과 '소통'이다. 창작의 기쁨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며 내 삶이 풍요로워져야 예술의 생활화가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사랑방문화클럽의 전시장 곳곳에서는 내가 '창작'한 작품을 매개체로, 클럽인과 관람객이 서로 '소통'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200여명이 참석한 OPEN 행사

클럽지기와 클럽인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순덕 운영위원의 사회로 오픈식이 진행되었다. 백만기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과 동시에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의 첫 날이 시작되었다. 성남아트센터 이종덕 사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클럽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분당 색소폰클럽의 축하 공연으로 이어지면서 오픈식은 끝났다.

사랑방클럽축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10월 13일 사랑방문화클럽 특유의 미장센 을 보여줘!



1부 공연_ 우리 클럽이 프로무 대에서는 날

13일은 콘서트홀의 대기실은 하루종일 분주했다.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17팀의 릴레이 공연이 마련되어 있었다. 총 3부로 나뉜 13일 공연의 1부는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2부는 오후 4시부터 6시, 3부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다. 분당FM방송 진행자의 사회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대망의 13일, 사랑방클럽축제 공연의 첫 테이프를 끊은 팀은 서현동 주민자치센터 통기타 클럽인 고은이오였다. 고은이오는 30대에서 60대까지 기타를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다. '노을'로 시작하여 '가을 우체국', '촛불을 켜세요'까지, 깊어가는 가을과 어울리는 서정적인 음악들을 들려주었다. 마지막 곡으로 경쾌한 리듬의 '토요일 밤'을 들려주었는데, 공연 일인 토요일을 염두에 둔 듯 했다.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나그대를 만나리라..'

차분하면서도 감미로운 기타소리가 공연의 첫 무대를 무난히 열어주었다. 이어서 고은 한복을 맞춰 입은 민요사랑의 무대이다. 민요사랑은 성남 전 지역에서 우리소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호회로 지역 곳곳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구성진





목소리와 태평소 소리, 장고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가운데 ‘한강수타령’, ‘양산도’, ‘경복궁타령’ 등을 들려주었다.

다음으로 샤론클럽의 무용이 콘서트홀 무대에 펼쳐졌다. 샤론클럽은 지구촌교회 시니어지구 문화사역부에 속한 워십 무용팀으로 ‘워십’이란 경배와 찬양(Praise & Worship)에서 시작된 기독교 용어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댄스를 워십댄스라고 하는데, 줄여서 워십이라고 부른다.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전통무용으로 시작하여, 포크댄스, 워십으로 이어졌다. 회원들 평균연령이 72세라 하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르신들이 추는 무용이라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부드러우면서 경쾌하고 힘이 느껴졌다.

조용한 가운데 9개의 장고소리가 한 음을 낸다. 한 음으로 모아지니 콘서트홀 전체가 찌렁찌렁하게 울린다. 관객들은 장고소리에 집중하며 고갯짓으로 장단을 맞춘다. 풍물굿패 두령의 설장고이다. 전

통문화와 우리가락을 소중히 여기는 주부들로 2001년에 결성된 순수 아마추어 풍물패인 두령은 구성원 모두가 주부이다. '설장고'는 장단의 변화가 다채로웠으며 채를 치는 손동작은 무용적인 요소까지 지니고 있었다.

다음은 여섯줄사랑의 차례이다. 수내동 주민자치센터에 모여 연습하는 통기타클럽이다. 이들은 기타의 여섯줄을 통해 80년대 가요를 들려줬다. 마지막 곡인 '기쁜 우리 사랑은'을 들려줄 때는 관객들도 박수로 박자를 맞추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공연을 마치고 들어가려하는데 관객들의 앙코르가 그들을 붙잡았다. 기꺼이 앙코르 요청을 받은 여섯줄사랑은 노래 한 곡을 더 선사했다.



이미 성남에서 많이 알려진 자율학습이 1부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송림중학교 교사로 이루어진 자율학습은 4인조 락 밴드이다. 자율학습의 보컬은 관객들이 신나게 놀아주기를 부탁하며 신중현 님의 '미인'으로 공연을 시작했다. 노래가 시작되자 관객 모두가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이다. 신나면 모두 일어서서 함께 춤추고 즐겨도 된다는 멘트에 이어 'Bad case of loving you'을 불



렸다. 관중석 뒤쪽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지막 곡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관객이 후렴 한 소절을 부르면 보컬이 받아 이어 불렀다. 이러한 분위기에 젖어 관객 대다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며, 1부 공연이 끝났다.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 사랑'이라는 가사를 되뇌이며 다시 한 번 생각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2부는 20분 후에 시작한다. 뮤즈홀에서 열리는 체험행사를

보기 위해 발길을 서둘렀다.

2부 공연_ 갖가지 악기들의 대향연

만돌린의 음색으로 2부가 시작되었다. 아마데이 만돌린 챔버오케스트라는 만돌린 족으로 구성된 실내악단이다. 악기 편성은 만돌린과 만돌라, 기타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느라리면서 다소 높은 음색을 가진 만돌린은 곡의 분위기에 따라 애잔하게 들리기도 하고 경쾌하게도 들리기도 해서 슬픔과 기쁨을 모두 느끼게 하는 신비로운 악기였다.

'백만송이 장미', 'Mandolin serenade'에 이어 '목포의 눈물'을 연주하였는데, 만돌린 연



주로 흘러간 가요를 들으니 사뭇 더 구슬프게 느껴졌다.

로망스 기타합주단은 2005년 창단되어 클래식기타의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 봉사연주회를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10월 26일에 창단 연주회를 앞둔 큰 무대라 긴장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Spanish Flower', 'Solenzara', 'El Condor Pasa' 등의 명곡을 선사했다.

다음은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의 순서였다. 어렸을 적에 불렀던 리코더만을 생각했는데, 각양각색의 리코더가 무대를 채웠다. 리코더 소리는 바로크 음

악과 아일랜드쉬 휘슬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다. 높은 천장을 따라 공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리코더의 음색은 이른 아침을 연상케 했다. 음역의 높고 낮음으로 분리된 리코더들의 합주는 새로운 매력을 주고 있었다. 비발디의 'Concerto Grosso op.3-8'과 재즈 'It's only a Paper Moon',비틀즈의 'Obladi-Oblada'를 연주했는데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리코더만의 합주



로 곡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었다.

이어서 분당만들린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다. 1999년 주부들이 중심으로 창단되어 단원은 현재 60여명에 이른다. 정기 해외 초청연주를 하고 있는데 도쿄에서 세 번의 한, 일 만들린 협연을 했으며 일본 엘레강스 연주단을 초청하여 100인이 함께하는 만들



린 공연을 성황리에 치룬 바 있다. 유명 영화음악인 'Love Story'의 러브 테마로 시작하여 '제 3의 사나이', '디즈니 판타지'를 들려 주었다.



검은 복장으로 맞춰 입은 민트오케스트라는 입장부터 좌중을 압도하는 분위기였다. MINT는 'Madams who are Inspried by the Noble Touch'라는 의미로 2000년부터 활동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이다. 아마추어답지 않게 연주솜씨와 무대매너가 매우 훌륭했던 민트오케스트라는 귀에 익은 '쇼스타코비치의 JAZZ모음곡 No.2'와 '맘미아 메들리'로 관객들을 열광케 했고, 다양한 클래식을 현대적으로 편곡하여 메들리로 만든 'Hookde on Classic'을 마무리로 연주하여 그들의 능숙함을 한층 더 뽐냈다.

2부 공연의 마지막 팀은 스튜디오 창의 하늘정원이었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하늘정원은 밴드 결성된 기간이 짧아 많이 부족한데 이런 자리에 함께할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는 소감을 밝힌 후, 공연을 시작했다. 5곡의 POP Ballad와 1곡의 가요를 들려주었는데, 가을날에 듣는 발라드는 보컬의 목소리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다.

다양한 분야의 공연으로 1부 공연이 구성되었다면 2부 공연은 관악기, 현악기 등, 악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음악적으로 조금 더 깊고 풍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연주팀 모두가 아마추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연주솜씨를 직접 눈



과 귀로 확인하게 되니 '성남 시민들은 참 멋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토요일 오후 4시 공연이라 1부 공연보다 관객 수가 적은 것이었다. 1시간 후, 오후 7시부터 3부 공연이 시작된다. 3부에 출연하는 '산도깨비'의 아이들이 공연준비로 분주히 뛰어다닌다. 애들아, 잠시 후 3부에서 보자꾸나.



3부 공연_ 다채롭게 구성된 우리들의 무대

오후 7시부터 시작된 3부 공연은 토요일 저녁 공연이어서인지 콘서트홀의 좌석이 관객들로 제법 뻥뻥했다. 특히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3부의 첫 순서는 분당여성합창단의 공연이다. 1992년에 창단된 클럽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부들로 이뤄져 있으며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 성가, 가곡, 민요, 가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다루고 있다. 우리 가요 '한계령'으로 시작하여 '방아타령'으로 공연을 마쳤는데 분당여성합창단이 내

는 한 목소리를 들으니 분당여성합창단의 결속력을 유추할 수 있었다.

9쌍의 멋진 남녀가 손을 잡고 사뿐한 발걸음으로 입장하였다. 외양만으로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의 어르신들이다. 비바클럽은 모두 부부로 이루어져있다. 평균 회원연령이 60대란다. 스포츠 댄스의 비엔나 댄스를 시작으로 삼바, 차차차, 자이브를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연세가 지긋한 부부가 함께 춤추는 모습은 어느 모습보다도 아름다웠다. 삶의 동반자인 내 남편과 내 부인을, 나의 춤 파트너로 맞이하여 함께 춤추며 늙어



간다는 것, 참으로 로맨틱한 일이다.

목관악기로 구성된 실내악단인 성남목관앙상블은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 소리를 연상케 하는 플룻, 투명한 음색의 클라리넷, 중후한 느낌을 주는 색소폰의 하모니는 성남목관앙상블 특유의 하모니로 빛났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연주했는데 사랑방클럽축제가 열리는 오늘을 의미하는 듯 했다.

무대가 비좁지 않을까 걱정이 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장고, 징, 북, 해금, 태평소 등을 들고 올라오는데 그 수가 만만

치 않다. 가족놀이 공간 산도깨비의 순서이다. 모두 앉아서 장단을 가다듬은 후, 가야금과 플룻으로 '아리랑'을 연주한다. 아리랑 연주가 끝나고 나니 상쇠의 쟁과리 소리에 따라 장단이 변한다. 여러 장단을 선보인 후, 이번에는 태평소와 플룻으로 다시 '아리랑' 연주로 이어졌다. 공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귀여운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열 지어 입장한다. 산도깨비와 더불어 우리 문화를 함께 배우고 만들어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세발까마귀, 꾸러기 어린이집이라고 소개했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열차'를 아이들과 함께 불렀는데, 앙코르를 받아 '서로서로 도와가며'를 한 곡 더 들려주었다.



자유로운 복장의 사람들이 관악기를 들고 무대를 채운다. 윈드매니아는 관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관악 연주 모임으로 이 날, 공연레파토리는 중, 장년층이 좋아하는 흘러간 가요와 POP이었다. 3부 공연이 끝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관객들은 앙코르를 청했으며 '그 겨울의 찻집'이 앙코르 곡으로 다시 한 번 연주되었다.



3부 공연의 마지막 순서는 스튜디오 창 의 Dixie Smith였다. 젊은 감각의 노래와 모든 연령층이 함께 부를 만한 노래를 적절히 섞어 열광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나는 나비'로 시작하여 '누구없소', '그리움만 쌓이네', '물 좀 주소' 등을 관객들과 하나 되어 목소리 높여 불렀다. 관객들은 객석에서 일어나 손짓과 팔동작을 하며 무대에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오늘 준비된 공연은 모두 끝났다. 무대의 불이 꺼지고 객석의 불이 들어왔을 때, 관객 모두는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무대 뒤의 공연팀들과 전체 공연준비를 했던 사랑방문화클럽 운영 위원들이 내쉬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6시간, 17팀의 릴레이 공연을 보며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떠올랐다. 못 사람들은 흔히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숙련됨과 기량의 차이라고 한다. 하지만, 마음가짐만은 프로와 아마추어가 따로 없



다고 생각한다. 프로의 기량을 높이 사고 아끼며 닦아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완성시킨다면, 기량까지도 프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랑방클럽축제 공연에 참여한 17개 클럽인들은 이미 이 사실을 모두 깨달은 듯 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터전인 성남을 위해 앞으로 만들고, 그리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출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 준 아름다운 무대였다. 이들은 진정한 성남의 주인공이다.

체험분야_ 만들어서 즐겁고, 나눠서 행복했던 그 순간

13일에는 성남아트센터 뮤즈홀에서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축제 시작일 보름 전부터 사랑방 문화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된 행사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오전 10시부터 12시는 규방공예 고은매가 진행하는 냉장고자석 만들기, 오후 2시부터 3시는 이야기 놀자의 동화구연,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밀알사랑의 나만의 책 만들기가 마련되었는데 주말을 맞아 성남아트센터 찾아온 가족들로 체험행사장은 온종일 붐볐다.

규방공예 고은매가 진행한 냉장고자석 만들기는 전통 규방공예 기법으로 조각난 천을 예쁘게 이어서 자석에 덧입혀 냉장고자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다. 규방공예는 우리 어머



니, 할머니들이 바느질로 솜씨를 부려 만드는 공예기법을 말하는데 냉장고 자석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현대화시켜 어린이도 어렵지 않게 체험할 수 있었다. '규방공예 고은매'는 성남시 주민생협과 매송초등학교 어머니회 모임 내 규방공예 특강을 진행한 이력이 있으며, '고은매'는 아름다운 맵시나 모양, 또는 아름다운 여인을 뜻한다고 한다.

콘서트홀의 1부 공연을 관람하기 전, 이야기야 놀자의 동화구연 체험행사에 잠시 들렀다.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이 선생님을 응시하며 율동과 노래를 따라했다. 마냥 즐거운지 까르르



소리를 내며 웃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변하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한 아이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났다.

3시부터는 밀알사랑이 진행하는 나만의 책 만들기 체험이 있었다. 오늘 만들 책의 주제는 '우주'였다. 아이들은 우주를 연상시키는 해, 달, 별, 우주선, 행성, 외계인 등을 그려 넣었고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우주행성 사진을 오려서 붙였다. 가위질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옆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다행히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내세우는 부모님은 없었다.

내가 예전에 일하던 단체에서 어린이 대상 체험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부모님의 개입도가 너무 높은 것이었다. 아이들은 다양한 색상과 제각각의 모양으로 장식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들은 색상과 크기의 배합을 따져서 "분홍색 다음에는 흰색이 예뻐", "크기가 너무 다르잖아. 엄마는 이게 좋아. 이것으로 하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들은 엄마의 말대로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 모습을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어린이 대상 체험행사는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펼쳐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상력을 방





해할까봐 방대한 주제를 던져주면 어린이들은 개념을 잡는데 어려워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한 후, 표현방식에서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좋다. 어린이의 작품은 본인의 표현방식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만의 우주를 표현한 아이들의 책을 보니 각양각색,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아이들의 책을 보며 옛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랄만한 그림을 그린 후 "선생님, 이건 문어 뱃 속에 있는 새우예요. 새우 이름은.."이라고 설명했던 한 아이가 생각나서 혼자 웃음을 지었다. 역시 어린이들은 상상의 마법을 부리는 마술사이다.



10월 14일 21세기 사랑방 자연에서 펼쳐지다

자연과 함께한 축제 마지막 날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의 마지막 날인 14일은 울동공원에 특설무대를 설치하여 자연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을 특유의 쾌청한 날씨 때문인지 울동공원에는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다. 오늘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분당포크댄스클럽과 풍물연합 대동제가 진행되고 2부는 여섯줄사랑, 블루그래스음악클럽, 분당색소폰클럽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다.

무대를 중심으로 왼쪽 천막에서는 체험행사가 인산인해를 이루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는데, 호박만들기, 솟대만들기,

사각접시 만들기를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닥종이인형을 만드는 기법으로 호박에 한지를 덧입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늙은 호박을 만들었다. 호박 꼭지를 만들어서 달게 되는 마지막 과정이 끝나자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호박을 손에 들고 햇볕에서 말리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말리는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떠날 줄 몰랐다.

옆에서는 솟대만들기가 한창이다. 가족놀이공간 산도깨비에 서는 '솟대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솟대는 번영, 풍요를 뜻하는 상징물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솟대의 의미를 알려 주고 나뭇가지를 이용해 솟대를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 전통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정자 1동 한지공예는 사각접시만들기를 체험행사로 준비했다. 자신이 원하는 색상의 한지를 접시틀에 풀칠로 여러 번 바르고 예쁜 문양을 가운데 얹었다. 아이들은 서로서로 자기는 이 색깔로 만들었다며 연신 자랑했다.

시민들과 함께 신명나게 놀다

오후 3시, 풍물굿패 우리마당이 1부 공연의 길을 열었다. 사랑방문화클럽의 발전과 번성을 염원하고 사랑방클럽축제를 축하하는 염원의 판굿이 벌어지니 하나둘씩 사람들이 무대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판굿이 끝나자 분당포크댄스의 포크댄스 공연이 이어졌다. 포크댄스의 종류와 스텝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져 각각의 포크댄스마다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포크댄스를 추는 모습이 잔디밭에 펼쳐지니 관객석이 더욱 채워졌다. 포크댄스 공연 후 시민들이 모두 잔디밭에 직접

나와 함께 포크댄스를 추었다. 특히 엄마, 아빠와 함께 경쾌한 음악에 발을 맞추고 춤추는 아이들의 모습은 무척 즐거워 보였다.

다음 무대는 민요사랑의 차례이다. 야외와 어울리는 신나는 민요를 들려주었는데, 구경 중인 어르신들은 발로 장단을 맞추면서 따라부르기도 하셨다. 이어서 산도깨비 아이들의 탈춤공연이다. 여러 종류의 탈을 쓰고 등장한 산도깨비 아이들이 어찌나 능청스럽게 탈춤을 잘 추는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애들이 하는 것 맞아?' 하는 놀란 눈으로 즐겁게 공연을 감상했다. 탈춤 중간중간 관객석에 있는 어른들에게 적은 용돈을 받는 상황도 연출되어 몹시 익살스러워 보였다.



농악복과 사물복을 입고 허리에 고운 삼색띠를 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더거리를 입은 아이들도 장고를 매고 함께 장단을 맞춘다. 사랑방문화클럽 깃발과 농기가 잔디밭 가운데에서 힘차게 펄럭이는 가운데 연합풍물 대동제는 시작되었다. 풍물굿패 우리마당, 가족놀이마당 산도깨비, 서현풍물패, 터줏풍물패, 풍물공동체 네트워크, 가족풍물패 신바람, 야단법석 풍물패,



하늘엔, 소리누리, 두뚝이 모두 모여 한 장단으로 하나 되어 신나게 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각 클럽들의 취재를 위해 각각 만났던 클럽인들이 이 자리에 모두 모여 함께 장단을 맞추는 모습은 마음속에 몽클한 감동을 안겨줬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신나는 판굿에 이어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뉘어 차전놀이가 시작되었다. 관객 중에 긴장한 남자들은 동채를 메기 위해 뿔혀 나갔고, 산도깨비 아이들 두 명이 양쪽 대장으로 올라탔다. 결승전까지 치른 차전놀이는 아랫마을의 승리로 끝났고 곧이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뱃

놀이와 강강수월래가 시작되었다. 무대에서는 민요사랑의 구성진 목소리로 뱃놀이와 강강수월래가 흘러나왔고 풍물패, 관객들, 스태프들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뱃놀이와 기차놀이, 강강수월래를 하며 즐거워했다. 모르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 함께 손잡고 인사하며 신명나게 노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강강수월래는 끝날 줄을 몰랐다.

해가 지자, 울동공원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졌다. 오후 7시부터 있었던 2부 공연의 첫 순서는 여섯줄사랑 이었는데 손가락이 얼어서 리허설이 어려웠



다고 했지만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에 기꺼이 한 곡을 더 들려주었다.

다음 순서는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악기들을 가지고 입장한 블루그래스음악클럽의 차례이다. 미국 민속음악의 한 장르인 블루그래스 음악을 연주하는 클럽으로 밴조, 도브로, 더블베이스, 기타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한다. 특히 2곡의 요들송은 관객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차례는 분당색소폰클럽의 무대였다. 2부 공연의 사회는 클럽축제추진위원회의 원도희 기획실장이 맡았다. 14일

야외공연의 총 기획을 맡은 원도희 실장은 분당색소폰클럽의 총무이기도 하다. 이미 탄천 및 울동공원 등 야외무대의 경험이 많은 팀이라 준비와 진행이 매끄러웠다. 흘러간 가요와 POP을 주 레퍼토리로 연주했으며 재즈가수 오윤경 님의 창조출연으로 무대가 더욱 뜨거워졌다. 서울예대 댄스동아리가 깜짝 출연하여 B-boy 댄스를 보여주자 더욱 열광적인 분위기로 변했다. 분당색



소폰클럽의 클럽인의 노래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춤추며 2부 공연이 모두 끝났다.

4일 동안 펼쳐진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가 끝나자 운영위원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끝났다는 안도감, 이만하면 잘 치렀다는 자신감,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생긴 아쉬움 등이 생각나는 듯 했다. 수고했다는 인사 속에 서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격



려하는 느낌이 묻어났다.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 진행한 시민 중심의 축제로서 의의가 있다. 보는 입장의 수동적인 관객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축제를 직접 만들고 출연하는 능동적인 주인공으로 바뀌게 된 첫 출발점이다.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욱 더 열어주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삶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보다 더한 성공은 없을 것이다.

사랑방클럽축제에서는 열정과 나눔과 소통이 있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참 여 한 모 두 가 주 인 공

축제 후기 모음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에서 2007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클럽축제후기 쓰기'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벤트 당첨자는 문화통화인 '넘실'을 지급 받았다.

음악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배상열

올해의 가장 큰 기쁨이란 바로 사랑방문화클럽이 탄생한 것이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클럽.

리코더 연주활동을 하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어 항상 행복함을 느끼곤 했는데 여기서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취미를 살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올해의 '사랑방클럽축제'이 불씨가 되어 내년, 후년에는 정말 멋진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성남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

음악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

몇 년 후에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 이 축제를 보러 오지 않을까?

축제는 시작되고 나서부터...

수람회 조순희

올 장마는 길게 오랫동안 끌어 왔잖니~

그래도 가을은 왔어 어느새 말야, 10월이야,

야호 무엇인들 못할까!

그래 우리들의 축제를 시작하려 해~ 사랑방클럽축제를 말야.

다들 어여쁘게 분칠도 하고, 미소도 이쁘게,

그래 분홍빛 볼이 넘 이쁘다.

나의 오래된 스카프는, 가끔 찬바람에 휘날리고...

주부로써 살면서, 일부분 취미로 아니면 온전히 생을 걸고,

열과 성을 다 쏟아 부은 작품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축제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더 아름답게 꾸며야 해. 이제부터 시작이야.

축제는 시작되고 나서부터...

축제를 마치고

라모댄스클럽 김중근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렸다. 우리는 날듯이 무대를 빠져나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드디어 해냈다는 기쁨으로 뿌듯한 가슴을 얼싸안았다.

그 동안 얼마나 가슴 조이며 준비를 했던가? 당초 회원 24명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축제 일정 변경으로 부득이 일부 회원 불참과 나 또한 개인 사정으로 10월 14일 울동공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훌륭한 공연시설과 특히 야외에 마련한 전시공간은 수준급이었다. 실내 전시공간이 작품에 비해 다소 협소해서 안타까웠다.

이번 축제에 참여했던 모든 동아리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주신 사랑방문화클럽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축제 준비와 집행에 물심양면으로 끝까지 헌신하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사랑방클럽축제'에 함께 하면서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조옥련

사랑방이란 언어에서 오는 정감 그대로,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에서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다양한 장르와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어떤 순위 경쟁이 아닌 순수한 축제의 만남이 되어서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또한 찾아가는 축제였기에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어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또한 단연 돋보였던 건 사랑방의 초석을 다지며 탄생한 1대 운영위원들의 대가없는 아름다운 봉사와 열정이었다. 그 순수한 봉사와 열정이 성남에 뿌리를 내릴 사랑방 클럽에 기름진 자양분이 되어 주리라 확신하며 사랑방클럽이 성남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창 이현창

성남문화재단 에서 주최하신 클럽축제(2007년10월11일~10월14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마추어들에게 그런 커다란 무대에 설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느낀 대로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많은 수의 모임들이 행사를 오랜 시간동안 진행하는 데에 있어 콘서트홀의 깔끔한 진행요원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통 클래식에서나 프로무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진행요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여러 장르의 팀들이 공연을 하는데 객석이 많이 비어 있었다는 점과 공연에 참여한 클럽분들께서 조금씩이라도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좋은 무대에서 훨씬 더 빛이 나는 공연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랑방클럽축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한 모습으로 찾아 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닥종이인형만들기 강명자

우린 때로는 능동적이고, 때로는 수동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아간다. 자세한 날짜를 기억해 낼 수는 없지만, 1년쯤 전의 겨울로 기억이 된다. 금곡동 주민자치센터의 사랑방에서 회원들과 닥종이인형만들기 작업을 하던 중에 설문에 응하게 되었다. 형식적인 조사인줄 알았던 동호회 조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탄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우선 지면을 통하여 문화기획부장님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대단한 발상으로 기획을 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문화예술이 대중 속에 파고 들 수 있도록 한 획을 그어 주셨습니다. 이번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운영위원팀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뭉치니까 안 되는 것이 없군요.

전시팀에 대한 후기를 달아 보도록 하지요.

공간 안배를 위해 1차 모임을 하면서 그냥 조금조금 양보하면서 해야지.

다섯팀의 적당한 거리와 전시품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어느 한 팀이라도 기울면 안되겠지?’

“좋아요” “비슷한 양을 출품하기로 하지요.”

늦은 시간까지 각 팀들은 다음 날의 축제를 빛낼 준비를 마쳤다.

D-day! 콘서트홀로 오르는 중앙계단에서는 색소폰연주가 잔잔히 흐르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들고 있었다. 개회가 선언되고, 간단하게 준비된 다과를 들며, 인사를 교환했다.그러나 홍보 부족 탓일까? 아트센터의 울타리가 높았을까?

피곤함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전시관을 지키는 일은 기본인데, 우리의 그러한 마음은 많은 관람객이 찾아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는 것인데... 예상 외로 관람객이 적었다.

“아뽀사! 주민자치센터에 협조 요청하고, 통반장 통해 각 아파트 게시판에 알리고, 반상회를 통해 알리고, 각 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 버리다니...

마지막 날에 울동공원에서의 행사는 모처럼 좋은 날씨와 많은 인파로 인해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다. 체험행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우리 팀도 인기였고, 함께 진행된 한지공예와 산도깨비팀의 솟대 만들기도 늦게까지 인기였다.

나흘간의 행사가 끝나고, 몸과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새로운 시도로 성남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가치와 자긍심을 갖도록 해 준 '사랑방문화클럽'의 탄생은 부강한 나라일수록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여유가 있듯이 살기 좋은 성남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시도였습니다. 좋은 시작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많은 클럽의 회원들과의 만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사랑방문화클럽'을 위하여 쓴 소리, 단 소리, 언제나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야외공연의 기회가 더 생기기 바라며

자율학습 박병준

성남아트센터에서 우리 밴드가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락밴드이니 만큼 내년에는 야외공연의 기회가 더욱 더 많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아트센터 공연할 때 베이스앰프가 정상이 아니라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뻐요

이야기야 놀자 김유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 놀자' 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 기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클럽들을 만나게 되어서 더욱 기뻐요.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방클럽축제가 발전해서 모든 성남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를 준비하면서

클럽지기 모임 운영위원 곽운부, 김미화 인터뷰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이자 사랑방클럽축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은 곽운부 풍물굿패 우리마당 대표와 대외협력을 맡은 김미화 분당퀵트 대표를 만나서 사랑방클럽축제에 대한 뒷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방.클.럽.축.제.의.주.안.점.

사랑방문화클럽들의 결속력과 주인의식

곽운부 : 연기되기 이전인 8월에 열릴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성남문화재단의 상근을 하면서 공연, 체험, 전시 분야의 기본 계획을 세웠죠. 10월로 축제가 연기되면서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추진위원회의 자율성과 클럽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8월 축제는 각 분야별 기본 계획에 맞춰 클럽들이 그냥 준비하는 정도였어요. 실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전체적인 준비를 했다는 느낌보다는 클럽의 배치만을 신경 쓴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탄천페스티벌과 맞물려 축제를 열 계획이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죠.

김미화 : 성남시의 축제인 '탄천페스티벌'과 시민의 축제인 '사랑방클럽축제'를 함께 열자는 의견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었지만, 축제에 참가할 70여개의 클럽의 결속력을 다지는 기간으로만 할애해도 짧은 편이었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탈레반 사건으로 사랑방클럽축제가 10월로 연기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클럽축제의 의미와 형태를 다시 찾아보자는 거였죠.

곽운부 : '우선 클럽들을 모두 만나자'를 첫 단계로 삼고 각 클럽들의 행사에 운영위원회가 참석하게 된 것이죠. 6월부터 짬나는 대로 각 클럽 행사에 방문했고요, 본격적으로 8, 9월에 각 클럽들 행사를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김미화 : 다행스러운 것은, 활동을 재개하는 9, 10월에 클럽 행사도 많았고 운영위원회의 진심과 활동모습을 본 클럽들이 사랑방클럽축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하려고 했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랑방클럽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클럽활동이 활발해지더군요.



사.랑.방.클.럽.축.제.에.서. 만.족.하.는. 점.

전시팀의 결집과 화합

곽윤부 : 특히 전시팀의 결집과 단합이 돋보였습니다. 결집과 단합이 잘 된 이유는 지속적으로 실내 전시팀과 야외 전시팀이 모임을 가졌어요.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전시작품 수, 공간의 분할과 이용에 대해 사전에 많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미화 : 저도 이번에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사실 전시팀의 외부 전시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전시가 가능한 벽이나 조명이 설치된 것도 아닌, 실제 야외였으니까요. 하지만 서로 작품의 성격을 파악하고 양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노고가 전시회에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전시하는 사람, 전시를 보는 사람 모두가 흡족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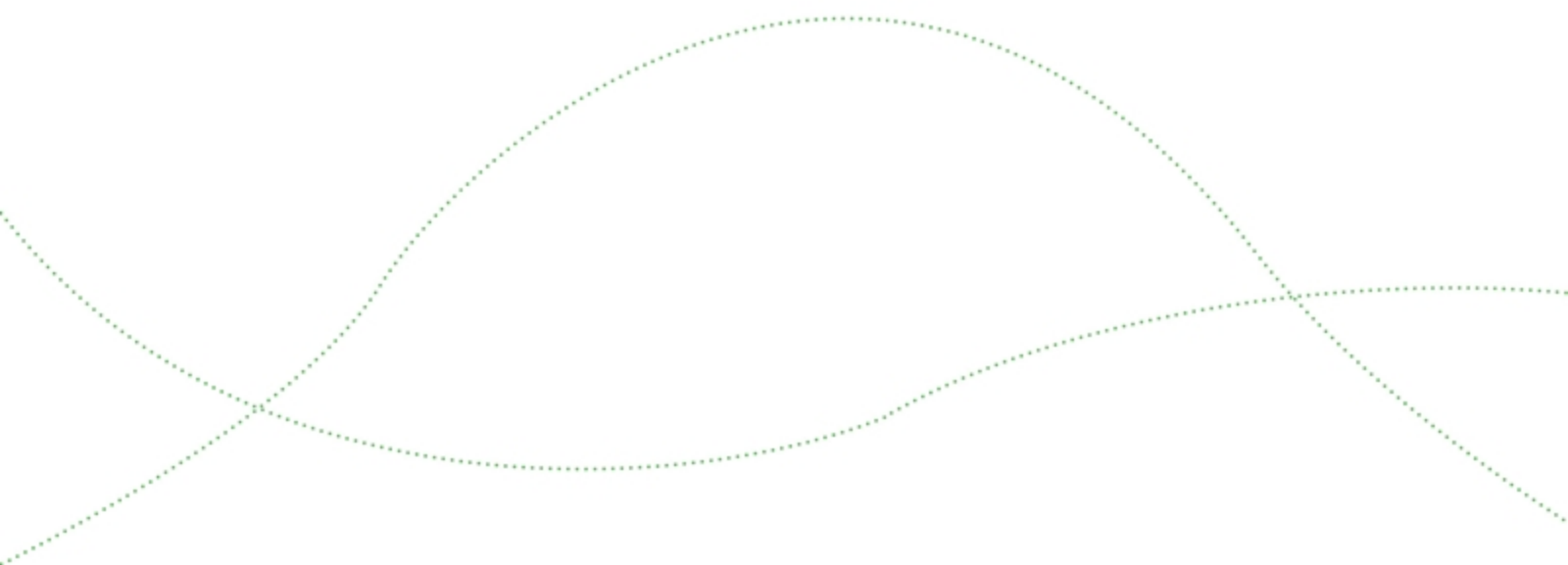
사.랑.방.클.럽.축.제.의. 의.미.

한 판에 모여 함께 놀자!

곽윤부 : 네트워크가 가능한 50여개 클럽이 '다함께 만나자'라는 생각이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풍물관련 클럽과 청년대학 관련 클럽 외에는 크게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클럽들이 모인 모습을 보니 저 스스로 무척 보람되었습니다.

김미화 : 여러 클럽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한 판에 같이 모여보자!' 라는 생각으로, 같은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의 클럽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마당에서 놀다

클럽지원을 통하여 클럽 하나하나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

2007년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원프로젝트_공모지원사업'의 진행과정과 지원을 받은 서른일곱 개의 사랑방문화클럽 취재기를 담았습니다.

클럽지원 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설명회

20070420

열린 의견 창구가 된 공모지원사업설명회

2007년 4월 20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많은 클럽지기
와 클럽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성
남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 후, 자세한 질의응
답시간을 가졌는데 클럽인들은 공모지원사업과 향후 사랑방문화
클럽의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과 지원요청사항을 거침없이 쏟아
냈다. 지원요청사항으로는 전시·공연공간의 확보와 자원봉사
와의 연계시스템, 클럽활동의 홍보지원 등이 있었으며, 또 구성원의
대다수가 직장인인 클럽들을 위해 각 문화관련 시설의 저녁시간
개방과 클럽인들을 서로 잇는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원요구현황에 맞춘 클럽지원프로젝트

‘2007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원프로젝트-공모지원사업’은 성남
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클럽의 지원요구현황을 분석하여
요구에 맞춰 지원함으로써 활성화된 클럽활동을 통해 문화클럽이
문화도시 성남의 주인공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의
의가 있다.

‘2007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원프로젝트-공모지원사업’의 지원

분야는 학습지원, 숙련지원, 공헌촉진으로 나뉜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받음으로써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학습지원, 연습공간과 워크숍 등의 공간을 지원하는 숙련지원, 지역사회의 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발표의 장을 지원하는 공헌촉진으로 각 클럽이 스스로 필요한 분야에 맞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클럽지기로 구성된 '클럽지기 모임 운영위원회'가 기획과 운영, 심사에 참여하여 '시민 스스로 만드는 시민주도형 문화도시'에 한 발짝 더 옥 다가섰다는 점이다.

향후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원프로젝트-공모지원사업은 가급적 현금지원을 지양하고 간접지원 방안을 단계별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연습공간과 발표공간의 꾸준한 발굴 및 개발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간을 확대하고 확대된 공간에서 클럽들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성남문화재단은 보다 목적에 충실한 지원방안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07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원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결과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가 실시되었고, 6월 19일에 1차 서류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6월 22일에 2차 면접심사가 있었다. 6월 29일에 최종결과가 발표되었다. 클럽의 활동역량과 실적, 활동계획의 충실성, 취지의 부합성, 활동의 실현가능성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총 49건의 지원클럽 중 42건이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지원대상 사업은 음악 분야가 가장 많았고, 무용, 국악, 미술, 사진, 봉사 등 다양한 장르의 클럽이 혜택을 받았다. 2개 이상의 클럽들이 추진하는 통합지원도 이뤄졌는데, 천상연과 맑은누리의 '2007 희망세상 얼쑤', 빛누리과 줌인세상의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등이 있다.

또, 지원대상 클럽은 10월에 열린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에 모두 참여해 클럽의 기량을 한껏 뽐냈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어 냈다.



리 코 더 전 문 강 사 지 원 프 로 켜 트

학습지원

경기 교사
리코더 합주단

“우리 선생님은 리코더도 잘 붙어요”

클럽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경기도 내 교사들로 이뤄진 경기교사 리코더합주단은 2000년부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임이다. 그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 중 리코더 강의를 받았는데, 그 후에 리코더 강의를 더 듣고 싶은 몇몇의 선생님이 모여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2시간동안 오리역 하나로마트 문화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의 리코더 연습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리코더는 악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한 악기이다. 누구나 붙어도 쉽게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3년부터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매해 리코더 음악캠프가 개최되고 있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 매해 11~12월 중 정기연주회, 각종 초청공연 등 학교생활만도 바쁜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바쁘게 살고 있었다.

학교에서 학교합주단을 만들어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는데, 각

중 음악제에서 합주단이 입상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리코더 동료로서 매우 뿌듯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리코더를 전공 과목으로 삼아 여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정규 교과 과정이 생기면 좋겠고 가까운 일본과 대만 등의 리코더 연주단체와 교류하여 교류연주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30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 9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유명 클래식 음악과 재즈, 팝이 리코더의 합주, 중주, 독주로 연주되었다. 찬조출연은 꿈초롱 아이들의 중창단이 했으며, 'Royal flash' 공연 중 단원 이정철 님이 깜짝 무용을 선보여 보는 재미를 더했다. 리코더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연출과 음색을 표현할 수 있다니, 놀라웠다. 제 9회 경기교사리코더 합주단의 정기연주회는 귀와 눈이 모두 즐거운 공연이었다.





리코더 전문강사 지원 프로젝트는,
 리코더를 전공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회원들의 기량 향상이 목적인 사업이다. 총 15회 전문 강습으로 독주력과 합주력을 향상시킨 후, 발표 음악회를 열어 음악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은,
 2000년, 리코더 음악에 관심 있는 경기도 내 교사로 결성된 리코더합주단이다. 리코더 음악캠프와 더불어 청소년 리코더 음악캠프도 개최하고 있다. 성남교 육청 후원으로 '좋은 수업 나눔' 리코더 멘토링 초청연주를 하기도 했다. 올해로 정기연주회는 9회를 맞았다.



정 기 공 연 을 위 한 학 습 지 원 프 로 젝 트

학습지원

민트
오케스트라

무대와 객석의 짜릿한 교감

주폐의 '시인과 농부' 서곡으로 막이 열렸다. 느리고 조용하게 시작되어 힘찬 행진곡이 되었다가 농부의 왈츠로 이어지더니 다시 처음의 멜로디로 돌아간다. 전원의 아침을 연상케 하는 도입부분과 격정적으로 연주되는 행진곡 부분이 인상 깊은 곡이다. 다양한 변화를 가진 곡이라 연주자들의 기량이 나타날 수 있는 곡이라 생각했는데, 무사히 곡의 연주를 마친 모습을 보니 역시 민트오케스트라의 실력이 아마추어를 뛰어넘는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2007년 11월 3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는 민트오케스트라의 '제 8회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이미 사랑방클럽축제 공연에서 접한 민트오케스트라의 기량과 실력을 알았기에 오늘 연주곡을 살펴보았다. 내가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했던 모짜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교향협주곡과 베토벤의 교향곡 7번 op.92가 준비되어 있었다. 얼핏 기억 속에 베토벤의 교향곡은 지난해 즐겨 보던 외국드라마에서 나왔던 곡이라는 것이 생각났다. 직접 듣는 교향곡 7번은 어떠할까 궁금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교향협주곡인 'Sinfonia



Concertante in E flat Major KV364'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얼마 전부터 나는 비올라의 음색에 매료되어 있었다. 비올라의 음색은 바이올린보다 부드럽고 첼로보다 높은 진중함을 갖췄다는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진 듯하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다소 묻히는 비올라가 안타깝지만, 비올라가 없는 오케스트라 연주는 무척 허전할 것이라 생각했다.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할 'Symphony No.7 in A Major Op.92'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하나의 교향곡을 전곡으로 음악회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와 객석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무대와 객석에서 피어난 기대와 설레임, 떨림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듯 했다.

연주가 끝나자, 숨 죽였던 객석에서 일제히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연주를 끝마친 단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동화(同化)'라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민트오케스트라 제 8회 정기 연주회는 'ABBA'의 노래와 'Hooked on Classic'을 앙코르로 들려주며 성황리에 끝났다. 참석했던 모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한 넉넉한 저녁이었다.

정기공연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젝트는,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20회에 걸친 전문 지휘자의 교육을 통해 2007년 하반기 정기연주회를 음악적으로 더욱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갖춰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향상된 기량으로 2007년 12월에 예정된 2곳의 위문연주의 성공까지 기대하고 있다.

민트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단원들의 음악적 기량향상을 위해 2000년 3월 첫 출발을 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이다. MINT는 "Madams who are Inspired by Noble Touch"라는 의미로, 단원 모두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창단 이후 매년 1-2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으며, 창단 이념에 맞게 정기적으로 여러 노인 요양병원 등을 방문하여 꾸준히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북 아트 교육 이수 프로젝트

학습지원

밀알사랑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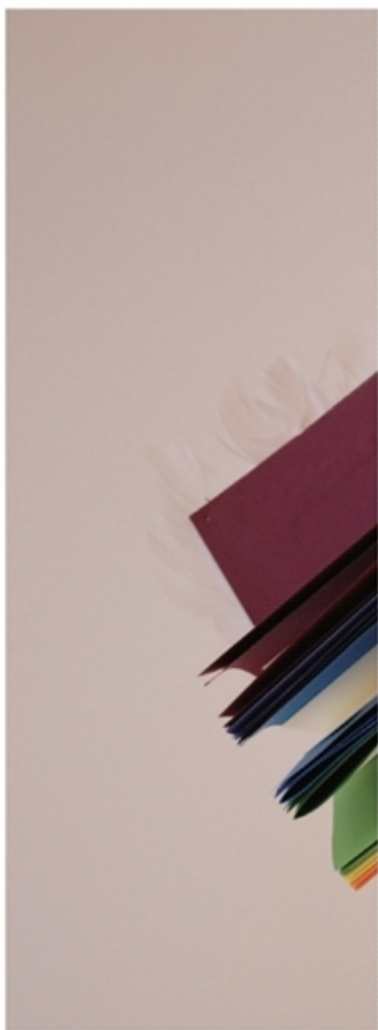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흔히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책이지만, 읽는다는 외에 책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북아트'라는 분야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설마 내가 책 만들 수 있어?'라며 먼저 의구심을 가질테니 말이다.

여기 책 읽어주는 엄마들이 과감히 책 만들기에 도전했다. 정자초등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밀알사랑모임'에서 3일간 특강으로 북아트 교육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북아트'를 선택한 이유는 책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으며 책에 관련된 여러 체험을 통해 책의 세계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알사랑모임은 2006년에 만들어져 현재 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년별, 수준별로 초등학생 대상의 좋은 책을 선정 한 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꾸준히 책에 대한 평가와 공연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3일간의 수업 커리큘럼은 책 만들기의 기초를 다진 후, 다양한 제



본기법을 배워 북아트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책을 만들기 위해 책이란 무엇인지, 북아트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나눈 뒤, 책의 구성요소, 북아트 재료, 북아트 수업이 주는 특징 등에 대해 배웠다. 이어서 북아트의 기법을 지도받았다. 기본 바인딩부터 제본 기법 등을 직접 실습하니 이해가 빠르고 재미있었다.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실습했는데, 제본 기법에 따라 책에 담길 내용을 아이와 함께 의논하고 만든 과정이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10월 13일 사랑방클럽축제 체험행사 '나만의 책 만들기'를 마련하여 성황리에 끝마쳤다. 밀알사랑모임은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 가지에 도전하여 '책'이 주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보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 책을 읽으려면 직접 행동하고 뛰어다녀야 하는 책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밀알사랑모임의 손을 거쳐서 말이다.





북아트 교육 이수 프로젝트는,

어머니들이 북아트 교육을 이수한 후 아이들의 책 읽어주기와 함께 책 만들기 교육을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책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아이들이 책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가지기 바라며 더 나아가 아이와 함께 만든 책으로 북아트 전시를 계획하는 것이 향후 목표이다.

밀알사랑모임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인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현재 학교 도서관 및 여러 기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책 읽기 훈련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넓혀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제 14회 분당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위한 학 습 지 원

학습지원

분당
여성합창단

What a Wonderful World!

오늘 공연의 부제는 'What a Wonderful World'이다. 오늘 준비된 곡을 살펴보니 자연의 경이로움이 공연 전체에 배어 있었다.

전체 7부로 구성된 제 14회 정기연주회는 가을편지로 시작되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1부 여성합창에서는 눈, 제비꽃, 아리랑 환타지로 이어졌는데, 부드러우면서 어렵지 않은 곡들로 이루어졌다. 이수정씨의 바이올린 독주로 2부 'La folia' 가 끝나자 3부는 여성합창으로 유명영화음악과 pop을 들려주었다. 'Moon River', 'Love is blue', 'Top of world' 등을 합창으로 들으니 원곡과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다.

몇 주일 전,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마사회 분당지점을 찾았다. 분당여성합창단은 올해로 창단 14주년을 맞이하였다. 창단 후 꾸준히 정기연주회를 기획하고 개최하였는데, 2007년은 성남문화재단의 클럽지원 프로젝트 덕에 정기연주회 진행이 더욱 수월했다고 한다. 한국 마사회 분당지점에서 매주 연습하는데 지금은 장소만 제공받아 연습을 하는 형태라 정기연주회 개최의 높은 비용을 매년 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좋은 공연을 펼칠 수 여건이 형성된 점에 대해 모두들 만족해 했다.

지휘자이며 강사인 박용기님은 무척 엄격하게 지도하는 편이었다. 10년동안 단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여 서로의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 따끔한 지도방식이 크게 원망스럽지는 않다고 한다. 처음 입단한 단원들을 위해 발성훈련을 하는 연습시간도 있다. 분당 여성합창단은 전국 단위의 합창대회, 두 번의 해외공연, 성남지역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현재는 군부대와 지역 사회기관에서 봉사공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4부는 포천시 마홀남성합창단의 찬조출연으로 시작되었다. 힘있고 장중한 남성합창단의 목소리를 듣자, 맑고 고운 음색의 여성합창단과 함께 부를 5부가 기대되었다. '그대 그리고 나', 러시아 민요 3곡이 끝나고 드디어 5부인 혼성합창시간이 되었다. 혼성합창으로 총 3곡을 들려주었는데 개인적으로 'What a Wonderful World'가 제일 듣기 좋았다. 인간은 자연에 일부이며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남은 듯 했다.

6부는 팝핀 댄스를 준비한 DIG IT의 특별출연이 있었다. 팝핀 공연으로 무대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마지막 7부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졌다. 정기연주회를 위해 열심히 연습한 분당여성합창단의 열의가 새삼 기억에 되살아나며 2008년 15회 정기연주회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품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물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선과 열정을 잃지 않는 분당여성합창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 14회 분당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위한 학습지원은,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연주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 지휘자에게 강습 받을 기회를 제공받았다. 2007년 11월 22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분당여성여성합창단은,
1992년 창단된 유서깊은 합창단으로 현재 32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크 음악에서부터 성가, 가곡, 민요, 가요 등 폭넓은 레파토리를 다루고 있다.



다큐멘터리 탄천 6mm에 담다

학습지원

성남
6mm

6mm로 담은 탄천의 풍광

상영회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자신들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그들의 얼굴은 붉어졌다.

오늘은 성남 6mm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3개월 동안 촬영하고 편집했던 '탄천, 6mm에 담다'의 상영회 날이다. 7월부터 기획하고 콘티를 짜고 8~9월에 약 10회의 촬영, 10월에 종합편집하여 상영회를 마련한 것이다.

성남 6mm회원들과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의 집 관계자,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타 클럽인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상영회가 시작되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 탄천의 절반이 넘는 구간이 성남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었다. 발원지를 찾아 탄천의 유래와 역사를 알아보고, 탄천의 상류와 하류까지 각각의 수질도 검사하여 성남시의 자연환경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수질을 보기 위해 물 속을 촬영한 장면이 있었는데, 촬영 노하우를 공개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투명 밀폐용기 안에 카메라를 고



정시키고 물에 담가 촬영했다고 하시면서 멋지게 웃으신다. 중간에 삽입된 탄천의 겨울풍경은 회원 중 최고령자인 이관배 옹께서 촬영해놓은 이미지란다.

‘탄천, 6mm에 담다’ 상영회는 내 고장에 대한 관심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매체에 담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다큐멘터리 '탄천, 6mm에 달다'는,

우리가 사는 성남의 '탄천'을 주제로 하여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해 기획했다. 캠코더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클럽인을 대상으로 제작 중심의 수업을 진행 후 완성하여 2007년 10월 26일, 다큐멘터리의 상영회를 성남문화의 집에서 갖은 바 있다.

성남 6mm는,

성남문화의 집에서 영상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촬영 기술, 영상장비 사용법, 영상편집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통해 촬영에서부터 편집까지 전체 과정을 체험한다. 회원 연령층은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며, 현재 사랑방문화클럽 통신원으로 2명의 회원이 맹활약 중이다.



사 진 보 정 강 습 프 로 그 램

학습지원

줌인세상

보다 나은 사진을 위하여

사진에 관심이 많은 나는 사진보정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진은 기술이 우선이지, 찍은 후 보정을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한 사진기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은연 중에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토샵을 조금씩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니 더 좋은 사진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은 사진을 얻는 것 외에 다양하고 재미난 효과를 넣어 전혀 색다른 분위기의 사진으로 연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적의 보정을 위해 그래픽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를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해 크게 배울만한 곳이 없었다.

사진보정 강습 프로그램의 7번째 강의는 인물사진 보정 및 테크닉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인물사진의 보정으로 들어가기 전, 지난 강의시간에 했던 설명을 간단히 복습한 후 여러 종류의 사진을 보여주며 보정의 필요성과 노하우를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강의 커리큘럼을 간단히 살펴보면 디지털 카메라의 이해, 사진의 기본 보정, 사진편집 프로그램의 메뉴와 효과, 합성, 디지털 아트의 이해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사진 촬영법 외에 보정에 관련된



전문 강의는 줌인세상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한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동영상 강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사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2004년에 결성된 '줌인세상'은 현재 25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순히 사진에 대한 취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잘 하는 사진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2006년부터 영정사진 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인물사진 보정을 위해 귀여운 아이의 사진을 샘플로 삼아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피부를 밝게 하고 눈매를 또렷이 하니 전체적으로 얼굴의 윤곽이 살아나면서 사진이 훨씬 돋보였다.

인물사진 보정과 관련된 프로그램 명령어가 적힌 프린트물을 선물로 받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모아놓은 인물사진을 보정해보리라 마음먹었다. 오늘밤 우리집 컴퓨터 밤새 켜 있겠구나. 하하.





사진보정 강습 프로그램은,

다양한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적절히 보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 새로운 시각예술매체로서의 디지털 사진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줌인세상은,

2004년 사진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만들어진 사진동호회로 매주 사진공부와 찍은 사진을 강평하는 시간을 갖고 매주 셋째주 일요일에 정기 출사를 가진다. 성남 지역에서 사진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오 리 뜰 농 악 전 수 프 로젝 트

학습지원

풍물공동체
Network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부단한 노력

오리뜰이라, 무슨 뜻일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옛 지명은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라고 하는데 구미리에는 '오리뜰'이라는 꽤 넓은 평야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분당선의 오리역만이 당시 지명을 나타내고 있다. 1989년 분당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오리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이전, 오리뜰에서는 사시사철 풍물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오리뜰에서 울려 퍼지던 농악을 '오리뜰 두레농악'이라고 하며 (사)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의 강승호 지회장이 복원하였다. 오리뜰 농악은 노동과 놀이가 결합한 두레농악으로 굿거리 장단이 많고 대(大)자 진, 십(十)자 진 등 특이한 진풀이가 등장한다.

무척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수 교육에 참여한 여러 풍물클럽 인들은 열심히 연습에 임했다.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라고는 탄천둔치 다리 아래가 고작이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쉽게 쉬러 가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다. 무척 힘들어보였으나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보였다. 사라져가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



는 계기로 삼기 위해 기획된 이 프로젝트가 성남 내의 풍물패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을 보존하려는 젊은 세대들의 부단한 노력을 보니 앞으로 전통문화의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는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풍물공동체 Network에게 마음깊이 박수를 보낸다.

오리틀 농악 전수 프로젝트는,

우수한 기량을 가진 자원들의 집중 고급기능 연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남아있는 경기농악의 틀을 발굴·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나교회 건너편 탄천둔치에서 2007년 8월 31일부터 10월 17일 사이 총 8회, 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풍물공동체 Network는,

지역별 풍물활동을 하고 있는 독립 단체들의 풍물공동체로서 상호간 교류와 지원, 정보교환, 합동연습을 통해 단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였다.



비나리, 민요 기능전수 프로젝트

학습지원

풍물굿패
우리마당

5살도 따라부르는 우리의 남도민요

내가 풍물굿패 우리마당을 방문한 날은 민요 교육이 있던 날이었다.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아빠를 따라 온 5살배기 아이도 있었는데, 연상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가 부셨다가를 반복했다. 8월부터 있었던 12회 강습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민요강습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건네들으니 민요에 대한 열망을 알 수 있었다. 학습지원 대상으로 민요를 넣은 이유도 회원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라고 한다. 모인 사람들은 강사님이 오기 전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복습하고 물어보기도 하며 연습에 열중이었다.

강사님이 도착하자마자 수업을 시작한다. 정확한 표현과 음을 담기 위해 너도나도 강사님 앞으로 레코더를 밀어놓는다. 남도민요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는데 강사님의 시원한 목소리를 듣는 민요는 구성지고 멋드러졌다.

5살배기 아이를 우연히 쳐다보았는데 입을 오물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금 배우는 민요를 가사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부르는 것이 아닌가. 강습시간과 집에서 복습하는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민요를 접하게 되니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10월 28일 울동공원에서 있었던 풍물굿패 우리마당 가을굿에서 민요 강습을 받은 회원 11명과 탈춤강습을 받은 6명이 지금까지 배운 솜씨를 아낌없이 뽐냈다. 앞으로 풍물굿패 우리마당의 공연에서 당당히 한 코너로 민요와 탈춤까지 볼 수 있게 된다면 더욱 다양하고 신명나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가야, 그 때에는 너도 함께 공연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비나리, 민요 기능전수 프로젝트는,

내부 강사의 한계를 뛰어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비나리의 대가 이광수님의 특강을 마련하였다. 봉산탈춤과 남도민요는 각각 12회 강습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풍물굿패 우리마당은,

민족 유산인 풍물을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풍물단체로 풍물초급반, 중급반, 회원반, 민요반, 탈춤반, 상모반, 선반판굿반, 사물놀이반 등을 운영하며 매해 남한산성 해맞이굿, 정월대보름행사, 단오맞이 풍물축제, 풍물굿패 우리마당 가을굿 등의 정기 행사를 진행한다.



L a t i n
4 종 목
기 량 향 상
프 로 젝 트

학습지원

VIVA
CLUB

아름다운 노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댄스스포츠 동호회인데, 평균 연령이 60대이란다. 흔히 무릎과 어깨가 결린다는 광고의 할아버지, 할머니 모델들의 연령이 6~70대 정도일텐데... 60대인데, 댄스스포츠를 하신다고?

댄스스포츠는 레크리에이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루하지 않으면서 체력까지 다질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노인층에게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한다. 예술성과 스포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댄스스포츠는 라틴댄스와 모던댄스로 이뤄진다. 라틴댄스에는 자이브, 차차차, 룸바, 삼바 등이 속하며, 모던댄스에는 왈츠, 탱고, 퀵스텝 등이 속한다. 2007년 12월에 'VIVA CLUB'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클럽이름인 'LAMO CLUB'은 라틴과 모던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

클럽 회원은 댄스스포츠 경력이 10년이상 된 회원과 적어도 5~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로 구성된다. 비바클럽의 특이한 점은 부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후에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활동과 운동을 목적으로 시작해서 일까, 처음에 부부 4쌍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일까, 현재까지 부부 가입의 규정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희망'을 여쭙보았는데, '오래도록 건강하게 춤을 추는 것'이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이 얼마나 소박하고 간결한 희망인가.

돌아오는 길, 지인의 블로그에 써 있던 글이 기억났다.

'한강에 앉아있었는데 옆에서 어느 노부부가 음악을 틀어놓고 멋지게 춤을 추는거야..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잠시 후에 어찌나 아름답던지.. 나도 그렇게 늙고 싶어.'





Latin 4종목 기량 향상 프로젝트는,

무대에서 단체공연이 가능한 Latin 4 종목을 체계적인 기술 연마로 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각종 공연에서 높아진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현재, 타 클럽과의 연계 공연, 봉사활동 등을 계획 중이다.

VIVA CLUB은,

2001년에 문화아카데미 출신인 부부 4쌍, 8명이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된 라틴댄스 동호회로 현재 회원수 22명, 평균 연령은 60대이며 특이한 점은 부부만 가입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수내1동 초림문화의 집에 모여 연습하고 있다.

청 소 년 을 위 한 클 래 식 기 타 의 밤

학습지원+공헌촉진

로스아미고스
기타합주단

서양 전통 무곡을 기타소리로 듣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의 로비에는 힙합 패션을 한 청소년들이 음악을 틀고 삼삼오오 모여 B-boy 댄스를 연습하고 있었다. 다른 한 쪽에는 컴퓨터 게임에 열심인 아이들, 계단에 앉아 수다를 떠는 아이들이 있었다.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

오늘은 로스아미고스 기타합주단이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를 여는 날이다. 10년 이상의 기타연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단원들로 구성되어 꾸준히 연주활동을 해 온 아마추어 아닌 아마추어 연주단체이다.

연주 레파토리는 밀롱가, 폴카, 민요 등의 세계 전통음악과 클래식, 영화음악, POP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었다. 짐작하건대 오늘의 관객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고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기타연주회의 변화를 주기 위함일 것이다.

스페인 무곡을 뜻하는 보케리니의 'Fandango'로 시작한 공연은 밀롱가, 폴카로 이어졌다. 다양한 음악장르에서 무곡들이라 빠르고 경쾌하여 세심한 연주 주법이 필요할텐데 역시 오랜 경력을 가



지고 있는 단원들이라 기량이 매우 훌륭함을 느낄 수 있었다.
초청연주로 마련된 청봉 선생님의 솔로기타연주, 플룻 유영미 선생님과 박종대 지휘자님의 듀엣연주는 가히 전문음악가들의 뛰어난 연주였다.

합주로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중 아리아', 영화 스탕에서 나온 'The Entertainer', 비틀즈의 'Let it be' 등이 연주되었는데 곡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연주의 감동을 무대에 전달했다.

공연관람 후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어느새 오늘 들은 음악을 흥얼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오늘 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클래식 기타음악 CD를 찾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기타의 밤은,

성남시 청소년 문화시설에서 공연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클래식기타의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연주기량의 향상을 위해 전문가의 클래식기타 이론지도(서양음악통론, 기타역사, 기초 화성학, 합주 테크닉 등) 프로그램을 가지고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로스아미고스 기타합주단은,

1998년 성남지역의 클래식 애호가들에 의해 창단되어 지역사회의 시민문화 향유 기회로 정기 연주회, 자선 위문 연주, 초청연주, 외국 연주단체와의 합동 공연 등 크고 작은 연주회를 연 평균 10회 이상 공연하는 순수 아마추어 클래식기타 합주단이다.

야 단 법 석 아 줌 마 풍 물 프 로 켜 트

학습지원+숙련지원

야단법석
풍물패

아줌마들, 동네에서 뭉치다

‘아줌마’들이 모여 풍물을 배우고 있다는 야단법석 풍물패는 실제로 주부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2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가사와 육아에 힘든 주부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하게 놀기 위해 무엇을 시작할까 하다가, 풍물을 시작했다고 한다. 클럽지기 이은정 님은 이전에 풍물을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 회원들에게 초보강습을 해주었다고 한다. 이후, 꾸준히 활동한 회원들은 초급 강사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되었고, 전문 지도 강사에게 중급 이상의 강습을 받고 싶은 열망이 생겨났다고 했다.

이러한 염원이 이뤄진 것은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부터이다. 2007년 7월부터 성남 태평동에 연습장소를 대여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초급과 중급강의를 받고 있다. 이제야 우리 주부들도 마음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열린 미소를 짓는다.

강의 중간에 한 회원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더니 낮은 목소리로 ‘반찬 해놓았으니 냉장고에서 꺼내먹고, 국은 데워서 먹어. 강습중이야. 끊어.’라는 짧은 통화내용은 너무도 인간적이었다.





살아가면서 흥미있는 것, 재미난 것을 찾아 배우고 열중하는 일은 평생을 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서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만 하고, 삶이 끝나는 순간 나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이었다고 미소지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있는' 12명의 아줌마를 만났다.

야단법석 아줌마 풍물 프로젝트는,

우리 가락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높은 주부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공간을 지원하고, 풍물 초급강사 양성을 위해 전문강사를 지원한 사업이다.

야단법석 풍물패는,

전통문화 향상을 위해 2004년에 창립된 풍물단체이다. 풍물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찾은 주부들이 건전한 취미를 갖고 마음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 량 향 상 을 위 한 야 외 음 악 회

학습지원+공헌촉진

윈드매니아

강을 바라보며 연주하다

탄천변에서 색소폰 소리가 들리고 트럼펫 소리가 들린다. 유유히 흐르는 탄천과 더할 나위없이 잘 어울린다. 멋진 남성들이 탄천변에 서서 연주를 하고 있다. 윈드매니아 사람들이다.

윈드매니아는 관악기(취주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트럼펫, 트롬본, 유포늄, 호른, 튜바 등의 금관악기와 색소폰, 클라리넷, 플룻, 오보에, 바순 등의 목관악기를 연주하는데 드럼 키보드 전자기타 등을 추가하여 Brasswind, Woodwind, Saxophone, Flute 등의 앙상블 팀과 함께 Big Band를 구성하기도 한다.

9월 30일 야탑 탄천변에서 열린 야외 사랑방 음악회는 색소폰과 금관, 두 앙상블 팀의 공연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꾸몄는데 윈드매니아 앙상블팀과 기타 회원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탄천으로 산책나온 사람들과 가족들은 귀에 익숙한 가요와 POP의 멋진 관악기 소리가 들리자 서서 구경하기도 하고 앉아서 구경



하기도 했다. 뜨거운 햇빛이 서서히 기울어지니, 한적한 오후 풍경이 연출되었다.

강이 흐르고, 음악도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고요한 시간은 언제나 계속되어도 좋을 것만 같다. 연주가 끝나자 어느 새 '양코르'라고 외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며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기량향상을 위한 야외 음악회는,

목관악기 팀과 금관악기 팀의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강사의 악기별 레슨, 두 팀의 앙상블 합주 지도를 받는 학습지원과 향상된 기량을 발표하는 '야외 음악회'의 개최를 공현연주로 기획했다. 야외 음악회는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탄천, 울동공원 등 성남 곳곳에서 총 3회 열렸다.

윈드매니아는,

관악기를 연주하는 클럽으로 2006년에 창립되었다. 약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악의 저변 확대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문화도시 성남이 되길 바라고 있다.

성 남 지 역
R O C K 밴 드
공 연 지 원
프 로젝 트

숙련지원+공헌축전

자율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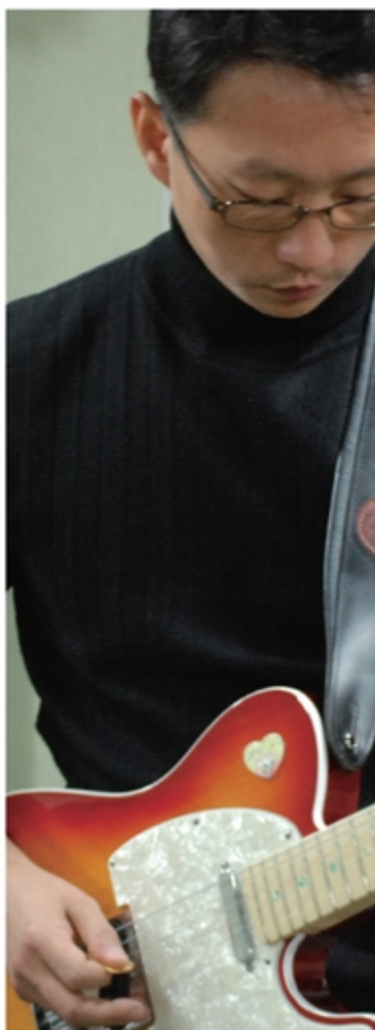
여전히 잘되고 있는 자율학습

1년 만에 찾아간 자율학습의 연습 공간인 스튜디오 창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자율학습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었다.

1년 전,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에피소드를 노래로 만들어서 앨범을 내는 것이 '자율학습'의 꿈이라고 답했던 인터뷰가 생각나서 현재 그 작업은 어찌되고 있는지 첫 질문으로 묻자 'No Comment'하겠다며 창작의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재치있는 대답이 돌아왔다. 2008년에 새로운 곡을 기대해봐도 될까? 꼭 들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근 함께 공연한 화사한 웃음을 짓는 여자 객원 보컬에 대해 물어보았다. 2007년 5월 송림중학교에 실습나온 영어 교생 선생님이었는데 객원 보컬로 참여시켜 자율학습의 일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사랑방문화클럽 축제와 2007 Studio CHANG 정기공연에도 함께 출연하였다.

스튜디오 창 의 주인장인 이현창님은 타의 모범이 되는 팀으로 자



울습을 꼽았는데, 성실한 연습과 노력, 높은 연주실력이 그 이유라고 했다. 자율습은 내가 인터뷰를 위해 잠시 머문 동안에도 쉬지 않고 연이어 3곡의 음악을 연습했다.

선생님들의 자율습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잘 되고 있었다. 이처럼 한결같지 않았다면 6년을 꾸준히 활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시 하게 된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자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자율습 화이팅! 선생님 화이팅!





성남지역 Rock 밴드 공연 지원 프로젝트는,

지역 내 소규모 Live Rock Band 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성남시민의 문화의식을 높이며 대중음악으로 개개인이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휴식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자율학습은,

송림중학교 교사 3인과 2회 졸업생 1인으로 구성된 4인조 락밴드로 6년째 성남, 분당을 무대로 삼아 7080세대의 가요 및 POP을 레파토리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 축제, 성남 락페스티벌, 길거리 공연, 불우이웃 돕기 모금공연 등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공연을 했다.

2 0 0 7

Studio CHANG

정 기 공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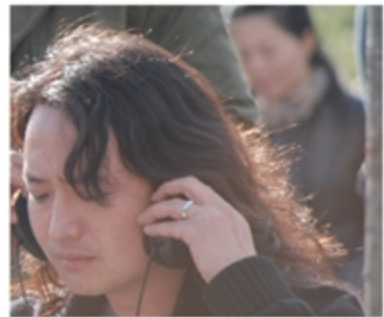
학습지원+숙련지원+공헌촉진

스튜디오 창

여섯팀이 하나되는 무대

10월 21일, 울동공원 야외무대에는 전혀 다른 색깔의 6팀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랐다. 팀원의 연령대와 음악색에 따라 팀 이름도 제각각이다. Rock밴드인 '감자탕'이 오늘의 첫 무대를 열었다. 경쾌한 락 사운드가 들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의자에 와서 앉는다. 멤버 이름도 등뼈, 연골, 당면, 감자란다. 감자탕의 공연이 끝나니, 7080 세대의 가요를 부르는 '처음처럼' 팀이 나온다. 감자탕과 처음처럼이라... 팀이름이 묘하게 잘 어울리는 듯 하다. 내 옆에 앉은 어른들은 당신들의 세대 음악이라며 크게 소리 높여 함께 노래를 했다. 무대 앞의 공터에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자전거를 타면서 둥글둥글 맴돌았고 몇몇의 여자아이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다. 공연에서 가끔 큰 소리가 나면 잠깐씩 얼굴을 돌려볼 뿐이었다. 음악이 울려퍼지는 평화로운 가을 공원의 모습이었다.

'Gentle Breeze'팀은 여성보컬의 목소리로 가벼우면서 듣기 편한 음악을 여러 곡 선보였다. 이 중, 남성 보컬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두 사람은 무척 행복해보였다. 그 다음은 POP-Ballad가 주 레파토리인 '하늘정원'





의 순서였다. 시원한 보컬의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발라드가 가을
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다음 순서는 멤버들끼리 단합이 잘 된다는
'Dixie Smith'이다. 7080 POP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주었
는데, 귀에 익숙한 가요와 POP으로 신나는 무대를 연출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Rock밴드인 '자율학습'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자율학습은 꾸준한 연습과 공연으로 실전이 가장 많이 다져져 있
는 밴드이다. 앞선 여러 팀들의 공연으로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
어, 자율학습이 공연을 할 때 제법 많은 사람들이 무대를 중심으
로 모여 앉아있었다. 사람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여 큰 호응을 얻으며 장장 3시간에 걸친 긴 공연이 모두 끝
났다.

여섯팀이 하나된 오늘의 무대는 공동의 스튜디오를 쓰면서 돈독
해진 정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연주실력을 뽐내는 자리였다. 이현
창 님은 스튜디오 창 의 레이블을 단 앨범 발매가 꿈이라고 했는데,
아마 2~3년 내에 이 꿈이 이뤄질 것 같다고 살짝 귀띔했다. 하루
빨리 스튜디오 창 의 레이블이 달린 앨범을 듣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2007 Studio CHANG 정기공연은,

스튜디오를 함께 쓰는 밴드들의 길거리 공연을 통해 일반인들이 문화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기록물을 제작하여 일반인의 전문가적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특유의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한다.

스튜디오 창은,

1999년에 시작하여 3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스튜디오 창은 길거리공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연, 소년소녀 가장돕기 공연 등, 1년에 2~3회의 정기공연과 소규모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스튜디오 창에서 함께 연습하는 팀은 7팀이다.



사 랑 , 愛 그 고 귀 함 에 대 하 여

공헌축전

21세기
혼성합창단

사랑, 그 감미로움을 선사하다

21세기 혼성합창단의 9번째 정기연주회의 주제는 '사랑'이란다. 사랑과 연상되는 단어는 무궁무진하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꼭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다. 행복한 사랑도 있고, 아픈 사랑도 있다. 오늘 이 공연에서 어떤 모습의 사랑을 볼 수 있을까?

합창으로 들려주는 '사랑'은 어떤 것일지 궁금했다. 프로그램을 보니, 성가와 가곡, 흑인영가, 가요, 뮤지컬 곡 등 다양한 곡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옷으로 맞춰 입은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네 파트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로 울려 퍼진다. 사랑과 관련된 여러 곡을 합창으로 들려주다가 광고음악으로 쓰여 유명해진 'You raise me up'을 솔로로 부르던 단원이 객석 맨 앞줄에 앉은 누군가를 무대로 올라오라고 청한다. 올라온 그녀에게 장미꽃 다발과 평생 함께 해달라는 반지를 꺼내 프로포즈를 했다. 깜짝이벤트에 잠시 당황했던 그의 그녀는 큰 망설임없이 프로포즈를 승낙했다. 관객들은 큰 박수로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비어주었다.

몽골의 '탈링 살호'와 김민영 양의 초청연주가 있었다. 고운 목소



리로 두 곡의 가곡을 들려준 김민영 양은 촉망받는 신예 소프라노이다. '탈링 살호'는 1996년에 설립된 몽골전통악기연주팀으로 팀원 몇몇이 한국에 오게되면서 '탈링 살호'라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12명이 활동 중이며 몽골전통음악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몽골전통악기이자, 한국의 해금처럼 두 줄로 이뤄져 말머리가 조각되어 있다고 해서 '마두금'이라고 불리는 모린 호르(morin huur)와 가야금과 비슷한 현악기 '야트가'(Yatga)의 연주가 있었다. 탈링살호의 백미는 호미(Hoomi)였는데, 성대와 가성대를 동시에 올려 저음과 고음을 함께 내는 발성을 말한다. TV에서만 봤던 호미를 직접 보게 되니 동시에 올려퍼지는 2가지 목소리가 새롭고 신비로웠다.

Black과 Red dress-code에 맞춰 자유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합창단원들은 사랑과 관련된 드라마와 영화음악을 솔로와 합창으로 들려주었다. 마지막 곡은 시스터액트의 'Oh! Happy Day'였는데 관객들은 'Oh! Happy Day'부분을 함께 불렀다. 재밌는 분장을 한 2명의 귀여운 댄서들은 노래에 맞춰 갖가지 제스처를 지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앙코르 곡을 청하니,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며 배달원으로 분한 단원이 등장하고, '짜장이 좋아!'라는 전체의 외침과 함께 노래가 시작된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안무를 하면서 재미난 앙코르 곡이 연출되었다.

딱딱하고 생각했던 합창공연과는 달리, 새롭고 재미난 요소를 중간중간에 집어넣어 볼거리가 풍성한 공연이었다. 오늘 21세기 혼성합창단이 들려 준 사랑의 여러가지 모습을 떠올리며 쌀쌀한 가을길을 따뜻한 마음으로 걸어보았다.

사랑,꽃 그 고귀함에 대하여..는,

합창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여러 공동체가 모여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아울러 합창단의 문화예술적인 수준 향상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전망하고 있다.

21세기 혼성합창단은,

음악 전공자와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단원은 34명이다. 뮤지컬, 가요, POP, 성가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국내 합창제, 연합예술제, 자선음악회 등 1년에 4번 이상의 공연을 참가하면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로 망 스 기 타 합 주 단 창 단 연 주 회

공헌축전

로망스
기타합주단

처음이 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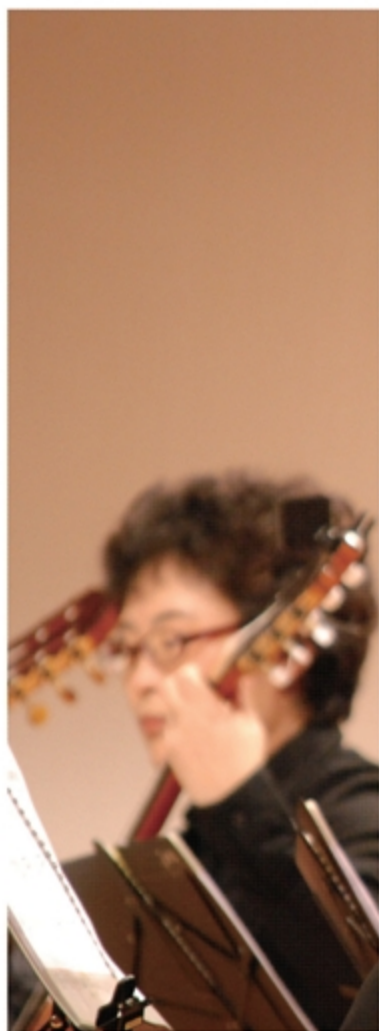
이미 각종 공연에서 로망스 기타합주단의 연주를 접해 본 나는 초 청메시지를 보고 조금 의아해했다. 창단연주회? 아직 창단연주회를 하지 않았다고?

10월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강당은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관객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창단연주회라는 뜻 깊은 자리라서 단원들의 가족과 지인이 많이 참석한 듯 했다. 단원의 가족과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객석에서 서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앉아 있는 가족들도 긴장한 눈빛이다.

스페인 민요 'Spanish Flower'의 합주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귀에 익은 영화음악들이 연주되었는데 기타로 듣는 영화음악들은 원곡과 다르게 잔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듀엣과 솔로 연주로 이어졌는데, 클래식 기타 주법을 알지 못하지만 각 음들을 정확히 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했으리라 짐작되었다.

듀엣과 솔로 연주가 끝나자 합주로 '코시코스'의 우편마차, '하얀 연인들' 등이 연주되었고, '마법의 성'이 연주되자 관객석에 앉은





사람들 모두가 기타연주를 반주삼아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 곡은 비틀즈의 'Obladi Oblada'였는데 원곡에서 주는 경쾌한 리듬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소 부드러운 느낌으로 편곡되어 재탄생했다.

큰 박수소리와 함께 창단연주회가 끝났다. 로망스 기타합주단의 창단연주회는 2년간의 꾀은 산고의 결과이다. 2007년 초에 합주단의 계획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창단연주회를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그녀들의 꿈이 성남문화재단 클럽지원프로젝트를 만나 더욱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연주회가 끝나자 가족들은 꽃다발과 축하 인사를 건넸고, 상기된 얼굴을 한 단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무대를 배경으로 하여 감동스러운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서로의 소리에 기대어 좀 더 아름다운 화음으로 자라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대견하게 여긴다는 이정미 단장의 인사말을 보며 로망스 기타합주단의 단원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서로를 다독여 함께 길을 걷는 길동무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이 느껴질 만큼 설렘과 기쁨이 함께 했던 자리였다.

로망스 기타합주단 창단 연주회는,

창단 이래, 정기적인 연습과 각종 연주회를 통해 기량향상을 도모하여 순수 음악단체로서 정식으로 정기연주회를 마련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모토로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로망스 기타합주단은,

2005년 7월, 여성문화회관에서 기타를 배운 계기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되었다. 현재 25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초청연주와 위문연주, 봉사연주를 꾸준히 하고 있다. 합주단의 활발한 활동이 클래식기타의 보급과 여성의 여가·취미문화의 확산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2 0 0 7 희 망 세 상 얼 쭉 !

공헌축전

성남 자원봉사모임
천상연+
맑은누리

약동하는 젊음을 담은 우리 소리

남한산성 입구에 들어서니 멀리서 울려 퍼지는 풍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주말을 맞이한 남한산성 놀이마당에 이미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마당을 에워싼 사람들은 갖가지 행색을 하고 있었다. 등산복을 입은 어른들은 풍물소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가족 나들이를 나온 듯한 아이들은 마당 주위를 뱅돌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놀이마당 앞에는 오늘 부대행사로 마련한 나무목걸이 만들기와 페이스페인팅이 진행중이었는데, 길게 늘어선 줄이 인기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향긋한 나무내음이 나는 목걸이를 직접 만들어 목에 걸었고, 페이스 페인팅을 받은 아이들의 볼은 꽃과 나비, 별로 채워졌다.

신명나는 마당의 시작을 길놀이로 알린 후, 사물놀이가 시작되었다. 사물소리가 자연 속, 사람 속에서 울려 퍼지니 먼 기억의 잊혀진 여러 소리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전통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게 여러 형식의 놀이를 마련했다는 기획서 내용이 떠올랐다.





명창이 나와 민요와 판소리를 들려주었다. 명창의 판소리는 무대 주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추임새로 신명을 더해 갔다. 흥에 겨운 어르신들은 무대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남한산성 마당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마당 옆에는 대동놀이를 위해 약 50여명이 분주하게 준비 중이었다. 서로의 삼색띠를 묶어주고 고깔과 상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니 잠시 후에 있을 대동놀이로 인해 모두가 들떠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쟁과리 소리가 마당에 멀리 퍼져나가면서 대동놀이가 시작되었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들이 마당 곳곳에서 휘날리고 사람들이 마당을 수놓는다. 쟁과리, 장고, 징을 든 사람들은 넓혔다가 좁혔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를 반복한다. 대동놀이를 시작한지 20여분이 지나도 천상연과 맑은누리에게 전혀 지친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마당에서 공연을 펼치는 사람이나 대동놀이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무대에 나와 춤을

추는 사람들 모두, 시간을 잊은 듯 했다. 해가 지니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동놀이를 그만두지 않았다. 더욱 신나게 마당을 뛰어다니고 팽과리를 치고 태평소를 울렸다. 이들의 약동하는 에너지가 남한산성 마당에 충만했다.
'얼썬! 희망 가득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2007 희망세상 열수!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청소년, 장애인 독거노인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어울려 신명나게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성남지역 청년회 풍물패들과 협력하여 본 사업을 기획했다. 성남지역 청년회 풍물패들이 결합하여 남한산성 놀이마당에서 신명나는 대동놀이를 펼치며 페이스페인팅,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성남 자원봉사모임 천상연은,

2, 30대 성남 청년들의 자원봉사와 자기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남 터사랑 청년회'의 봉사반이다. '터사랑 청년회'는 지역의 문제해결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청년단체로서 1989년에 만들어졌다. 지역 노인들을 위한 '행복한 밥상',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물레산타' 등, 꾸준하고 정기적인 자원봉사로 성남 곳곳에서 희망의 빛을 나누고 있다.



맑은누리는,

성남청년회의 자원봉사반이다. 성남에 거주하는 2, 30대 청년들의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는데 연계클럽으로 풍물과 오카리나를 배울 수 있는 소리누리, 여행팀인 강산누리가 있다. 2007년 10월 14일, 태평 4동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지역 어르신들 위 한 가 을 맞 이 '효' 큰 잔치

공현축전

민요사랑

12명의 소리꾼, 딸과 며느리되다

공연 시작 전, 중탑복지관 강당은 어르신들로 이미 꽉 차 있었다. 공연 준비를 위해 고운 한복을 입은 민요사랑팀과 무용팀들의 모습이 보이면 빨리 시작하자고 보채기도 하셨다.

구수한 입담과 재치있는 말투를 자랑하는 민요사랑 클럽지기 강점자님의 사회로 오늘 행사가 시작되었다. 민요사랑 팀이 한강수타령, 뱃놀이, 경북궁타령 등 귀에 익은 민요를 부르니 뒤에 계신 몇몇의 할머니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

이어서 무용공연과 풍물공연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박수로 끊임 없이 장단을 맞춰주셨다. '오늘 계신 할아버님과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 같으시다'라는 사회자의 멘트에 할머니들은 '자네들도 우리 딸이랑 며느리같아'라고 응답해주시기도 했다. 민요사랑 회원 한 분이 구성지게 옛 가요를 불러드렸더니 옛날 생각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복지관에서 노래를 제일 잘 하신다는 할머니들의 노래를 들은 후, 다함께 어르신들과 춤추고 민요를 불렀다. 하나로 섞여 춤추며 노래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다. 행사의 모든 순서가 끝나자 다음에도 꼭 다시 오라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연상 하셨다.

“이런 공연을 자주 마련하고 싶지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자주 열지지 못해요. 이번 클럽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공연을 마련하니 프로그램 내용도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클럽지기인 강점자님은 다음에도 이런 지원 기회가 있어서 더욱 많은 클럽들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요사랑이 마련한 잔치는 우리의 전통 소리에 대한 향수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었을 때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선사해 드렸다. 참으로 풍성한 하늘이 드높았던 가을 오전이었다.

가을맞이 '효'큰 잔치는,

지역의 복지관 및 각 시설에 계신 노인들을 위해 준비한 봉사공연이다. 판소리, 풍물, 한국 무용 등 교류가 있는 클럽과 협력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중탑복지관, 석운 노인 전문 요양원 등에서 총 2회 공연을 열었다.

민요사랑은,

2003년 우리 소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주로 활동하는 회원은 40~50대 주부들이며 꾸준히 우리 소리를 익히고 학습하며 봉사공연을 통해 높아진 기량을 확인하고 있다.



찾 아 가 는 연 주 회 아 름 다 움 을 듣 다

공현축전

보네르 플룻
오케스트라

행복이 담긴 플룻소리

행진곡이 강당에 울려 퍼진다. 아이들은 몸을 앞뒤로 흔들며 박자를 맞춘다. 몇몇의 아이들은 일어나서 발을 구르기도 한다.

라데스키의 행진곡으로 보네르 플룻 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연주회'가 시작되었다. 오늘 연주 레파토리는 동요와 클래식 소품이다. 아이들이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동요로 구성된 점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타이틀과 매우 잘 어울렸다. 도레미 송부터 아기염소까지 플룻 연주를 반주삼아 아이들은 목청껏 따라불렀다. 특히 아기염소를 연주하자, 가사에 맞춰 동작을 하고 폴짝폴짝 뛰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함께 동요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보네르(Bonheur)'는 프랑스어로 '행복'이라는 뜻이다. 오케스트라 결성 시, 단원들에게 오케스트라 이름을 공모했는데 '보네르(Bonheur)'라는 이름이 뜻도 좋고, 부르기도 간편하며 플룻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 생각하여 다수의 찬성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공헌연주를 하는 기관마다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혜은학교'는 연주가 끝나면 사인과 포옹을 해달라는 아이들이 많고, '성은학교'는 선생님들의 지도와 배려가 돋보인다고 했다. 한 번은 캐스터네츠를 아이들에게 주고 함께 박자를 맞추며 연주를 하려 했는데, 자칫 아이들이 무질서해질 수 있다는 선생님들의 만류로 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다고 한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케스트라와 아이들이 맞절을 하며 음악회가 끝났다. 마지막 곡인 '군대행진곡'에 맞춰 늙름하게 강당을 나가는 모습이 천진난만해보였다. 아이들에게 플룻소리가 행복을 나누는 소리로 남길 바라면서 성은학교를 나섰다.





찾아가는 연주회 '아름다움을 듣다'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플루트로 연주하여 지역 주민과의 화합과 어울림의 장을 만들기 위해 본 사업을 기획했다. 성남시 야탑동에 위치한 '성은학교'에서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보네르 플루트 오케스트라는,
플루트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호회로 25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에 창단되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곳곳에서 공연연주를 꾸준히 하고 있다.



지 역 주 민 을 위 한 울 동 사 랑 음 악 회

공헌축전

분당
색소폰클럽

공연을 통해 느끼는 카타르시스

땅거미가 지자 울동공원 야외무대에 화려한 조명이 들어온다. 오늘은 분당색소폰클럽의 울동 사랑 음악회가 있는 날이다. 날씨가 좋아서 일까,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야외무대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잡고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색소폰의 합주가 시작되었다. 야외에서 조명과 함께 음향장비가 더해지자 연주자들의 자유로움이 음악에서 느껴졌다. 7080 가요와 Old-Pop 등을 레파토리로 연주가 이어졌고, 평소에 분당색소폰클럽과 친분이 있는 지역가수 2분을 초대하여 노래를 듣고 함께 부르는 시간도 가졌다. 지역가수들은 분당색소폰클럽이 사회 복지시설에 봉사공연을 갈 때도 함께 동참하여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찬조공연으로 풍물굿패 우리마당의 사물놀이가 있었다. 흥겨운 우리가락이 가을저녁의 공기를 가르며 청명하게 다가왔다. 색소폰 공연에서 사물놀이의 공연까지 볼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맑고 높은 사물소리와 낮고 넓은 잔잔한 색소폰 소리가 자연에 어우러지니 오묘한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분당색소폰클럽 회원들이 준비한 모든 연주가 끝나자 분당색소폰클럽의 드럼을 맡고 있는 서정현님은 스틱을 내려놓고 마이크를 거머쥐었다. 재주꾼은 한 가지 재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분당색소폰클럽인들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누누히 강조했던 원도희 총무님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시원한 목소리로 가요를 열창하기 시작하니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일상에서 떨쳐버리고 싶은 걱정과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은 각자 다르다. 분당색소폰클럽의 지난 활동을 간간히 지켜본 나는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공연을 통해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분당색소폰클럽의 공연은 스트레스 솔루션이다.





울동 사랑 음악회는,

성남시민들을 위해 기획된 야외 음악회로 2007년 10월 6일, 울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성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성남사랑이 가득 담긴 음악회이다.

분당색소폰클럽은,

색소폰연주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의 즐기고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를 실시하고자 2003년 창립하였다. 현재 53여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성남 곳곳의 사회복지시설 및 탄천을 중심으로 봉사공연을 하고 있다.

제 4 회 분 당 수 채 화 展

학습지원+숙련지원+공헌촉진

분당
중앙수채화

꿈을 현실로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들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는 율갤러리에서 제 4회 분당중앙수채화 전시회가 열렸다. 총 19명의 작품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는 2차로 나눠 기획되었는데 1차 전시장인 율갤러리의 전시가 끝나면 현재 분당중앙수채화 회원들이 그림봉사를 하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2차 전시가 열린다.

2002년 여성문화회관에서 만들어진 '수채화 강좌'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주부들이 2006년 '분당중앙수채화'라는 이름으로 클럽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클럽인들 모두 개별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기모임을 통해 작품을 공유하고 두 달에 한번씩 품평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봉사는 2007년 7월부터 시작하였다. 국군수도병원에서 독서봉사를 하는 회원이 환우병에게 미술을 가르쳐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도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환우병을 동생처럼,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하루속히 마음 속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30여점의 그림을 찬찬히 보니, 재료와 기법이 다양하여 작품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묻어났다. 수채화라고 수채화물감만을 고집하지



얇고 아크릴 물감으로 칠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세밀한 묘사 대신 추상화처럼 멀리서 바라봐야 형상이 잡히는 작품도 접할 수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과 싱그러운 과일, 만개한 꽃이 담긴 작품들 덕에 여름을 한껏 더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전시회의 오픈식에 성남아트센터 이종덕 사장님과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국장님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모든 작품을 찬찬히 둘러보며, 참여한 회원 모두가 작가 수준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림에 대한 열정만은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분당중앙수채화클럽인들은 각자 개인전을 치루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작품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작품 세계에 공감하여 함께 이야기 나눌 관객이 생긴다면 내가 무척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무척 진솔했다. 분당수채화클럽인들은 자신의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무척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제 4회 분당수채화 展은,

정기 전시회를 통해 회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수채화 인구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1차 전시는 2007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율갤러리에서 열렸고 2차 전시는 2007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군 수도 병원에서 열렸다.

분당 중앙수채화는,

2002년 여성문화회관 수채화반에서 만나 전시회를 함께 열면서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결성을 하게 되었다. 현재 19명의 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그림 봉사활동을 매주 1회씩 하고 있다.

서울 국제 퀼트페스티벌 (SIQF) 참가 프로젝트

공헌축전

분당퀼트

천과 실로 남기는 시간의 흔적

서울 국제퀼트페스티벌 2007 (Seoul International Quilt Festival 2007)이 2007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제 1체육관에서 열렸다. 국내외 퀼트 작품 660여점이 전시된 이 행사에 '분당퀼트' 부스는 당당히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

2001년 일곱 명의 퀼터들로 시작되어 2007년 현재, 이십여명의 퀼터들이 모여 함께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한다는 분당퀼트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정기모임을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규방공예, 천연염색 등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법을 접해 풍부한 정서를 갖고 작품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거나 퀼트작품과 접목 또는 적용시킬 수 있을지 타진하고 연구한다. searching 'New'시간은 해외작가의 새로운 작품과 최근 전시회 자료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 국제퀼트페스티벌 2007'은 일본작가 초대전, 국내작가 초대전, 추대작가전, 가방특별전시회, Wearable Quilt 등으로 구성되어 볼거리가 풍성한 행사였다. 소재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거



칠게 표현하거나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서정적인 소재의 예쁜 그림 이외에 한국적, 동양적 소재를 다룬 대작들도 눈에 띄었다. 또, 이전에는 내추럴한 색상이 주를 이뤘다면 강렬한 원색을 이용한 작품이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랑스럽게 '분당퀼트'라고 쓰여있는 회원전시 부스 안에 클럽인 20명의 작품들이 빼곡히 채워져있었다. 타 부스와 다르게, 공간 분할에 신경을 써서 전시작품이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배치했고, 보다 편한 관람과 감상을 위해 관람객의 동선에 주목한 점이 무척 돋보였다. 특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양한 작품들은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세심하게 작품을 설명하고 기법에 대해 알려주는 클럽인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실험적이고 수준 높은 작품과 아마추어 퀼터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서울 국제퀼트페스티벌 2007'은 국제 행사에 당당히 참여하여 '분당퀼트'를 알리고 입지를 다져나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서울 국제퀼트페스티벌(SIQF) 2007 참가 프로젝트는,

200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클럽과 성남지역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작품 전시와 함께 클럽 홍보물, 사랑방문화클럽 홍보물을 배포하여 지역 내 회원을 더욱 유입하고 향후 국제 규모의 퀼트 페스티벌을 성남에서 개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분당퀼트는,

오랜 시간동안 정성을 드려 완성하는 퀼트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2001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작품의 완성과정을 워크숍으로 꾸준히 진행하고 국내외 전시활동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수의 회원이 개인전 개최 및 유명퀼트 전시회의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 남 시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영정)사진 찍 어 드 리 기

공헌축전

필카동호회
빛누리

수줍은 소년, 소녀로 돌아가다

야외에서 촬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앞섰다. 수진복지회관에 도착하니 곱게 차려입으신 할아버님, 할머니님이 일렬로 앉아계신다. 정해진 시간보다 많이 일찍 와서 기다리셨다고 한다.

실내 식당에서 촬영하기로 결정하고 조명기구 설치를 시작했다. 한 쪽에서는 화사한 얼굴표현을 위해 화장을 해드렸는데, 할머니 몇 분이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라본다며 거울을 보고 수줍어하시는 모습은 마치 소녀같았다. 드디어 일찍 오신 순서대로 촬영이 시작되었다. 촬영이 끝난 어르신들은 빛누리 회원들의 손을 잡고 연상 '젊은이들, 고마워,고마워,'라고 말씀하셨고 회원들은 건강하시라는 당부의 말로 응대했다.

필카동호회 빛누리는 3년 전부터 분기별로 복지관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여 장수사진을 찍어드렸다고 한다. 이 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장수사진 봉사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비가 서서히 그치기 시작했다. 나는 장수사진을 찍고 나오는 어르신들을 위해 야외에서 몇 장의 사진을 찍어드렸다. 밝게 웃으시는 모습, 미소짓는 모습, 다소 긴장된 모습 등이 카메라에 담겼고 줌인세상 김종식 님이 가져온 컬러프린트로 제일 잘 나온 사진 중 1장씩 출력해서 선물로 드렸더니 이쁘게 나왔다면 모두들 고마워하셨다.

생의 마감을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것. 장수사진에 담긴 여러 의미가 떠오르면서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으로 장수사진을 찍으실까 하고 감히 짐작해봤다. 그리고 내가 장수사진을 찍을 나이가 되고, 피사체로 사진을 찍히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다.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단다. 내 딸과 내 아들이, 나의 아이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성남시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영정)사진 찍어드리기는,

성남시 각 구의 동 소속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생활수급대상 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찍어드렸다. 수진복지회관 외 성남 내 복지관에서 2007년 9월과 10월, 월 2회씩 총 4회 진행되었으며 단순한 취미활동의 사진촬영을 넘어 지역사회에 봉사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필카동호회 빛누리는,

필름카메라를 중심으로 하여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오프라인 모임으로 결성되었다. 매주 모여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 현상을 함께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사진동호회로서 필름카메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산도깨비의 첫 번째 창극 독도거북이

공연축전

가족놀이공간
산도깨비

참살이의 본보기가 된 독도 거북이

공연시작 20분 전, 마지막으로 무대의 소품을 챙기고 배경을 손 보느라 모두가 분주했다. 아이들은 강당의 앞문과 뒷문, 휴게실에서 누군가 장단을 시작하면 함께 치다가 흩어지다가를 반복했다. 공연 전이라 긴장할 법도 한데, 어느 누구 하나 긴장한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간 많은 공연 덕에 달인들이 되었나보다.

오늘 준비된 공연마당이 산도깨비 아이들의 길놀이로 열렸다. 오늘 모인 사람들이 모두 신명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열릴 공연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었다. 길놀이에 이어 소리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박애리 선생님의 지도로 추임새 넣는 법과 꽃타령을 배웠다. 이 때 배운 추임새 중 '좋다', '얼썬'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환호의 휘파람 소리를 대신했다.

4~5살로 보이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줄지어 무대로 올라온다. 덩더쿵유치원 가족의 '밥상' 노래를 들을 차례이다. 우리 선조부터 이어지는 소중한 자연의 먹거리에 관련된 노래였다. '쌀밥, 보리밥, 조밥, 콩밥, 팥밥, 오곡밥, 된장국, 배추국, 호박국, 무국, 시금치국, 시래기국,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잣김치, 동치미, 깍두기, 가지나물, 호박나물, 콩나물, 고춧잎, 무말랭이, 짬아찌'. 노



래를 들으니 6살에 갔던 대고모 할머니의 시골집에서 맛 봤던 무국과 고춧잎 반찬이 생각났다. 저 아이들도 먹어봤을까?
가족 풍물패 '신바람'의 영남사물놀이가 끝나고 택견전수관의 귀여운 아이들의 택견 시범을 본 후, 가악금과 해금, 대금의 연주를 들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나라 전통 음악과 소리를 전부 듣는 느낌이다.



드디어 본 마당인 창극 '독도 거북이'가 시작되었다. 땅에서 나오는 당근과 시금치를 싫어하고 피자와 햄버거, 콜라만 골라먹는 용왕님은 병을 얻게 되고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주인공인 독도 거북이가 토끼를 찾으러 물으로 온다. 물에서 토끼를 찾아 바다로 데려가나 '내 간은 꺼내서 물에 두고 왔다'는 괴로 상황을 모면한다. 물에 나온 토끼는 용왕님 병의 원인은 인스턴트 음식과 외국 음식 때문이라고 알려준다. 우리 땅에서 나온 찰진 밥과 김치를 먹어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창극은 끝났다.



각종 등장인물과 동물로 분한 아이들과 엄마들의 연기는 참으로 빛났다. 함께 활동하는 놀이터인 산도깨비의 일원들이라 서로의 호흡까지 잘 맞았다. 창극 독도 거북이는 우리나라의 옛날이야기

와 속담, 전설을 내용과 줄거리에 섞어 여러 재미를 주었다. 보는 재미와 아울러 생활양식의 변화가 아이들의 식단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 몸에는 우리 먹거리가 참살이의 기본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좋은 공연이었다.

산도깨비의 첫 번째 창극 '독도 거북이'는,

가족, 이웃이 함께 만들고 연기하는 창극을 통해 가족의 화목과 이웃 간의 소통을 견고히 하고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울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2007년 11월 11일,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상연된 산도깨비의 첫 번째 창극 '독도 거북이'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 가락과 춤, 노래를 친근하게 보여줬다.

산도깨비는,

45가족, 120여명의 분당 수내동에 위치한 가족들의 놀이터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한 만남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돕고자 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활동으로는 풍물, 가야금, 해금, 판소리, 태평소, 탈춤 등이 있다.



석운 노인전문 요양원 어르신과 함께

공현축전

서현풍물패

푸른 가을날, 하나된 우리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석운 노인 전문요양원에 떠나기 전 서현문화의 집은 몹시 분주했다. 어르신들과 함께 먹을 떡과 과일을 챙기고 악기와 의상을 옮기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오늘 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 어르신들이 공연을 좋아하실까?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잘 나올까? 인터뷰 시간은 언제 좋을까? 등등...

악기를 싣고 그룹으로 나뉘어 석운 노인 전문요양원으로 출발했다. 가을하늘이 드높고 쾌청했다. 석운 노인 전문요양원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건물의 창문으로 모여서 관심을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제외하고 마당 앞 계단과 주변에 어르신들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현풍물패의 판굿이 시작되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에 어르신들은 박수로 어깨춤으로 장단을 맞췄다. 신나는 판굿이 끝나고 민요사랑의 민요공연이 있었다. 어르신들도 흥겹게 민요를 부르며 함께 행사를 즐겼다. 서현문화의 집에서 함께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무용팀과 스포츠댄스팀의 공연이 이어진 후, 서현



풍물패의 사물놀이가 있었다.

공연 중, 사소한 실수들이 있으면 공연자들은 “우리 모두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어르신들, 잘 못해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해주세요.”라고 이해를 구하는 말이 더욱 정감있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대동놀이가 벌어졌다. 덩실덩실 춤 추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어린 아이의 표정처럼 맑고 순수했다. 거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휠체어에 앉아 손뼉을 치고 손짓으로 춤을 대신했다. 요양원의 관계자와 선생님들도 함께 춤을 추며 그 시간을 즐겼다. 파란 가을하늘 아래, 팽과리와 북 소리는 높게 멀리 퍼져 나갔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춤은 끝날 줄 몰랐다. 뷰파인더로 보이는 얼굴들은 모두 건강하게 웃고 있었다.





석운 노인 전문요양원 어르신과 함께는,

서현풍물패가 중심이 되어 무용, 민요 등 여러 문화클럽들과 연계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공연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봉사를 실천한다. 노인분들께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클럽간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서현풍물패는,

서현문화의 집에서 풍물을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 2005년 창립된 풍물단체이다. 현재 단원은 33명이며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창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노인잔치 및 각종 대회 등의 초청 공연과 성남 곳곳의 사회시설에서 봉사공연을 하고 있다.

제 2 회 성남 누드크로키 동 호 회 전 시 회

공현축전

성남
누드크로키

인체의 살아있는 곡선을 그리는 누드크로키

누군가는 먹으로, 누군가는 목탄으로, 누군가는 연필로 그렸다. 손이 한 번 빠르게 지나가면 손 끝에서 나타난 선은 인체의 일부가 된다. 생략되기도 하고 지나치게 강조되기도 하면서 형체가 갖춰진다. 창조주가 만든 곡선 중에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곡선은 인체의 곡선만큼 자유롭고 부드러운 곡선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크로키는 보이는대로 그리면 되지만, 총체적인 부분을 감각적으로 빠르게 잡아내야 하는데, 감각을 살리고, 이런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고 한다.

성남누드크로키 동호회의 전시회는 수많은 인체들의 갖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느 하나 닮은 꼴 없는 그림들에서 작가 개개인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형체의 특징 및 입체감을 단시간에 그리는 그림인 크로키만을 생각했는데, 그와는 다르게 세밀한 채색이 되었거나 유화로 그려진 작품도 볼 수 있었다.

성남누드크로키의 회원들의 대다수는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이다. 전시이력과 입상경력이 화려하고 타 도시의 누드크로키전시에 초



대작가로 위촉되기도 한다. 올해까지 해외교류전에 참여한 작가도 다수이다. 하지만, 비 전공자 회원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 함께 참여했다. 작가와 동호인들이 함께 하는 전시회는 참여작가들의 유대가 돈독해지고 동호인들도 작가들과 함께 전시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성남누드크로키동호회 회원들의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는 동안, 문득 나도 인체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편도 아니고, 그 멋진 곡선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시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꽤 오랜만이라 반가운 기분이 들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전시가 가진 힘이 아닐까 생각하며 다음 그림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제 2회 성남누드크로키 동호회 전시회는,

2007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성남여성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성남시 작가의 창작진흥과 지역미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는데, 총 35명 작가, 6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성남누드크로키는,

2005년 1월, 문화 카페 '탐아츠'에서 시작되었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성남의 작가들과 인근지역에서 누드크로키에 관심있는 작가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크로키 작업을 한다.



성 남 시 민 과 을 지 대 학 교 학 생 을 위 한 가 을 음 악 회

공헌축전

성남
목관앙상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공연시간이 가까워지자 수업을 끝마친 학생들이 하나 둘씩 관객석을 채워나갔다. 성남목관앙상블에서 클라리넷을 맡고 있는 김용우 고문은 을지대학교 교수이다. 김용우 고문은 관객석에 앉은 학생들을 연상 챙긴다. 학생들이 '교수님 잘하세요!'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짜르트의 경쾌한 Sonata No.1.Rondo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친숙한 클래식 소품들이 목관악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목관악기의 음색은 자연을 연상케 한다. 조용한 숲 속의 새 소리, 물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 하고, 때로는 노을 진 들판을 배경으로 평온하게 누운 농부가 떠오르기도 한다. 금새 따뜻한 봄이었는데, 어느새 더운 여름, 가을날 이다.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클래식 곡들이 끝나자 우리 가곡 '님이 오시는지', 시크릿 가든의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영화 스틱의 삽입음악 'Entertainer'가 연주되었다. 연주회의 마지막 곡인 쇼스타코비치의 'Jazz Suite No.2 waltz'가 연주되자 학생들은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나온 음



악이라고 소근거리기도 했다.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10년 이상 꾸준히 연주활동을 한 성남목관앙상블 단원들은 현재 2~3개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중이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바쁘지만 '정말로 음악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연습하고 발표하는 모습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광경이었다.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에 따라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이 연주되었다.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로 들었던 곡인데 목관을 통해 나오는 멜로디는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곡이 주는 감동은 흡사했다. 연주하는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음악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 자리를 축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어가는 가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성남목관앙상블이 마련한 가을음악회는 우리에게 멋진 음악과, 잔잔한 감동을 선사해 준 귀중한 자리였다.





성남시민과 을지대학교 학생을 위한 가을음악회는,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음악으로 상호 공감대를 넓혀 성남의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이미 여러 행사를 통해 알려진 본 시가지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키며 성남 내 위치한 대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성남목관앙상블은,

사회인 오케스트라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연주활동을 하고 있던 사회인들이 2006년 결성한 앙상블이다. 현재 10명의 단원이 함께 목관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며 단원의 연령대는 30대~50대까지 다양하다. 탄천변 거리공연과 자활후견센터, 장애우 보호센터 등의 봉사공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공연을 지속할 예정이다.

나 라 사 랑 T 셔 츠 페 인 팅 페 스티 벌

공헌축전

전통문화를 찾는 사람들
성남서예청년작가회

8월 18일, 날씨가 꽤 뜨겁다. 분당 율동공원에 큰 천막을 치고 천막 둘레로 빨래줄을 묶었다.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물감과 붓을 정리한다. 오늘은 티셔츠 페인팅 페스티벌이 있는 날이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삼삼오오 앉아서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성남서예청년작가회의 작가들이 도우미가 되어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함께 도왔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 나온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를 주자 아이들은 가슴 가운데에 태극기를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크게 쓰기도 하고, 꽃과 무지개가 가득한 예쁜 꽃밭을 그리기도 했다.

2000년부터 우리나라 전통의 서예작품 및 탁본, 비문 등 연구하고 제작과정을 재현하여 시민들에게 전통 서예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성남서예청년작가회는 2001년부터 분당 중앙공원에서 현장 휘호 쓰기, 탁본 체험, 독도사랑 티셔츠 그리기 등 나라사랑을 주제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티셔츠 그리기는 주재료인 티셔츠의 비용이 높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일정정도의 체험비를 받아야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클럽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체험비의 부담없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접했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물감이 마르기 까지 빨래처럼 널려있는 티셔츠를 보는 아이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며 서로 자랑하는 모습이 귀엽다. 이런 체험은 쉽게 하기 어려운데 오늘 참 잘 나왔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오늘 행사가 더욱 뿌듯하게 느껴졌다. 이런 행사들이 내 생활 주변 가까운 곳에서 항상 열려 우리 아이들이 그 곳에 가면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가 유난히 바람에 필력이다.

아 이 들 과 함 께 한 우 리 지 역 생 태 기 행

공헌축전

성남 문화기행
여행꾸러미

10월 3일, 외갓집 가는 날

건네 받은 쪽지에는 4명의 이름이 써 있었다. 3조 김예지, 유다영, 최나라, 김 찬. 우리 3조 아이들이다. 1일 선생님을 부탁받아 나는 3조 선생님이 되었다. 4학년인 예지에게 장난꾸러기 2학년 찬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역시 4학년답게 예지는 무척 어른스러웠다.

생태기행에 참여한 아이들은 모두 상대원 푸른학교 아이들이다. 지역의 '방과후 교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푸른학교는 농촌 체험마을기행과 탄천 자전거 기행을 함께 할 참가자이자 파트너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17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양평 신론리 '외갓집 체험마을'. 우리 고유의 전통마을 체험으로 1일 체험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미리 뗏목을 탄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서인지 아이들 모두 연상 뗏목을 빨리 타고 싶다고 했다.

도착하자마자 해설과 안내를 도와주실 이모님의 1일 체험설명이 있었다. 고구마 캐고, 송어 잡고, 뗏목 타고, 벼베기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의 마음 속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오늘 '정

말 다 하고 집에 갈꺼야!’ 라는 마음의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모두 지금부터 열심히 신론리를 누벼보자꾸나.

옥수수밭으로 가기 위해 트랙터에 올랐다. 옥수수의 수확철은 여름인데 10월에 옥수수를 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17명의 아이들과 7명의 어른들이 두 개씩 따고도 남은 만큼의 옥수수가 그 자리에 열려 있었다. 조금 늦게 파종된 것인데, 탄 옥수수 중 많이 마른 옥수수는 씨앗으로만 쓰일 수 있단다. 이 날 모은 옥수수는 오후의 간식거리 중 하나였다. 내가 탄 옥수수를 산지에서 직접 맛보는 경험은 아이들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떡메는 무거워

체험본부 앞마당에서 떡 만들기를 체험했다. 아이들에게 손을 깨끗이 씻으라 했으나 자갈밭에서 손 장난을 한 그 손으로 찹쌀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들 크게 껄념치 않아 했다. 아이들은 떡메로 덩이를 치면서 무척 즐거워했다. 떡메가 무겁다 하면서도 양쪽에 서서 박자에 맞춰 한번씩 번갈아 내리치며 떡이 완성되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해서 물놀이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후에 날씨가 조금 포근해졌다. 물놀이가 가능한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은 송어가 풀려있다는 개천에 들어가 송어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맨손으로 정말 송어를 잡을 수 있어?' 하며 의아해 했는데, 6학년 영희는 2마리나 송어를 잡아 '장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직접 잡은 송어를 즉석에서 회로 만들어 우리 모두 나눠먹었다.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이었다.

송어잡기가 끝나자 강변에 있던 뗏목에 아이들은 삼삼오오 올랐다. 샷대로 뗏목을 조종하여 강의 한 가운데까지 나가서 서로의 뗏목을 밀쳐내기도, 밀어주기도 했다. 신난 아이들의 입가에서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외갓집 체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하루종일 자연을 벗삼아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버스 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하늘이 아이들의 10월 나들이를 위해 오후까지 비를 참아준 것 같았다. 참으로 기분 좋고 건강한 하루였다. 우리 3조, 오늘 하루 선생님 잘 돌봐줘서 고맙다!

정 기 전 시 회 개 최 제 4 회 수 램 회 展

공헌축전

수람회

수채화를 담은 사람들

수람회는 수채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인데, 수채화에서 '수', 사람에서 '람'을 따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수람회의 제 4회 정기 전시회가 열렸다. 2001년부터 함께 활동했으니 6년을 동고동락한 회원들은 이제는 식구나 다름없다고 스스로없이 말한다. 처음에는 10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3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 주로 활발한 활동 연령대는 4~50대이다.

작가로 인정받는 회원들은 약 15명 정도이다. 각종 국전 및 대전에서 입상을 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작가와 동호인들이 서로 섞여서 작품활동을 하다보니, 수채화에 대해 저절로 배우는 점이 많다고 한다.

여성문화회관에는 23명의 작가, 약 50여점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림의 소재로 풍경이 많이 보여 성남의 모습을 담은 회원이 없으니냐고 물었더니 몇몇 회원들이 간간히 탄천, 남한산성, 불당리, 분당계곡 등의 풍경을 수채화로 담기도 한다면서 성남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향후, 성남의 여러 모습을 그려서 전시할 기

회가 생긴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수채화의 매력은 물을 다루는데 있다. 최대한 물의 효과를 살려줘야 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한다. 또 원하는 색상을 만들고 색칠을 하면서 은근히 빠져들게 되는데 해보야 그 매력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수람회는 사회복지시설에 그림 체험행사를 마련하려고 계획 중이다. 6년간 좋은 사람들을 만나 그림을 그리고 큰 기쁨을 나누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수람회 회원들이 모여앉은 곳에서는 웃음꽃이 떠날 줄 몰랐다. 그녀들의 미소 띤 얼굴이 수채화를 닮은 듯 했다. 나는 오늘 수채화를 닮은 수람회 사람들을 만났다.





제 4회 수람회 展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참여한 개인의 성취도를 고취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로 2007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성남여성문화회관에서 23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약 50여점이 전시되었다.

수람회는,

2001년부터 분당 정자 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함께 수채화를 그리며 만난 주부들의 모임으로 2005년 7월 제 1회 정기전시회를 가졌다. 현재 회원은 30명이며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그림을 그린다.

제 1 회 성남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회

공헌축전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있는 곳

음악을 통해 옛 기억과의 조우하다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제 1회 성남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회는 발 디딜 틈 없이 대성황이었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클래식음악으로 인연을 맺은 동호회 회원들과 인터넷카페 회원들, 음악관련 클럽인들이었다. 많은 참석자들의 머리색이 희끗희끗하다.

첫 감상곡은 Nat King cole의 'Quizas,Quizas,Quizas'이다. 클럽지기 김일식 님의 간단한 곡과 뮤지션 설명이 끝나자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늘 감상할 곡들의 리스트를 보니, 클래식, 올드팝, 샹송, 간소네,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2부에서는 현악 4중주단을 초청하여 실내악 연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참석자들은 음악을 잘 듣기 위해 눈을 감거나, 순서지에 있는 곡 설명을 돋보기안경으로 찬찬히 들여다 보기도 했는데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여러 표정들은 음악을 통해 옛 기억과 조우하는 듯했다.

2부 실내악 연주는 귀에 익숙한 유명 클래식 음악들이 현악 4중주의 손 끝에서 흘러나왔는데 첼리스트 김태우씨는 곡마다 작곡

제공하여 강한 공감대와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였는데, 이번 음악회의 개최로 면대면인 오프라인을 통해 더욱 단단한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있는 곳'의 인터넷 카페를 찾은 나는 오래 전에 즐겨들었던 곡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곡이 담겨있는 CD를 찾아서 들어본다. 'Misty Moonlight Waltz..' 한참 즐겨들었던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앞으로 5년 후, 아름다운 음악회에서 들었던 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면 2시간이 1시간 같았던 이 날이 생각날 것이다. 5년 후 그 날,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있는 곳의 CD를 찾아 오늘처럼 듣고 있겠지. 행복한 오후다.



동요와 함께하는 그림책 이야기 나라

공현숙진

이야기야 놀자

모두가 내 아이 같은 마음으로

“네~!”

대답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렁차다. 책 테마파크 내의 도서관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야기야 놀자팀의 ‘동요와 함께하는 그림책 - 이야기 나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화면 슬라이드에는 그림책이 나오고, 앞에는 구연자가 구수한 입담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현재 구미교회 부설 구미어린이도서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행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야 놀자팀은 2005년부터 지역 아동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였다. 그림책을 설명하고 읽어줄 뿐만 아니라 동화책과 잘 어울리는 음악을 그 자리에서 연주하여 더욱 생동감 있게 동화를 전한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 전과 후에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동요를 골라 율동과 함께 부른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구연자가 캐릭터 분장을 하여 동화구연을 하기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 모습이 신기한지 더욱 더 몰입하는 모습이다.

보통 1회당 동화 2편과 동요 2곡을 들려준다. 이 커리큘럼은 2개



월에 한번씩, 계절별로 의논하여 주마다 계획을 잡아놓는다. 구연자는 5명, 악기연주 2명, 동요 담당 1명, 영화 동화담당 1명, 손유희 1명으로 총 10명의 엄마가 이야기야 놀자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현재 100회 가량의 공연을 했는데, 이러한 공연을 만든 이유는 우리의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재미 이외에 느낄 수 있는 다른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모두 내 아이 같은 마음으로 책을 고르고 읽어 줄 준비를 하면 신나고 재미있다고 한다. 또 엄마들의 구수한 입담이 살아있는 재미난 이야기 시간은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서순화를 도움을 주고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야기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보니 어릴 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던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다. '이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실감나진 않았지만, 정겨운 어흥소리였어..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 + 한지를 사랑하는 모임 전시회

공헌축전

장애인 민화반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 +
한지공예

현대의 사랑방에 초대받다

민화와 한지공예품의 조화로운 분위기와 함께 전시장이 꽉 차게 느껴졌다. 벽에는 민화가 걸리고, 전시장 중간과 곳곳에는 한지공예 작품이 놓여있다. 한 쪽에서는 오픈식을 위한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고 몇몇 클럽인들은 본인의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전시회 축하를 위한 꽃바구니와 화분이 속속들이 도착했다.

올해로 7회째 정기 전시회를 맞이한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은 성남장애인복지관을 모태로 2001년에 생겨나 개관이후, 지금까지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액자에 담겨 있는 그들의 민화는 교과서나 자료집에서 볼 수 있었던 민화와 조금씩 달랐다. 뚜렷한 경계 대신에 선을 퍼뜨려 모호한 경계를 표현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그림의 바탕색이 칠해져 있기도 했고 물체들이 겹쳐 추상화의 느낌을 주는 작품도 있었다.

한지공예는 정자동과 이매동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김임진 강사가 두 개 동의 강사로 나가면서 인연이 맺어졌는데, 각종 행사와 전시 때는 연합하여 함께 전시에 참여한다. 한지공예의 매력은 남녀노소 모두 쉽게 접할 수 있고, 정성을 들



인 만큼 작품으로 그 정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시된 작품들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과 콘솔, 책상 등의 생활 소품과 서랍장, 탁자, 화장대 등의 큰 가구들까지 다양했다. 가구들의 제작기간은 길게 1년까지 소요된다고 한다. 오히려 작은 소품들이 섬세한 손길을 요구하여 만들기 더 어렵다고 한다. 한지공예라고 해서 한지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질의 특이함을 나타내고 싶거나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복합적으로 섞어서 만드는데 그 재료로는 나무, 돌, 철사 등이 이용된다.

전시된 작품 중에 2명의 작가 이름이 석인 예단함에 대해 물었더니 노부부가 함께 만들었다고 한다. 그 예단함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말해주는 듯 했다.

두 클럽에서 각각 1명씩, 남녀 2명의 사회로 오픈식이 시작되었다. 오픈식에는 여러 클럽의 클럽지기와 클럽인,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국장과 김환실 씨, 정기영 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오픈 축하공연으로 로망스기타합주단의 기타연주가 있었는데, 전시장에서 잔잔히 울리는 기타소리가 합쳐져 전시장이 현대의 사랑방 처럼 느껴졌다. 내가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르는...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 + 한지를 사랑하는 모임 전시회는,

장애인 민화반과 한지공예가 함께 연 전시회이다. 사랑방클럽축제의 전시를 준비하면서 교류하게 되어 민화와 한지공예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직결되고 잘 어우러진다는 점에 뜻이 모아져 함께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소망을 그리는 사람들의 전시회는 민화라는 요소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대변하고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전시회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역사회 교류활동의 기회로 삼는다. 정기 전시회는 올해로 7회를 맞는다.

한지를 사랑하는 모임 전시회는 수년 째 한지공예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클럽인들의 작품발표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아울러 우리 고유 한지공예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린다.



2 0 0 7
올해도 풍년일세
얼 씨 구
중 을 시 고

학습지원+숙련지원+공헌촉진

풍물굿패
두령

금수강산에 풍년이 왔네

10월 14일, 남한산성 놀이마당에서는 풍물굿패 두령이 2007년의 풍년을 축원하고 감사의 제를 올렸다. 시민 모두와 풍성한 가을의 넉넉함을 함께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 한다.

풍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는 풍물굿패 삶터, 소리샘, 터울림이 협연하여 놀이마당에서 울리는 풍물소리는 더욱 더 크고 힘찼다.

풍물굿패 두령에서 두령은 '논두령'에서 따왔다고 한다. 예로부터 논두령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논두령에서 함께 일했고, 일이 힘들면 노래를 부르며 일하기도 하고, 쉬기도 했다. 이렇게 함께 일하고, 즐기는 모습이 공동체 놀이형태에 가까운 풍물굿이라 생각했으며, 마당과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이 논두령이라 생각해서 '두령'이라 지었다고 한다.

오늘 행사 순서는 판굿, 고사 비나리, 고동소리(북의 울림), 호남 우도굿 앓은반, 민요와 함께 다같이 놀아보세, 개인놀이, 고깔 소고놀이, 부포 개인놀이, 설장고, 대동놀이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관긔으로 시작하여 신명난 마당이 한 차례 지나간 후, 고사 비나리가 있었다. 비나리는 고사를 지낼 때 부르는 소리로 한해의 액이나 마을의 액을 물리치기 위한 액풀이와 축원하는 덕담의 살풀이로 이루어진다. 이 날, 비나리는 한 해의 무사함과 풍요로움, 여기에 모인 시민들과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

다음으로는 고동소리라 하여 북의 울림이 있었다. 국악기 중 북소리는 인간의 심장소리와 가장 닮았다고 한다. 온누리에 북의 고동소리로 인간의 활력소가 되기를 염원하였다. 고동소리의 다음 순서는 호남우도굿 앓은반이었는데 호남의 서쪽 지방의 풍물긔으로, 앓아서 연주하는 형태를 '앓은반'이라 지칭한다.

정신없이 민요와 개인놀이 등이 지나가고 설장긔의 순서였다. 설장긔의 설은 일년 중 제일 으뜸이라 하여 설날을 뜻하는 말로 장긔가락의 으뜸이라는 뜻이다. 대형의 변화가 다양하고 무용적인 요소까지 있어 자연에서 보니 더욱 아름다웠다.

마지막 대동놀이에서 전체 참여자와 관객이 하나 되어 길삼놀이(지경놀이)를 했다. 어릴 적 운동에서 친구들과 함께 했던 오색매

수 정 노 인 복 지 관 어르신과 함께

공헌축전

터줏
풍물패

일상이 되어버린 봉사공연

터줏 풍물패의 판굿으로 오늘의 행사가 시작되었다. 강당 밖에서부터 오늘의 행사를 알리는 판굿소리는 강당 안에서도 오늘 행사의 흥겨움을 미루어 짐작하게 했다. 신나는 판굿으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5명의 가락장고는 어깨춤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판굿부터 춤을 추시던 몇 분의 어르신들은 새로운 악기와 가락이 나올때마다 앞에 나와서 춤을 추셨다. 신명나는 태평소 독주가 끝나자 한마음 소리회의 민요로 이어졌다. 8명의 소리꾼은 향아리에 박을 얹고 키를 굽으며 경기민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구성진 목소리와 독특한 악기소리로 인해 민요가 더욱 흥겨운 느낌을 주었다.

다음은 천둥의 소리 모듬북 차례이다. 5명이 한 마음으로 치는 모듬북 공연(난타)은 힘과 리듬감이 있어 5명이 함께 북을 칠때는 가슴까지 울림이 전해졌다. 다양한 장단을 구사했는데 팔짓과 몸짓이 커서 보는 재미까지 더해진 공연이었다.

서현풍물패의 사물놀이 차례이다. 한 자리에 앉아 사물의 리듬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보여주니 우리 민속 장단의 아름다움

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악기를 치는 사람, 민요를 부르는 사람, 춤을 추는 어르신들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사진에 담고 싶은 욕심에 연신 셔터를 눌렀다.

수정 노인 복지관에서 노래를 잘 부르신다는 두 할아버님의 노래를 들은 후, 터줏대감들이 마련한 떡을 나누며 오늘의 공연이 끝났다. 풍물 및 국악공연을 자주 다니다보니 어느새 공연이 끝나면 풍성히 잘 놀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사람냄새나는 공연을 보여준 여러분과 맛있는 점심을 나누며 오늘 공연에 대한 감상과 느낌을 말씀드렸다. 봉사공연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면 웃으시는 클럽인들의 얼굴이 유난히 빛나보인 하루였다.



오프라인 사랑지기 바탕 지난 1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김환실



'우리'라서 가능했던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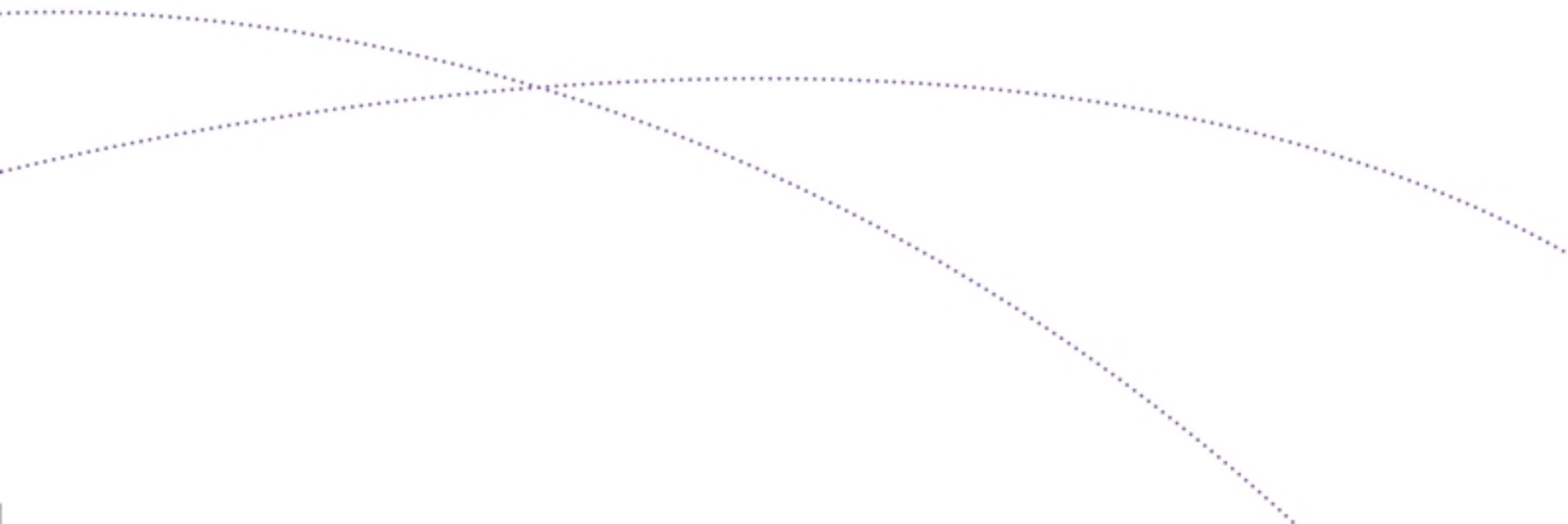
저는 실무자로서 직접 사랑방문화클럽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성남 시민들의 욕구가 가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욕구를 확신하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여기까지 정신없이 흘러왔네요.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은 정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클럽인들과 성남문화재단이 함께 실천을 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참여한 모든 클럽인들은 '나만 생각했으면 이렇게 못했을거야. 우리라고 생각했으니 이렇게 한 거지'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1년, 함께 고민한 시간들

오프라인 사랑지기로서 제일 보람있었던 행사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클럽지기 모임 창립을 위한 3차 워크숍'이에요. 막상 사랑방클럽축제 때는 행사 진행을 챙기느라 행사를 느낄 만한 여유가 크게 없었거든요.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원 프로젝트인 공모지원사업은 문화클럽의 기량을 표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주변에 사랑방문화클럽이 홍보되었다는 점, 그



사랑방과 사랑방을 잇다

사랑방문화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사랑방문화클럽 사이에서 가고 역할을 하는 문화사랑방과 문화통화 넘실, 온라인 사랑방문화클럽 뉴스레터, 사랑방문화클럽 통신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 남 문화통화사업 문화사랑방과 문화통화 넘실

문화사랑방

성남 문화통화사업의 두 축은 문화사랑방과 문화통화 넘실이다. '문화공간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재화 또는 서비스이며 문화통화를 매개로 교환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문화사랑방과 문화통화 넘실은 공통분모를 갖는다.

'2006년 사랑방문화클럽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클럽들이 연습공간 및 발표공간이 부족하다고 대답해 공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사랑방은 클럽들의 연습공간과 발표공간의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다. '2007년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성남시 내의 860개 공간을 집중 조사하여 150여개 공간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남문화재단은 조사된 기관 및 시설 등을 적극 연계하여 문화통화 넘실을 활용한 공간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성남의 곳곳을 시민들의 창조활동공간인 문화사랑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8월, 1호점 만나교회를 시작으로 2호점 보바스 기념병원, 3호점 카페 풀시티 커피전문점, 4호점 서현청소년 수련관, 총 4곳이 올해 문화사랑방으로 지정되었고 국군수도병원 적십자봉사실이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받는 공간으로 등록되었다. 2008년도에는 문화공간 실태조사에서 긍정적으로 호응했던 150여개 문화공간에 대해 문화사랑방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 남 맥 의 넘 실 사 용 설 명 서

내 이름은 성남맥. 35살의 주부이며, 성남시민 문화예술동호회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맡고 있다. 지난 달에 오케스트라 단장님이 함께 사랑방문화클럽 문화통화교육을 받으러 가자고 하셔서 교육을 받은 후, 문화통장 넘실을 발급받았다. 최초 발급받으면 30만 넘실이 지급된다고 한다. 어떻게 쓸 수 있지?

오늘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문화통화] 제3차 품앗이 학교로 '요들학교'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보았다. '아! 내가 받은 넘실로 이 교육을 들을 수 있구나'. 당장 수강신청을 했다. 그런데, 넘실을 쓰기만 하면 금방 바닥이 날텐데, 넘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남문화재단에 넘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니, 때마침 문화사랑방인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내가 그 수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넘실을 지급받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는 하루는 선생님이 되어 가르치고, 하루는 학생이 되어 배우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지난 주, 우리 오케스트라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공연을 했다. 봉사공연 후, 5만 넘실을 지급받았다. 연습공간이 부족했던 우리 오케스트라는 받은 넘실을 이용해서 문화사랑방 보바스병원 보바스홀을 연습공간으로 사용하여 1만 넘실을 지급했다. 시설이 깨끗하고 공간도 넓어 우리 모두는 연습공간에 대해 대단히 만족했다. 다음 주도 넘실을 이용해 보바스홀에서 연습을 하기로 했다.

문화통화 넘실을 통해 도움을 주고 받는 품앗이제도가 문화클럽

의 활동에 매우 유익하게 쓰이고 있다. 나의 작은 손길과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 받는 구조를 가진 품앗이제도는 나눔의 미학을 알려주는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삶의 행복감과 여유,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문화통화 넘실을 앞으로 애용할 생각이다.



문화사랑방 + 성남문화통화 사업 을 진행하면서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유상진**,
고유경



'가치'를 주고 받는 문화사랑방과 문화통화

유상진 : 문화사랑방과 문화통화 넘실은 시민들과 사랑방문화클럽들의 활동이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처음 문화통화 사업을 알려 드렸을 때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시더라고요. 일반적인 거래시스템이라고 이해하셔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헌공연으로 넘실을 제공받고, 문화사랑방의 공간을 사용하여 넘실을 제공하는 경험을 하시더니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문화통화는 법정화폐인 '돈'이 아닌, 사람냄새가 나는 '가치'의 주고 받음 이니까요.

고유경 : 문화통화란 지역통화를 문화적인 측면으로 투과시켜야 하는 사업이라 타 지역의 지역통화를 참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지역통화가 활발한 곳이 '대전한밭레츠'나 '과천 품앗이'인데 도시의 규모, 인구, 환경 등에 따라 성남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벤치마킹 사례를 찾는데 많이 힘들었죠.

성남 문화품앗이는 9월부터 지금까지 3차 문화통화 회원교육을 실시했고요, 회원들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10월부터 '품앗이 학교'가 개강 되었습니다. 1회는 '영상학교', 2회는 '한지공예학교'로 진행하였는데, 참여회원들은 다양한 장르를 체험할 수 있어서 만족해하세요.

유상진 : 문화사랑방은 넘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습공간 및 발표공간을 제공한 후 쌓인 넘실로 기관 및 시설의 자체 행사에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공연 및 전시를 열 수 있습니다. 또 기관과 시설에 속한 구성원이 강습을 받고 싶다면 사랑방문화클럽에서 강사를 품앗이하어 해당 사랑방문화클럽으로 넘실을 제

아마데이 만돌린챔버
오케스트라
김병규

문화사랑방 후기

전반적으로 사용하기는 편하였습니다. 교회의 주차시설도 좋았고, 주차공간도 일반적인 주차장보다 여유가 있어서 편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주차장에서 접근성이 편해서 쉽게 이용하였습니다. 8층에서 보이는 전망도 좋았습니다. 교회담당자도 친절하게 안내 해주어서 편하였습니다.

사용 장소는 조용하고 깨끗하였으나, 내부에는 사무용 책상과 노트북 등이 있어서 남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분당중앙수채화
안윤환

저희 분당중앙수채화는 제 4회 수채화 정기전시회를 앞두고 작품 및 행사에 관하여 토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정기 모임시에는 일반적인 카페나 음식점을 선정하여 모임을 가지곤 하였지만, 전시회를 준비하는 모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많아, 전시회 문제들을 토의하거나 준비하기에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간을 사용하기 전, 만나교회 담당자이신 박종미님과 상의하여 우리 클럽에 맞는 공간을 둘러본 후 예약하였습니다. 예약하였던 3일간의 공간 활용으로 우리 분당중앙수채화 제 4회 정기전시회가 더욱 빛날 수 있고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 및 전시회 일정 협의 등에 아주 소중한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문화통화 사용 후기

13일 사랑방클럽축제를 앞둔 며칠 전, 콘서트홀이란 커다란 무대에 처음으로 올라 연주해야 할 우리 단원들은 당일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불안해 하였습니다. 그 날은 마침 토요일이라 공공기관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문화품앗이통장을 활용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소는 만나교회 9층 연주실로 정하고 사무국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 시간대에 연주실이 비어있었습니다.

친절한 만나교회 박종미 선생님의 안내로 연주실에 모여 편안한 마음으로 리허설을 마칠 수 있었으며 콘서트홀 연주도 만족스럽게 해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화품앗이가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어 모든 클럽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도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대관에 힘써주신 사무국과 만나교회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로망스기타합주단
박옥례

온 라 인
사랑방문화클럽
뉴스레터
+
사랑방문화클럽
통신원



매월 첫째 주, 받은 편지함에 어김없이 '안녕하세요!^^ 사랑방 문화클럽 뉴스레터입니다'라는 메일이 담겨 있다. 다른 뉴스레터는 스팸메일함이나 휴지통에 직행하는데 반해, 이 뉴스레터만은 꼼꼼이 챙겨본다. 내가 만났던 사랑방문화클럽들의 활동상을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방문화클럽 뉴스레터'는 2007년 2월부터 계획하여 4월에 탄생했다. 뉴스레터는 사랑방 공지와 소식, 클럽행사안내, 사랑방 클럽 및 행사 취재, 이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랑방문화클럽 온라인 회원 및 클럽 마스터, 언론인 등에게 발송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 김보애 사랑지기가 한 달 동안의 소식을 모아서 구성하였는데, 6월부터는 사랑방문화클럽 통신원이 기고한 영상과 사진이 함께 실려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소식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랑방문화클럽 통신원은 총 8명이다. 다양한 장르의 사랑방문화클럽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기사를 작성하여 여러 클럽인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정기모임에서 취재 나갈 클럽을 정한 후, 사랑지기와 통신원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한다. 평소에는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 중 프로젝트 모임방의 통신원 모임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의견을 주고 받는다.

사랑방문화클럽 통신원

함성 류혜연, 아이리스 권영현, 성남 6mm 오종실, 성남 6mm 김형진,
성남문화기행 여행꾸러미 박순정,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이상훈,
성남분당디카사진동호회 줌인세상 김종식,
성남분당디카사진동호회 줌인세상 우장순

사랑방 문화클럽 2 0 0 7 활 동 보 고 회

20071221



2007년 한 해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결과를 되짚어 본 '사랑방문화클럽 2007 활동보고회'와 2008년 사랑방문화클럽의 계획을 담았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날로의 초대

한 해동안 크고 작은 모임과 행사에서 익숙한 얼굴이라 이 곳, 저 곳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둘러앉은 테이블마다 이야기꽃이 핀다. 새로 온 클럽인들은 자기 소개를 하며 상대방의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에 대해 관심있게 묻기도 한다.

오늘은 2007년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을 돌아보고 2008년을 함께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 사랑방문화클럽의 과거를 회우하고 현재를 격려하며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모였다. 활동보고회의 시작을 알리는 환영인사가 시작되고, 여러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사랑방문화클럽이 1년 간 일궈낸 성과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끊이지 않았다. 다음 순서로 2007년 사랑방문화클럽이 지나온 시간을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사랑방문화클럽이 걸어온 지난 1년, 그 아름다웠던 지난 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로 시작된 영상은 '문이 열리다', '첫 걸음을 떼어내다', '온 세상에 알리다', '한 걸음 더 앞으로'의 소재목으로 나뉘어 1년간의 발자취를 시간 흐름에 따라 되짚어볼 수 있었다. 사랑방문화클럽을 찾아내고 정책기반을 조성한 이야기부터 클럽지기들의 첫 만남이었던 클럽파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했던 워크숍의 화면을 보니 팽팽했던 그 날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 했다. 사랑방문화클럽을 온 세상에 알린 사랑방클럽축제의 공연, 전시,

체험을 담은 영상이 나오자 모든 클럽들이 단합했던 10월의 축제
가 다시 떠올랐고 클럽지기들이 함께 모인 전체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다.

감동적인 영상이 끝나고 사랑방문화클럽의 전체 경과보고가 있었
다. 2007년 한 해동안 사랑방문화클럽의 정책적 기반조성에 심혈
을 기울였던 성남문화재단은 클럽활동을 이끄는 일꾼 역할을 특
특히 한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공모지원 사업 논의 및 추진, 클
럽축제 기획팀 구성과 사랑방 조인식을 추진했고 2008년 총회
및 사업방향 추진을 위한 TF 구성 등의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었
다. 사랑방클럽축제는 60여개 클럽, 1,000여명이 참여하여 단결
과 화합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클럽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원요구 현황을 분석하여 시행
했던 공모지원사업에 이어 인적자원과 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나눔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문화통화와 문화사랑방의
보고로 2007년 사업경과보고가 끝났다.

사랑방문화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박영애 시의원의 선창으로 축배를 했다. 참가한 사람 모두가 '위
하여!'를 크게 외치며 서로에게 축하의 잔을 권했다. 활동보고회
를 축하하기 위해 여섯줄사랑과 분당요들클럽의 공연이 있었다.
여섯줄사랑은 '행복한 사람'을 첫 곡으로 시작하여 다함께 부를
수 있는 캐롤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였다. 참석한 전원은 손
뺍을 치고 캐롤송을 부르며 12월을 만끽했다. 이어진 분당요들클
럽의 경쾌한 요들송 공연은 파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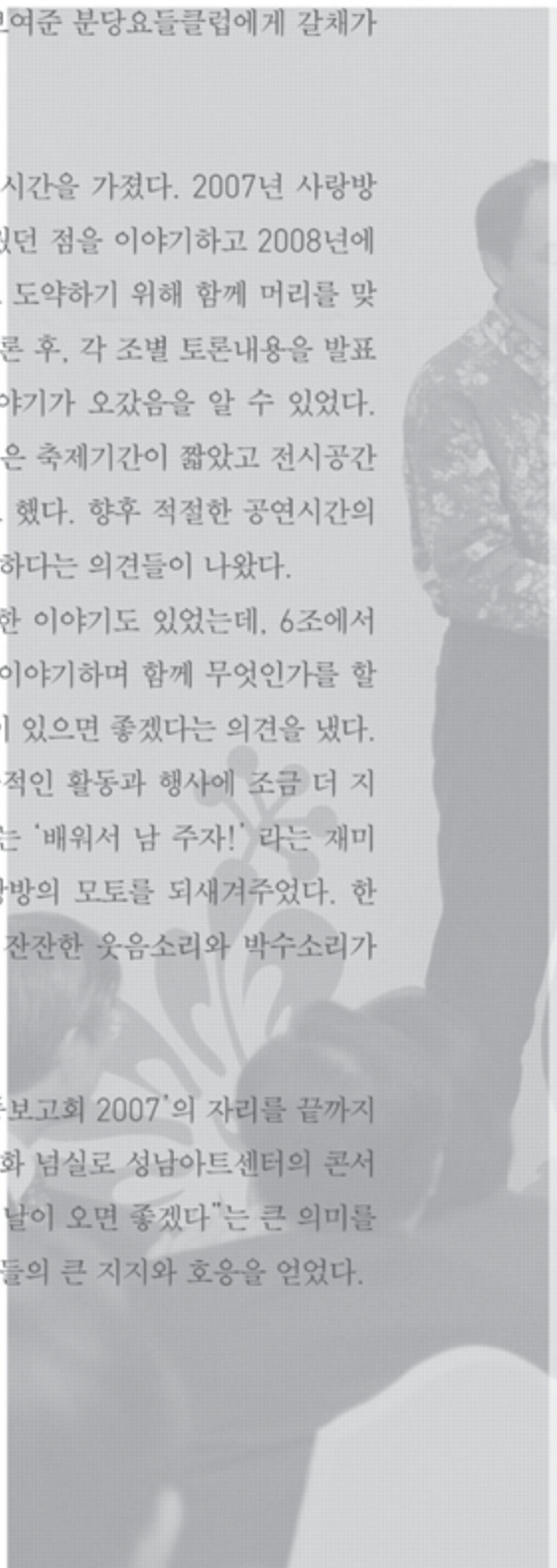


있는 입담으로 멋진 무대매너를 보여준 분당요들클럽에게 갈채가 쏟아졌다.

저녁식사를 한 후, 조별 자유토론시간을 가졌다. 2007년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의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고 2008년에는 보다 나은 사랑방문화클럽으로 도약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었다. 약 30여분의 토론 후, 각 조별 토론내용을 발표했는데 클럽축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사랑방클럽축제의 아쉬운 점은 축제기간이 짧았고 전시공간이 협소했으며 홍보가 부족했다고 했다. 향후 적절한 공연시간의 안배와 안정적인 전시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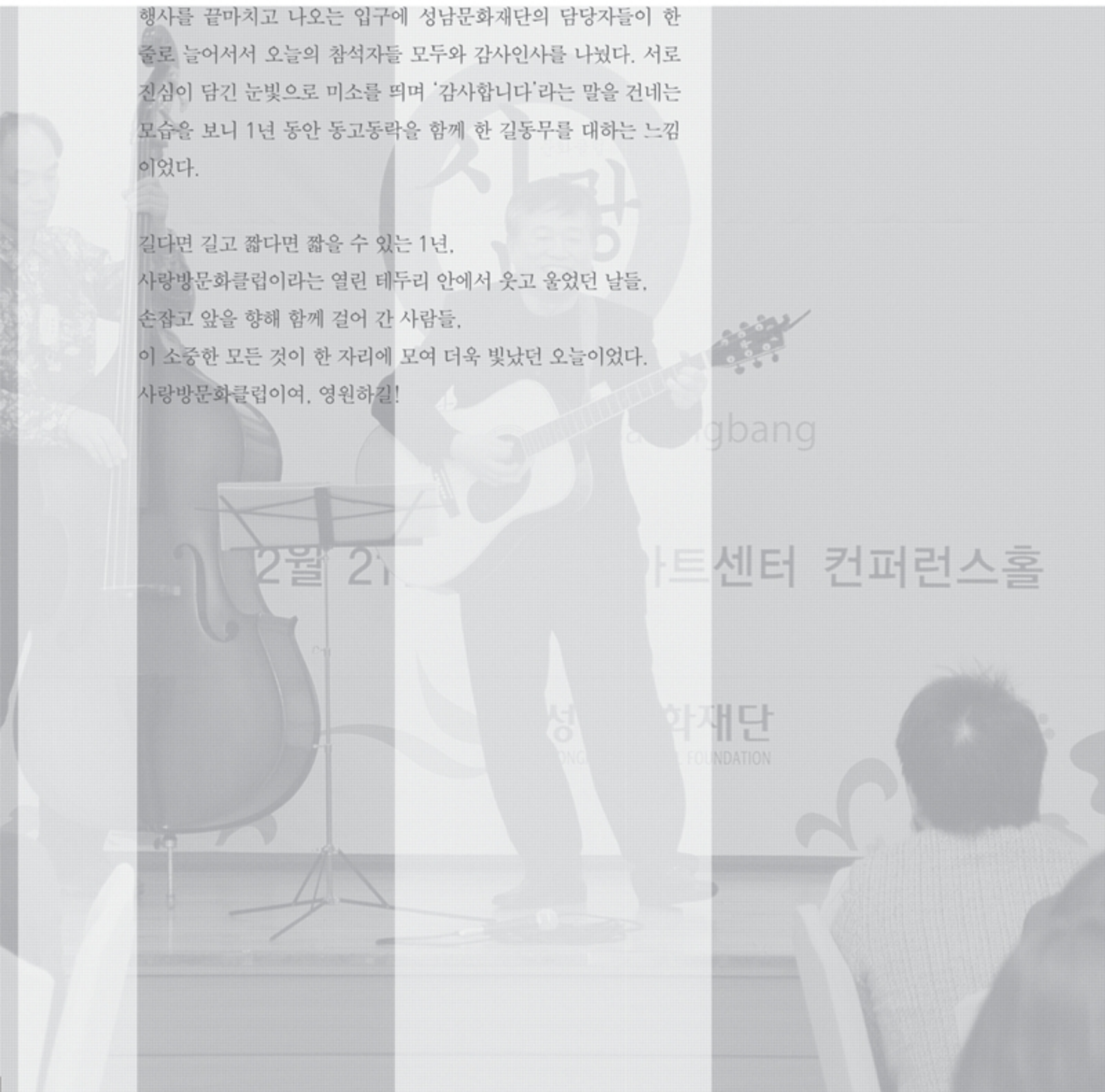
사랑방문화클럽의 발전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6조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연습하고 이야기하며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랑방'이라는 상설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1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적인 활동과 행사에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8조에서는 '배워서 남 주자!' 라는 재미 있고 뜻깊은 캐치프레이즈로 사랑방의 모토를 되새겨주었다. 한 조, 한 조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잔잔한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으로, '사랑방문화클럽 활동보고회 2007'의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한 정기영 시의원은 "문화통화 넘실로 성남아트센터의 콘서트홀과 갤러리를 빌릴 수 있는 그 날이 오면 좋겠다"는 큰 의미를 내포한 소감을 이야기하여 클럽인들의 큰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끝나치고 나오는 입구에 성남문화재단의 담당자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오늘의 참석자들 모두와 감사인사를 나눴다. 서로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미소를 띄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니 1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한 길동무를 대하는 느낌이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년,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열린 테두리 안에서 웃고 울었던 날들,
손잡고 앞을 향해 함께 걸어 간 사람들,
이 소중한 모든 것이 한 자리에 모여 더욱 빛났던 오늘이었다.
사랑방문화클럽이여, 영원하길!



2월 21

사랑방

아트센터 컨퍼런스홀

성남문화재단
SANGNAM CULTURE FOUNDATION

제 2 의 화 려 한 도 약 사랑방문화클럽 2 0 0 8



사랑방문화클럽의 2008년을 준비하며

2007년,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구축사업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클럽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 해 동안 사랑방문화클럽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여러 문화예술클럽들이 '문화도시 성남'을 가꾸어 갈 주체로서의 역량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성남시민은 물론 타 지역의 문화예술가에게 사랑방문화클럽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지난 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클럽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이에 클럽들의 요구사항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모임구조, 운영위원회와 클럽간의 소통구조, 실무집행을 위한 실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사랑방문화클럽은 보다 많은 신규 클럽의 참여와 클럽 간 교류확대에 힘쓰고 지역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사랑방문화클럽의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준비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까지 확대하여 일반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문화향유와 함께 문화창조의 기회까지 마련하려 한다. 아울러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08년 사랑방문화클럽 향후 일정

2007.12.21 ~ 2008. 1.24	TF +조별 미팅 의견수렴
2008. 1.16	제 10차 운영위원회 (사업계획 초안 검토)
2008. 1.25 ~ 26	2008년 클럽지기 워크숍 1차
2008. 2.15	2008년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원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공고
2008. 2.19	제 11차 운영위원회 (사업계획 최종 검토)
2008. 3. 7	2008 사랑방문화클럽 총회 (향후 사업계획 확정)
2008. 3. 8 ~ 14	공모지원사업 신청 접수마감
2008. 3.17 ~ 28	공모지원사업 심사
2008. 3.28	공모지원사업 결과 발표
2008. 9.22 ~ 28	클럽주간 사랑방문화클럽 페스티벌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기 모임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 본 모임은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기 모임'(이하 본 모임)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 본 모임은 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클럽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의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 본 모임에서 '클럽지기'라 함은 '클럽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클럽에서 대표성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클럽지기 모임'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클럽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모임에 가입한 클럽지기로 구성된다.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는 성남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화예술 클럽들이 상호의 발전을 위하여 연계하는 통신망을 일컫는다.

제 4조 (사업)

- 본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① 문화예술 클럽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 ② 문화예술 클럽들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사업
- ③ 상호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
- ④ 문화예술 클럽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 ⑤ 기타 본 모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11조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
- ③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 ④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제 12조 (의결)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모임의 해산의 경우는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 13조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운영위원회에는 성남문화재단의 담당 부서장과 담당직원이 옵서버로 참석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로 전문위원 및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4조 (소집)

-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5조 (기능)

-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개최되는 총회까지 본 모임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

능을 갖는다.

- ① 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 설치 및 해산
- ② 각 활동단위의 운영 규칙에 관한 인준
- ③ 운영위원이 제안한 안건
- ④ 기타 본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6조 (의결)

-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7조 (전문위원)

- 각 클럽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적극 하고 계신 분 또는 문화 예술계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전문위원은 클럽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제 18조 (실행위원)

-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모임이 실행력을 갖추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 실행위원은 본 모임의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실천단위로서 실천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 본 운영규정은 2007년 5월 18일 사랑방 문화클럽 클럽지기 모임 창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회의록)

-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운영위원장의 서명 후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공개하며, 가급적 모든 회의는 회의주재자가 서명 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3조 (네트워크)

- 본 모임은 2008년 3월을 전후하여 클럽의 일반 회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로 조직을 확대·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 조직도



